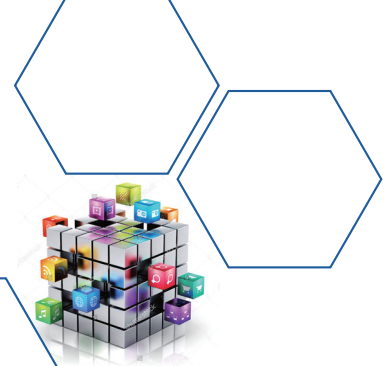


#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 CONTENTS

A decorative graphic on the right side of the blue banner, showing a white smartphone with a colorful screen, partially overlapping the blue background.

I. 경제	3
II. 중소기업	43
III. 주요산업	70

# 1. 세계경제

# I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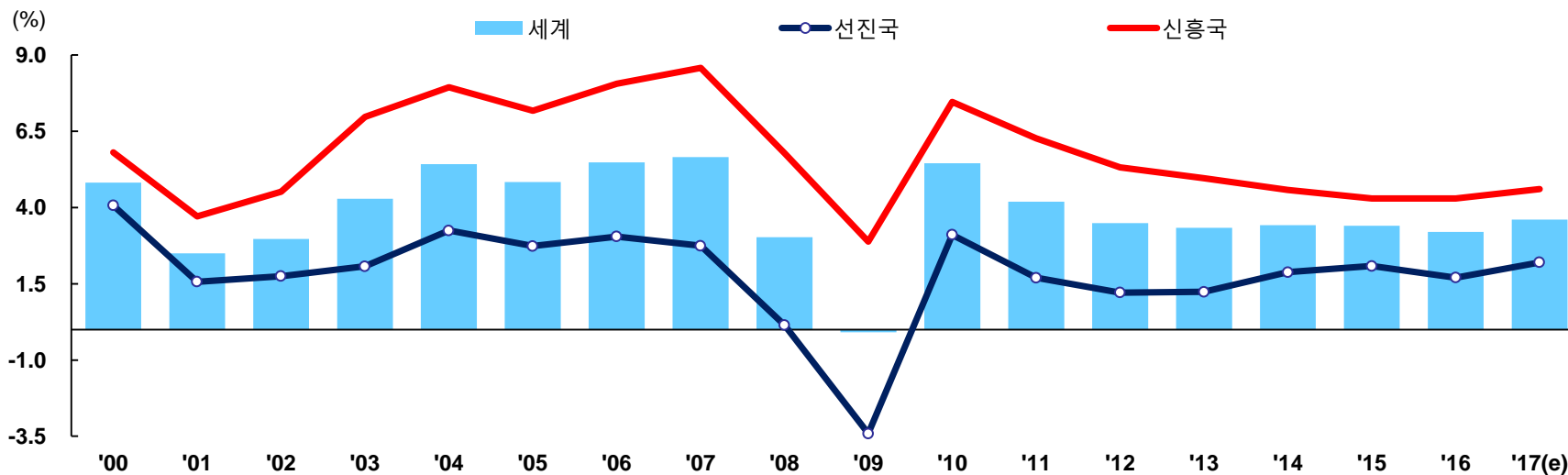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 1. 세계경제 [현황]

## 교역량 확대, 생산증가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회복이 동조화

- ✓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 미국의 경기개선이 가속화되고 일본과 유로존은 수출과 내수를 기반으로 완만하게 회복
- ✓ (신흥국) 선진국 경기회복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반등하며 성장세 유지
  - 중국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정부의 성장목표(6.5%)를 초과 달성하고 ASEAN5는 수출과 투자증가로 5%대 성장률 기록

< 경제성장률 >



주 : 전년대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7.10)

# 1. 세계경제 [전망]

## 선진국 수요가 신흥국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

- ✓ (미국) 기업의 생산 및 투자회복으로 '17년 수준의 경기개선세 유지
- ✓ (중국) 시진핑 2기 출범에 의한 구조개혁 가속화로 성장세 둔화
- ✓ (유로존) 소비·투자·생산 호조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 ✓ (일본)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이 유지되겠지만 경기회복세는 다소 둔화될 양상
- ✓ (ASEAN5) 견고한 내수, 수출호조세 지속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 경제성장률 및 경기판단 >

	'16년	'17년 <sup>(e)</sup>	'18년 <sup>(e)</sup>	'18년 경기판단
세 계	3.2	3.6	3.7	회복세 유지
미 국	1.5	2.1	2.0	개선세 유지
중 국	6.7	6.8	6.5	성장세 둔화
유로존	1.8	2.2	2.0	회복세 유지
일 본	1.0	1.3	1.1	회복세 둔화
ASEAN5	4.9	5.2	5.2	성장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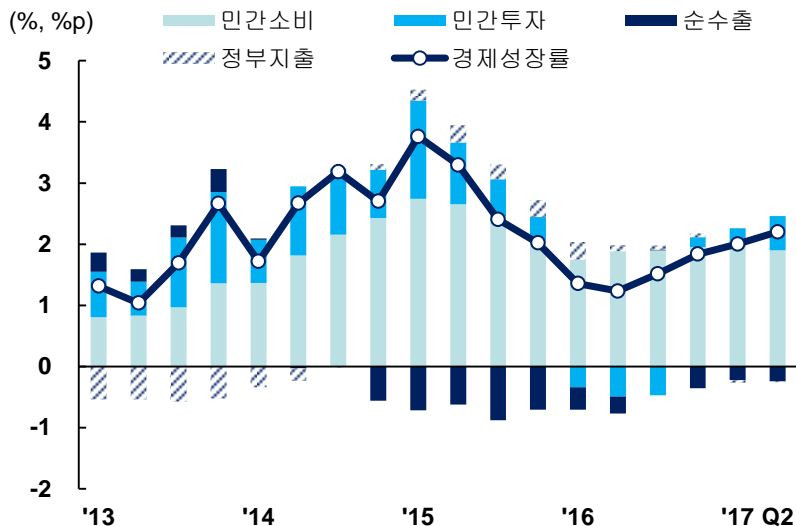
주 : 세계경제, ASEAN5는 IMF,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전망치는 IBK경제연구소, 단위는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7.10)

# 1. 세계경제 [미국]

## 기업의 생산 및 투자회복으로 2017년 수준의 경기개선세 유지

- ✓ (현황)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투자가 회복되며 양호한 성장률 기록
  - 고용시장 호조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하고 유가상승과 기업이익 개선으로 투자가 회복
- ✓ (전망) 경기흐름이 양호한 가운데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기조로 2%대 성장률 전망
  - 에너지 및 금융산업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35→20%, 예정안)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감면(39.6→35%, 예정안), 미국내 투자유도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경기개선을 도모
  - ※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효과 반감, 의회와 정부와의 갈등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전망 시점
IMF	2.2	2.3	'17.10월
OECD	2.1	2.4	'17.9월
World Bank	2.1	2.2	'17.6월
FRB <sup>*</sup>	2.4	2.1	'1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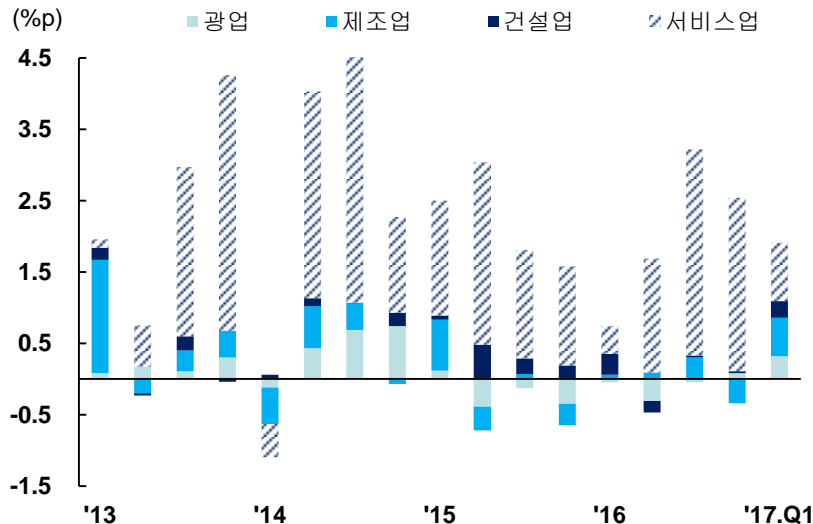
주 : 단위는 %, \* FOMC위원들의 전망치 중간값, 자료 : 각 발표기관

# 1. 세계경제 [미국] : 생산

## 제조업 회복세가 유지되며 수산업에서 고른 생산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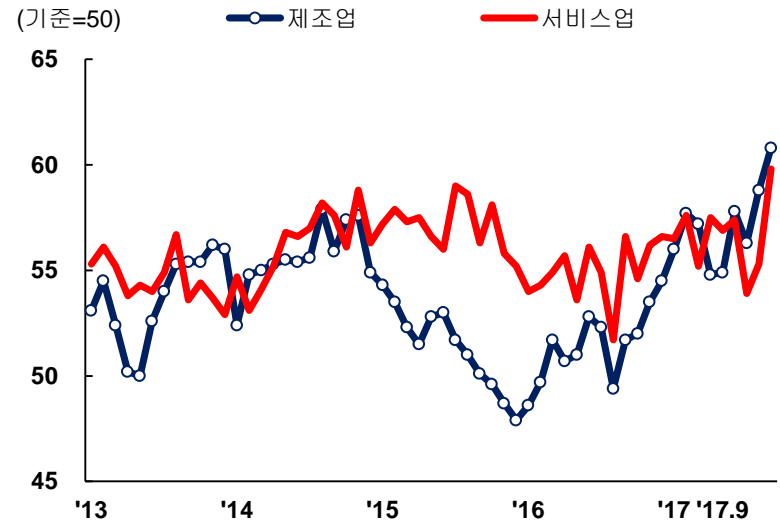
- ✓ (현황) 원자재가격 상승과 정부의 자국 에너지 생산확대 등으로 제조업과 광업 생산 증가
  - 제조업은 석유·석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 및 부품, 의류·가죽 등은 부진
  - ※ 평균가동률('16.Q4→'17.Q2, %) : 석유·석탄제품 80.1→83.3, 기계류 69.1→71.9, 화학제품 74.1→74.3, 자동차 및 부품 82.9→81.9, 의류·가죽 67.6→63.9
- ✓ (전망) 경기개선에 의한 소비증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세 지속
  - 기존 서비스업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자국생산 유도로 전통산업(화석에너지, 자동차 등) 등 에너지 및 제조업 생산이 활성화될 전망

< 산업별 성장기여도 >



주 : 실질기준, 전기대비 연율, 자료 : BEA

< ISM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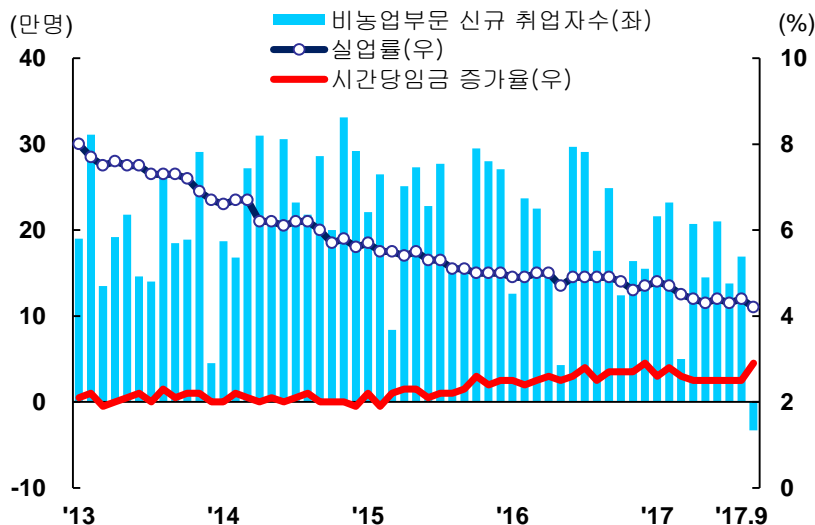
자료 : ISM

# 1. 세계경제 [미국] : 소비

## 소득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소비여건 개선으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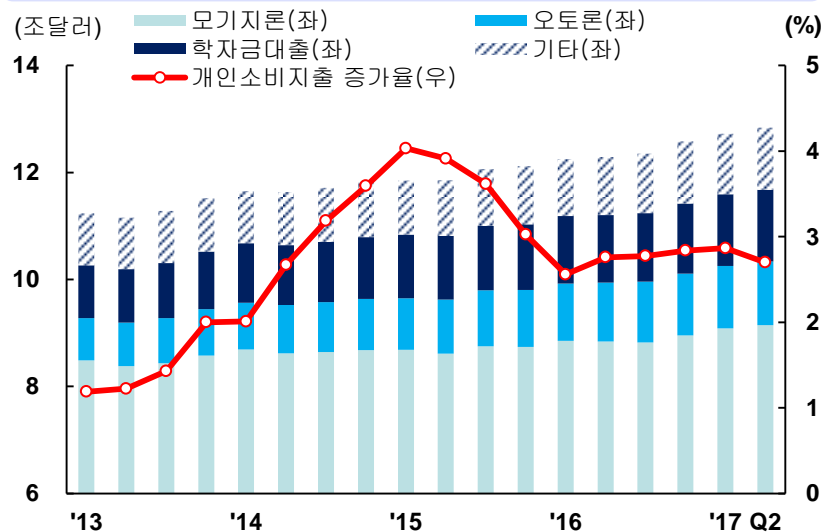
- ✓ (현황) 고용확대에 따른 소득개선과 주식·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는 증가
  - 자동차, 레저관련 용품 등 내구재 상품 지출이 크게 증가
  - ※ '17.상 품목별 개인소비지출(전년동기대비, %) : 내구재 6.7(자동차 5.5, 레저 10.8), 비내구재 2.0, 서비스 2.4
- ✓ (전망) 양호한 주택가격, 시간당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 증가세 지속되며 성장을 견인
  - 고용시장 확대 여력 저하, 늘어나는 가계부채, 실질처분가능소득 둔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
  - ※ 실질처분가능소득(전년동기대비, %) : △1.4('13) → 3.6('14) → 4.2('15) → 1.4('16) → 1.1('17.상)

### <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와 실업률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BLS

### < 가계부채와 실질개인소비지출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FRB, 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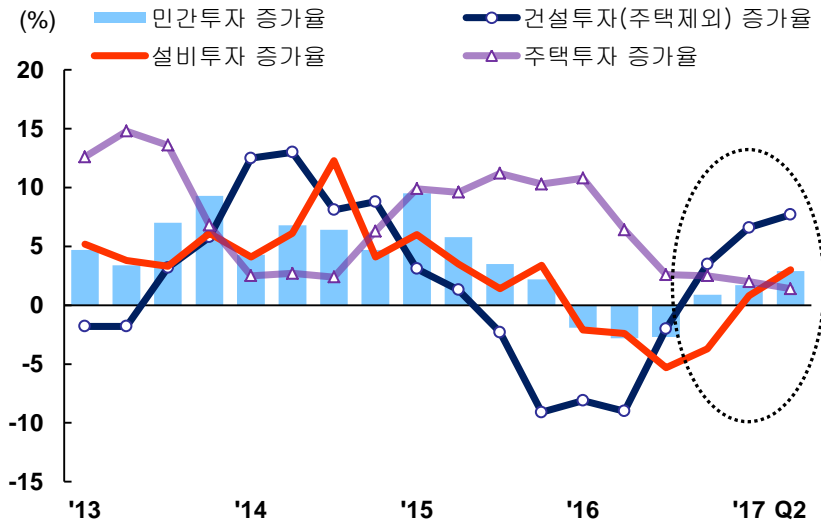
# 1. 세계경제 [미국] : 투자

## 규제완화, 감세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으로 투자유인 제고

- ✓ (현황)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외 수요증가로 설비 및 에너지부문 투자가 증가
  - 주택투자가 둔화된 반면, 시추 등 원유개발을 위한 건설투자(주택제외)와 자동화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
- ✓ (전망) 기업의 생산 및 이익 증가와 정부의 투자장려 기조로 투자증가세 지속
  - 정부의 親에너지 성향으로 화석에너지·세일가스 관련 인프라투자가 증가하고 해외 기업의 미국내 투자도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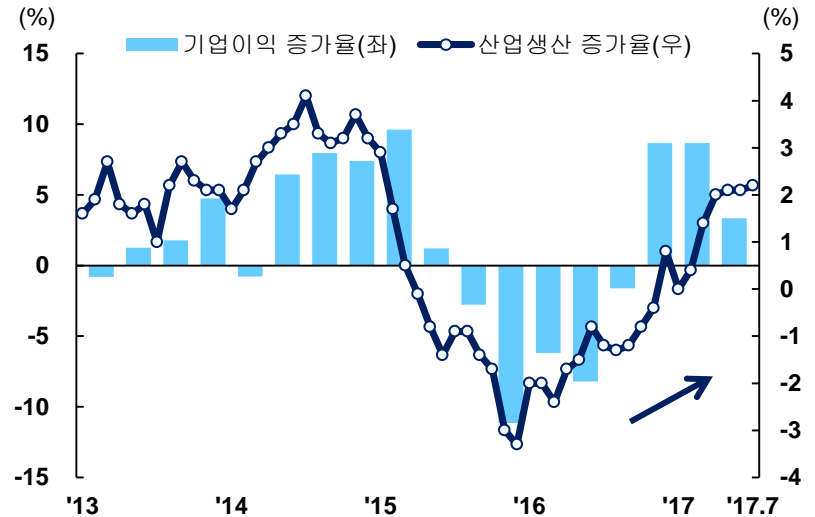
※ 설비투자 선행지표(비국방자본재수주, 전년동기대비, %) :  $\Delta 4.3('15) \rightarrow \Delta 4.6('16) \rightarrow 1.7('17.Q1) \rightarrow 5.0(Q2)$

### < 부문별 민간투자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 < 기업이익과 산업생산 >



주 : 기업이익은 비금융기관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FRB

# 1. 세계경제 [미국] : 수출입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교역증가가 지속되나, 증가율은 보호무역 등으로 둔화

- ✓ (현황) 대내외 경기개선과 함께 달러화 약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입이 크게 증가
  - 수출은 석유제품, 정제유 등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 산업기계 등이 크게 증가
  - ※ 주요 수출품목(171~7월, 전년동기대비, %): 자동차 5.4, 산업기계 12.3, 민간항공기 △8.3, 석유제품 20.6, 정제유 33.8
  - ※ 주요 수입품목(171~7월, 전년동기대비, %): 자동차 5.0, 원유 48.1, 의약품 △3.5, 컴퓨터 부품 9.5, 산업기계 13.6
- ✓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교역국과의 통상마찰로 교역은 둔화
  - 유가가 현수준을 유지하고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출에는 긍정적

< 수출입 >



주: 서비스 포함, 전년동월대비, 자료: 상무부

< 對주요국 무역수지 >

	금 액			증감
	'16.상	'16년	'17.상	'16.상 → '17.상
전 체	△2,499	△5,048	△2,754	△255
중 국	△1,552	△3,093	△1,655	△103
유로존	△458	△932	△472	△14
멕시코	△317	△631	△363	△46
일 본	△279	△571	△275	4
한 국	△106	△176	△5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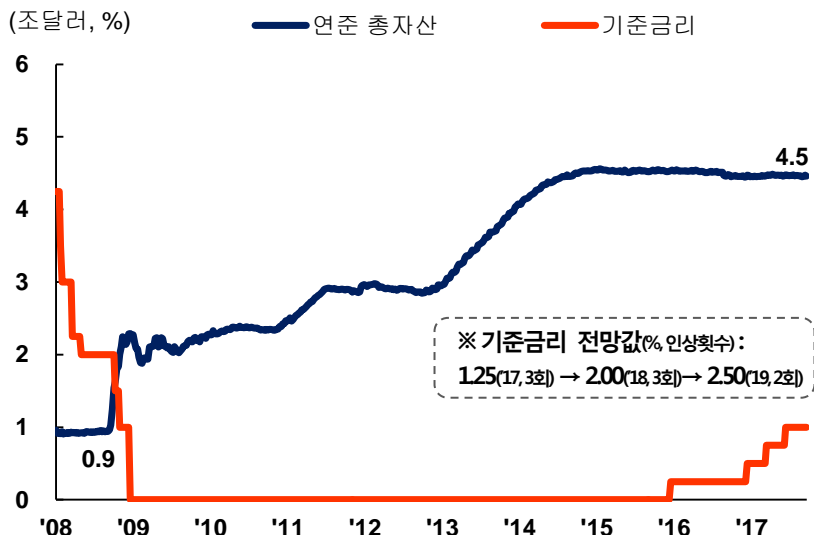
주: 서비스 포함, 단위는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자료: 상무부

# 1. 세계경제 [미국] : 이슈

## 경기확장세 지속 여부는 연준 보유자산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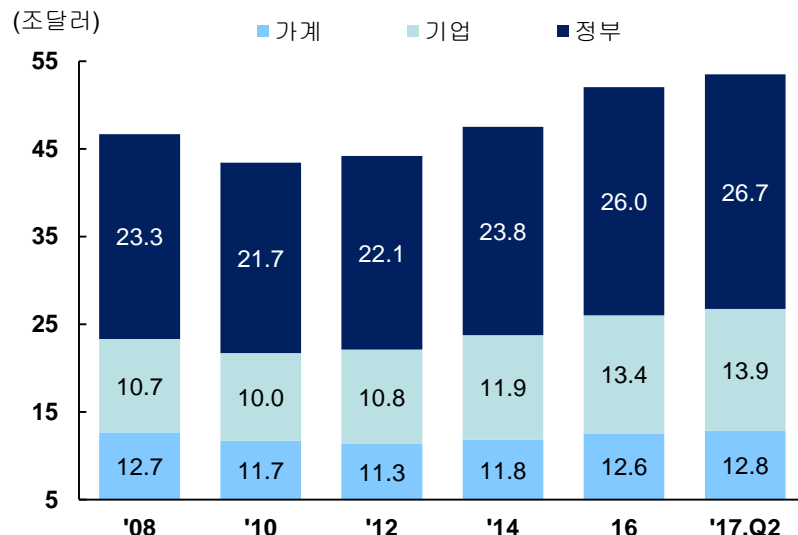
- ✓ 연준은 9년간 지속된 경기확장세로 금리인상에 이어 보유자산 축소라는 본격적 긴축에 돌입
  - 경제주체별 체력이 양호(기업이익 및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하고 은행권 체질이 개선
    - ※ 상업은행 연체율(30일이상, 계절조정, %) : 7.4('10.Q1) ⇒ 2.2('16.Q1) → 2.1(Q2) → 2.1(Q3) → 2.0(Q4) → 1.9('17.Q1) → 1.8(Q2)
- ✓ 자산버블 조정에 따른 소비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증가 등이 경기개선 지속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
    - ※ IMF는 금리인상으로 급격한 차입비용 증가시 기업의 22.1%가 취약(ICR<1 또는 1≤ICR<2)하다고 분석(금융안정보고서, 174월)

### < 연준 총자산과 기준금리 >



주 : 기준금리는 하한기준, 전망값은 '17.9월 FOMC회의기준  
자료 : FRB

### < 경제주체별 대출 잔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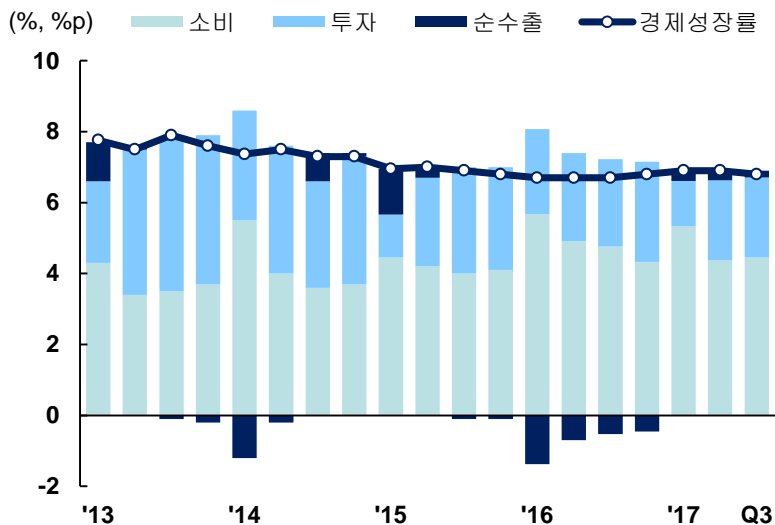
주 : 말잔기준, 자료 : FRB

# 1. 세계경제 [중국]

## 시진핑 2기 출범에 의한 구조개혁 가속화로 성장세 둔화

- ✓ (현황) 기대 이상의 수출증가로 정부의 성장목표(6.5%)를 초과 달성
  - 대내외 경기호조로 제조업 및 비제조업 고용이 모두 개선되며 소비가 증가
  - 정부의 통화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소비 증가로 생산 및 투자도 호조세
- ✓ (전망) 중국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로 생산·투자 회복세가 꺾이며 성장세 둔화
  - 과잉생산 산업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강화 영향이 가시화되며 생산과 투자가 둔화
  - 단, 정부의 고용촉진 및 소비 활성화 노력 등으로 소비는 증가세 지속

###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전망 시점
IMF	6.8	6.5	'17.10월
OECD	6.8	6.6	'17.9월
World Bank	6.5	6.3	'17.6월
ADB	6.7	6.4	'17.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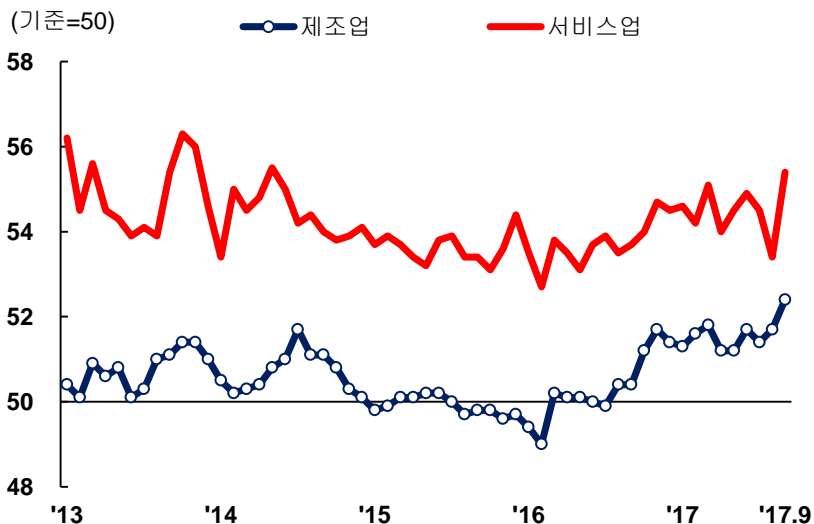
주 : 단위는 %, 자료 : 각 발표기관

# 1. 세계경제 [중국] : 생산

## 서비스업 생산은 개선세가 유지되겠으나, 제조업 생산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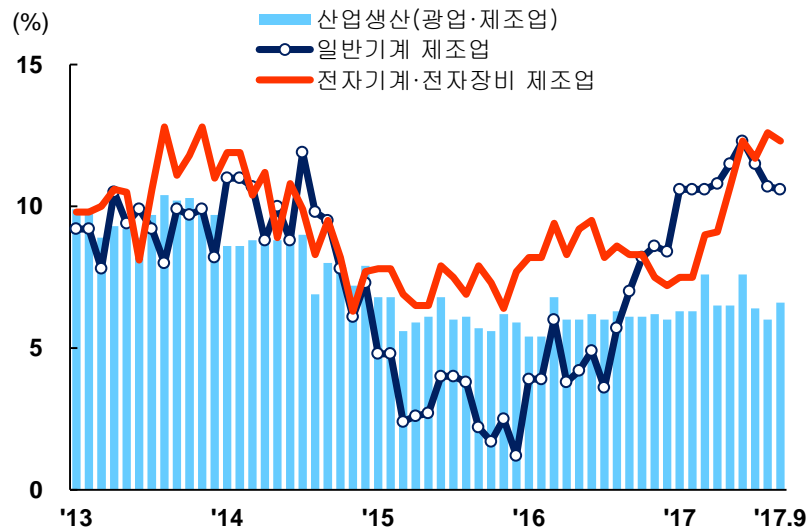
- ✓ (현황) 대내외 경기개선으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호조
  -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및 전자장치 등 생산이 증가하며 자본재 생산이 증가
  - 중국내 소비증가로 서비스업 PMI지수도 양호한 개선세 지속
- ✓ (전망) 과잉생산 및 환경오염 유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제조업 생산은 둔화
  - 환경규제 강화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화학제품, 화학섬유 생산은 둔화세 지속할 전망
    - ※ 화학제품(전년동기대비, %) : 9.5('15) → 7.7('16) → 4.0('17.1~7월), 화학섬유 : 11.2('15) → 6.1('16) → 4.0('17.1~7월)
  - '17년 생산증가를 견인했던 일반기계 등 자본재 생산도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주춤할 전망

< PMI지수 >



자료 : 국가통계국

< 업종별 산업생산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1. 세계경제 [중국]: 소비

## 실질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는 호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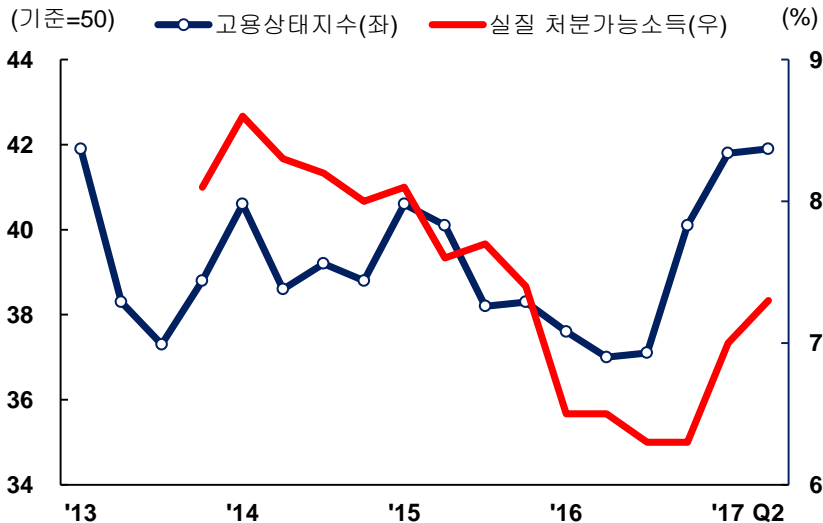
### ✓ (현황) 고용환경 개선,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가 개선

- 정부 주도의 신규고용 촉진과 대내외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이 증가
-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와 위안화 강세에 따른 낮은 물가(1.4%)로 실질소득이 증가  
\* 농산물, 천연가스 등 민생관련 부가세 인하(13%→11%), 민간보험(연 2,400위안) 가입자의 개인소득세 공제

### ✓ (전망) 증가율은 소폭 둔화되겠지만, 견조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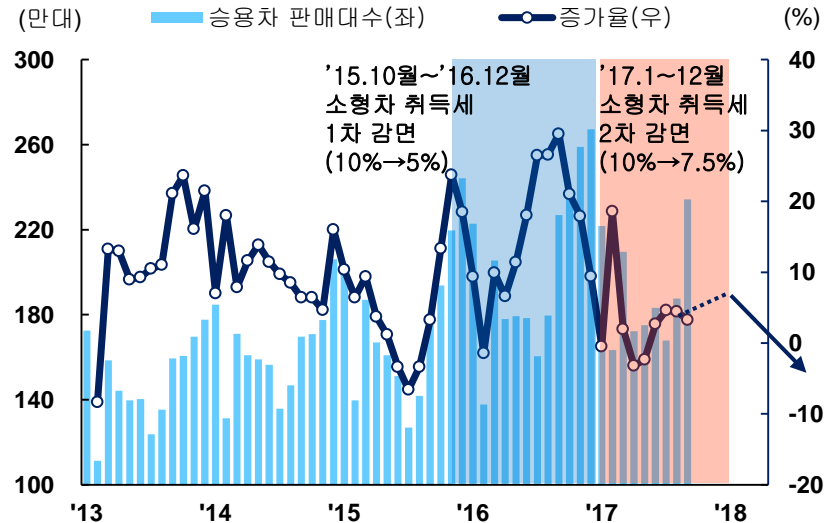
- 고용안정 및 감세혜택 확대(개인소득세 공제항목 확대 및 소득세율 인하 검토) 등으로 소비 증가세 지속
- 다만, 소형차 취득세 감면 종료와 주택경기 위축 가능성은 소비에 제약 요인

#### < 고용상태지수 및 처분가능소득 >



주 :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 < 자동차 판매대수 >



주 :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1. 세계경제 [중국] : 투자

## 정부의 규제강화 영향 본격화로 국유기업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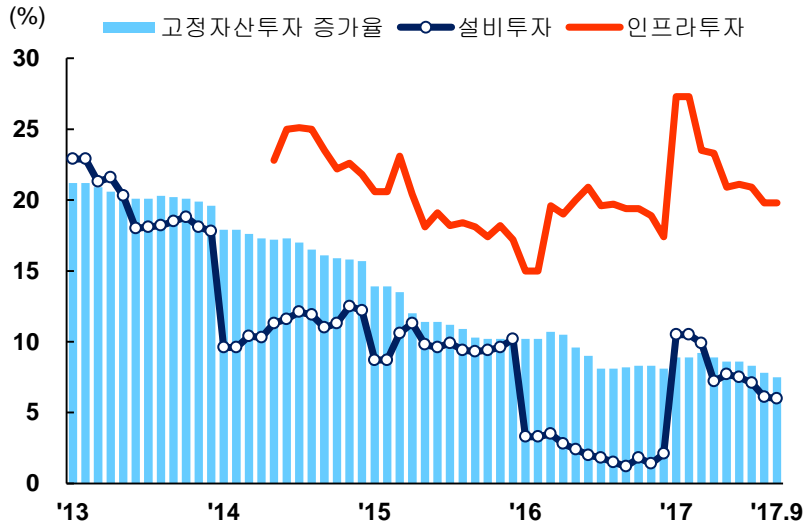
### ✓ (현황)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이익이 개선되어 제조업 설비투자가 증가  
 ※ 생산자물가(전년동기대비, %) :  $\Delta 5.2('15) \rightarrow \Delta 1.3('16) \rightarrow 6.5('17.1\sim 7월)$ , 기업이익  $\Delta 2.3('15) \rightarrow 8.5('16) \rightarrow 22.0('17.1\sim 7월)$
- 민관협력사업(PPP프로젝트) 승인('16.10월~)에 따른 자금여력 확대로 인프라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

### ✓ (전망) 지방정부 자금조달 애로\*, 국유기업 부채감축 노력,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투자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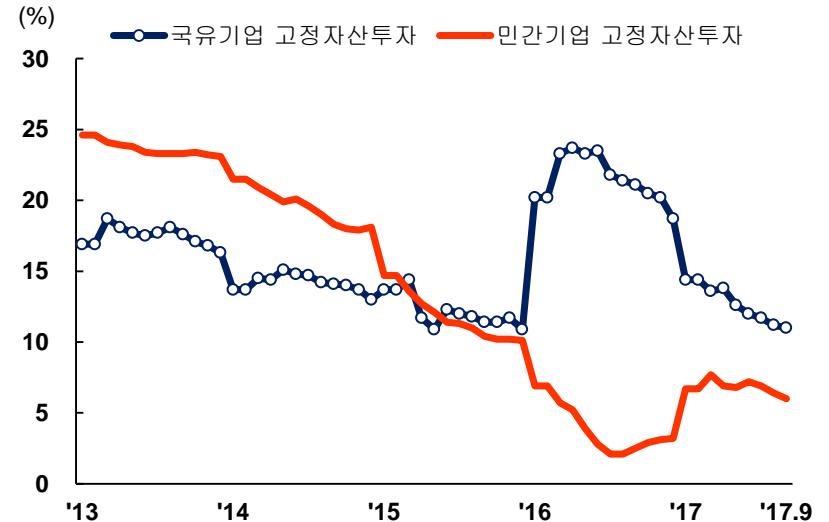
- \* 고금리 채무(14조위안)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완료, '15년 3.2조위안, '16년 4.9조위안, '17년 6조위안 전환
- 다만, 정부의 「제조업 2025」, 「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사업 지원 등으로 둔화폭은 크지 않을 전망

#### < 설비투자과 인프라투자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 국유 및 민간기업 투자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1. 세계경제 [중국]: 수출

##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확대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

### ✓ (현황) 선진국 경기개선으로 對미국 수출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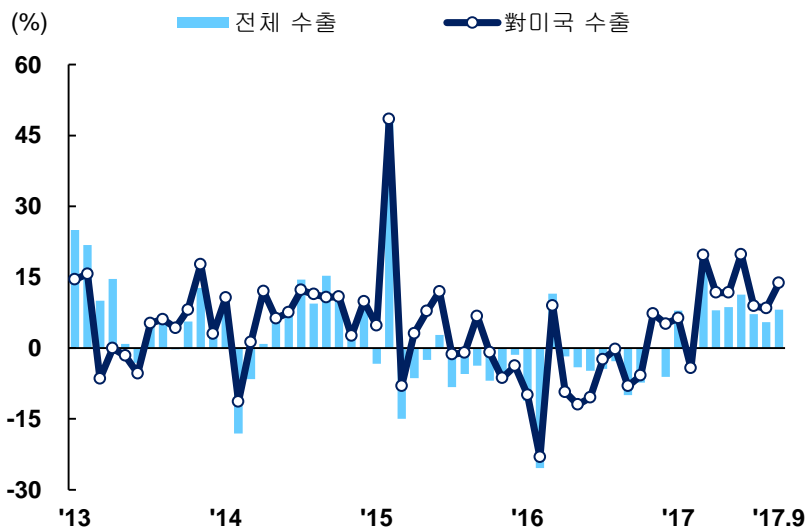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對신흥국 수출도 호조

※ 수출단가(전년동기대비, %) :  $\Delta 6.5('16.1) \Rightarrow 10.9('17.1) \rightarrow 7.8(2) \rightarrow 8.5(3) \rightarrow 9.8(4) \rightarrow 9.0(5) \rightarrow 7.6(6)$

### ✓ (전망) 미·중 통상마찰 확대 및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

- 슈퍼 301조 발동, 북핵문제 등이 부각되어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단, 글로벌 경기회복과 一帶一路 진출지역 영향력 확대 등으로 플러스 증가율은 유지

### < 전체 수출 및 對미국 수출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해관총서

### < 對주요국 수출 >

	증가율		비중	
	'16년	'17년 (1~9월 누계)	'16년	'17년 (1~9월 누계)
전 체	$\Delta 6.4$	5.5	100.0	100.0
미 국	$\Delta 5.1$	11.0	18.2	19.0
E U	$\Delta 3.7$	7.8	16.1	16.6
ASEAN	$\Delta 5.3$	4.8	12.4	12.3
홍 콩	$\Delta 12.1$	$\Delta 6.4$	13.8	11.9
일 본	$\Delta 4.7$	4.6	6.1	6.1

주 : 통관기준, 단위는 %, 자료 :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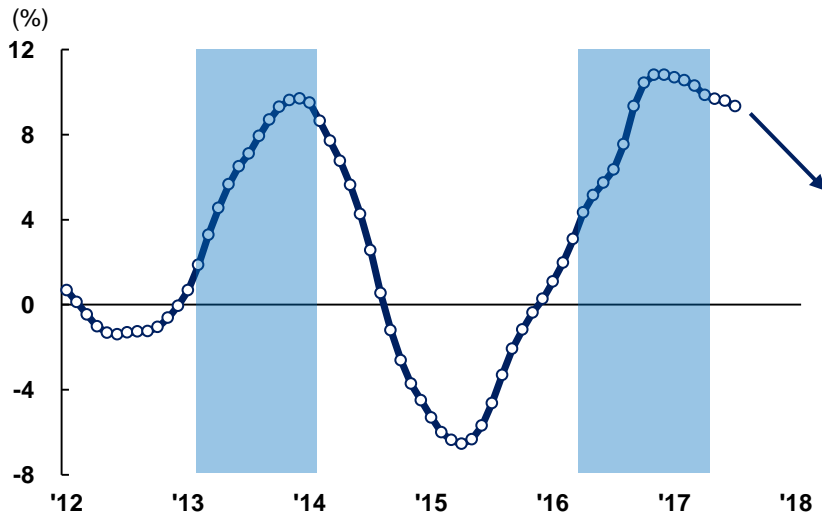
# 1. 세계경제 [중국] : 이슈

## 2016년 이후 부동산 규제강화 효과 가시화로 부동산 경기둔화가 심화

### ✓ 부동산은 지방정부, 기업, 가계 등의 주요 투자자산으로 '18년 최대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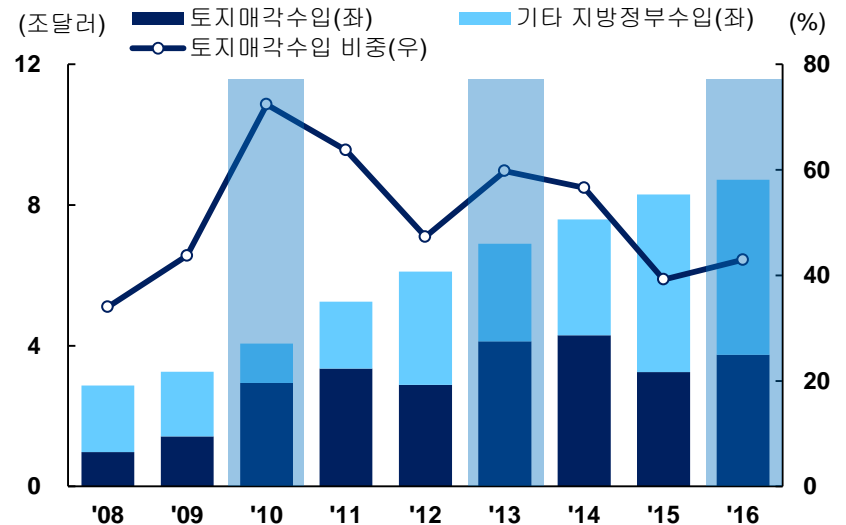
- (지방정부) 주요 재정수입인 토지매각수입 감소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
- (기업) 주요 투자자산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민간투자 전체가 둔화될 우려
- (가계) 부동산 직접투자 또는 자산관리상품(WMP, 부동산 투자비중 높음) 등의 투자손실 우려
- (금융기관) 부동산 투자비중이 큰 그림자금융 부실화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확산될 우려

### < 부동산 규제와 신규주택 가격 >



주 : 신규 주택가격은 70개도시 평균, 음영은 부동산 규제강화 기간,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 지방정부 수입 중 토지매각수입 >



주 : 중앙정부교부금제외, 음영은 부동산 규제강화 기간, 자료 : 재무부

# 1. 세계경제 [유로존]

## 소비·투자·생산 호조 등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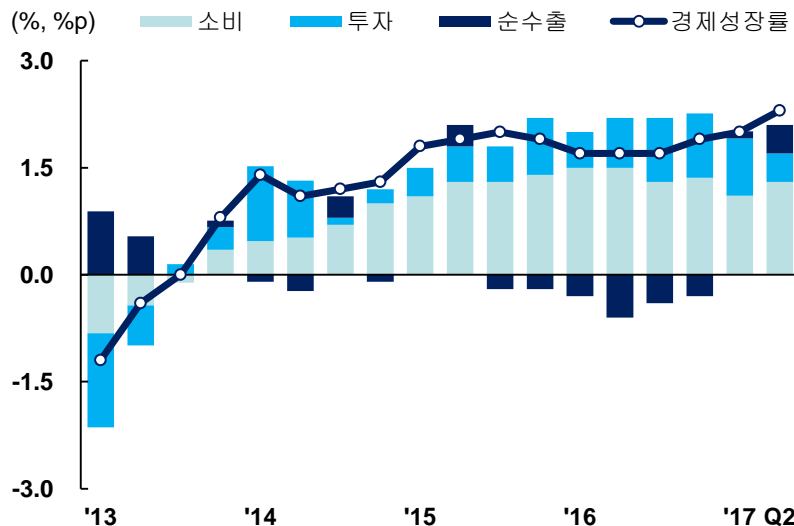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경기회복,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회복세 시현

- 고용확대에 따른 소비여건 개선, 기업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 및 투자 증가 등에 기인  
 ※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17.Q2 전년동기대비, %p) : 민간소비 1.0, 정부지출 0.3, 투자 0.6, 순수출 0.4

### ✓ (전망)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나 내수활성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

- 임금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호조, 투자증가, 내수활성화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임금상승률(전년동기대비, %) : 1.9('15) → 1.4('16) → 1.3('17.Q1) → 2.0(Q2)

###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전망 시점
IMF	2.1	1.9	'17.10월
OECD	2.1	1.9	'17.9월
World Bank	1.7	1.5	'17.6월
ECB	2.2	1.8	'1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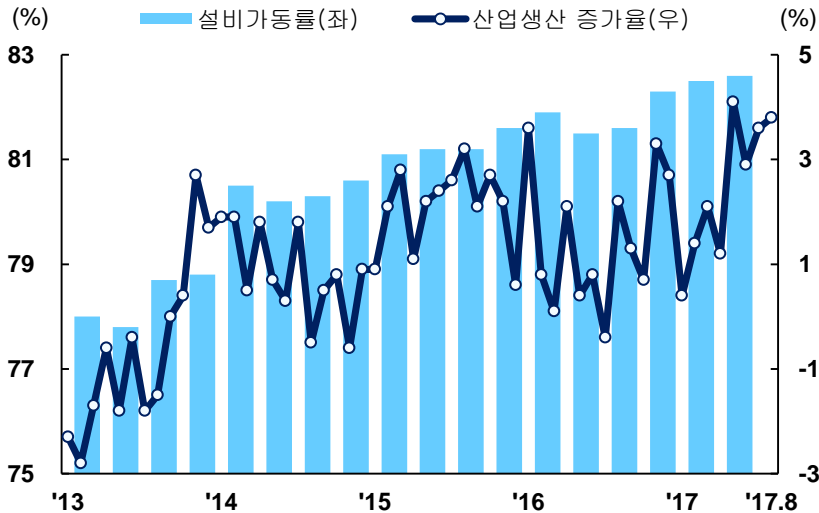
주 : 단위는 %, 자료 : 각 발표기관

# 1. 세계경제 [유로존] : 생산

## 내수 활성화, 역내 교역증가 등으로 제조업 위주의 생산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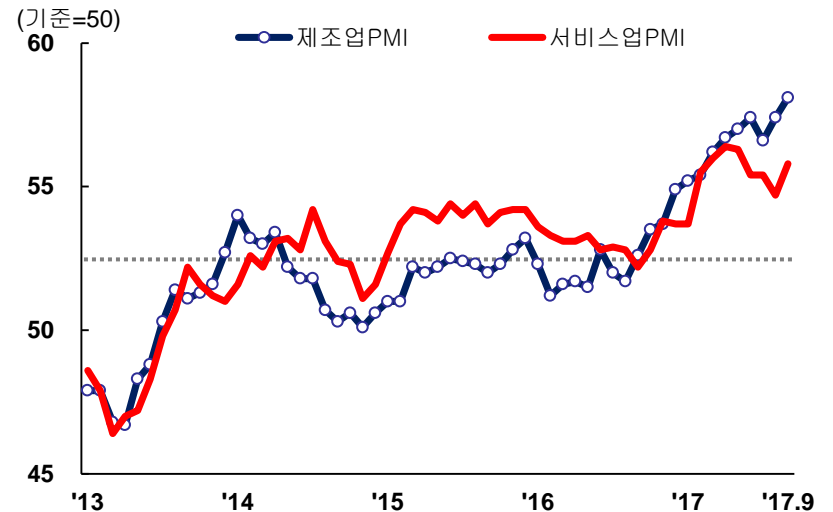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소비 증가로 생산증가세 지속
    - 원자재(구리, 니켈 등)가격상승에 따른 관련 기업의 이익개선, 주요국(독일, 프랑스 등) 제조업경기 개선으로 증가
  - ✓ (전망) 소비개선,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로 생산이 확대될 전망
    - 글로벌 수요증가로 쏠산업 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자동차, 컴퓨터 등의 내구재 증가가 예상
- ※ 품목별 산업생산('17.Q2기준 전년동기대비, %) : 내구재 5.5, 중간재 3.5, 자본재 2.6, 비내구재 1.4  
 ※ Sentix투자기대지수(기준=0) : 15.7('15) → 10.0('16) ⇒ 17.4('17.2) ⇒ 23.9(4) ⇒ 28.4(6) ⇒ 27.7(8) ⇒ 29.7(10)

### < 설비가동률 및 산업생산 >



주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ECB

### < PM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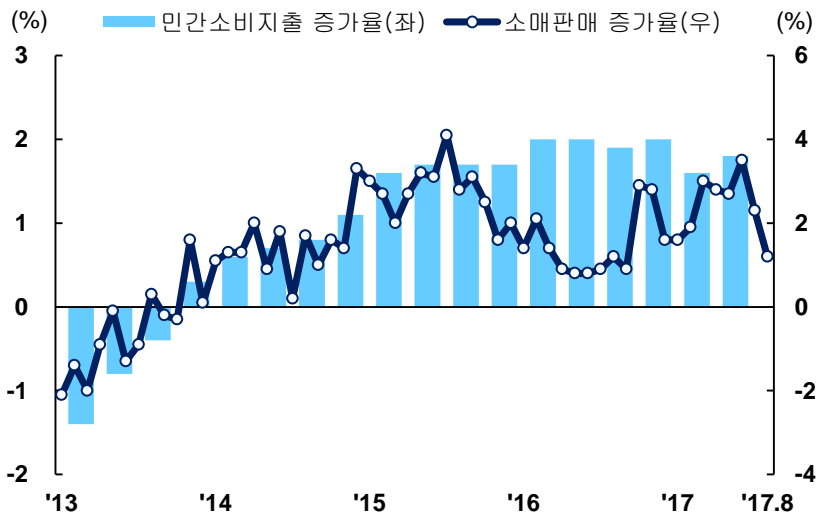
자료 : IHS Markit

# 1. 세계경제 [유로존] : 소비

##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호조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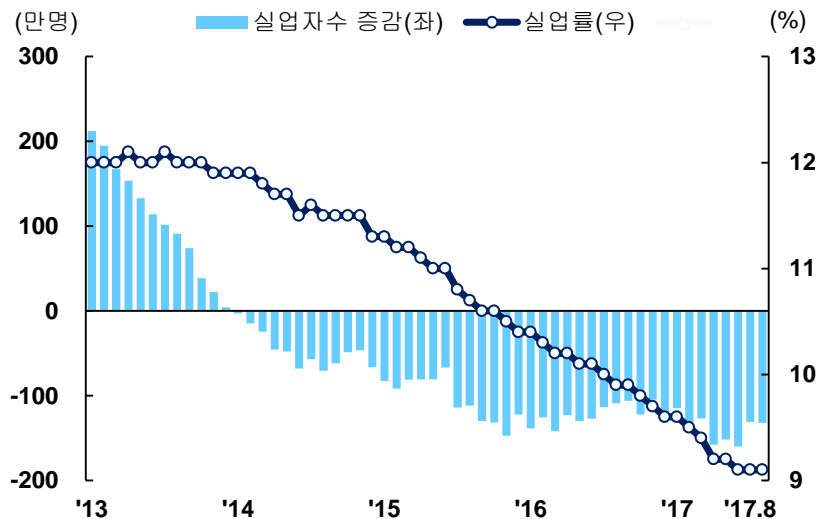
- ✓ (현황)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소비여건(처분가능소득 등) 개선 등으로 소비증가
  - ※ 실질처분가능소득(전년동기대비, %) : 1.7('16.Q1) → 2.0(Q2) → 1.2(Q3) → 1.0(Q4) → 1.4('17.Q1)
- ✓ (전망) 고용확대에 따른 소득증가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증가세 지속
  - 경기회복 기대감 지속, 노동시장 여건 개선, 가계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소비가 확대
  - ※ 소비자신뢰지수(기준=0) : △5.6('15) → △5.2('16) ⇒ △4.9('17.1) ⇒ △5.1(3) ⇒ △1.3(6) ⇒ △1.2(9)
  - ※ 경기체감지수(기준=100) : 106.6('15) → 107.8('16) ⇒ 108.0('17.1) ⇒ 108.0(3) ⇒ 111.1(6) ⇒ 113.0(9)

### < 민간소비지출과 소매판매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 실업자수와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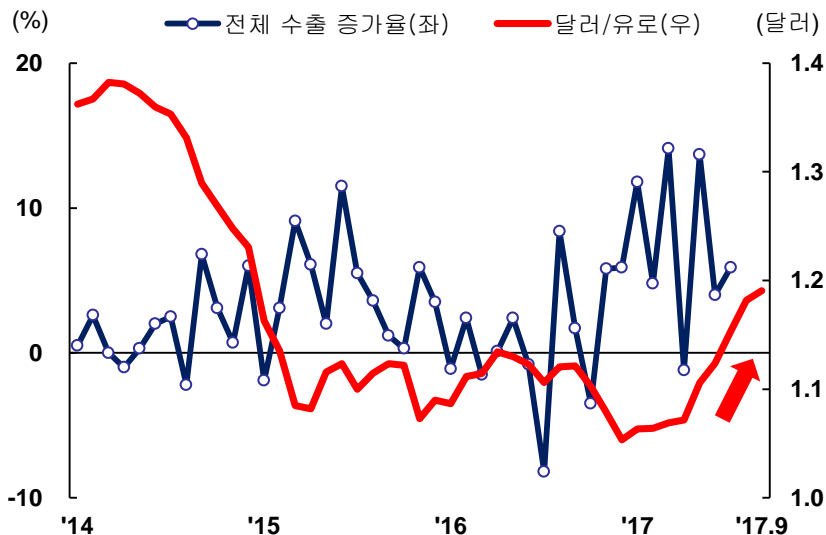
주 : 실업자수 증감은 전년동월차, 자료 : Eurostat

# 1. 세계경제 [유로존]: 수출

## 역내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외 수출이 주춤해 수출증가세는 둔화

- ✓ (현황) 신흥국 내수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증가
  - 산업생산, 설비가동률 증가로 역내 수출은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328% 1~6월 누계) 중심으로 증가
  - 對중국 수출은 중국의 경기호조로 구리, 니켈 등 원자재(394% 1~6월 누계) 수출이 크게 증가
  - ※ 對중국 수출(전년동기대비, %) :  $\Delta 0.5('15) \rightarrow 5.9('16) \rightarrow 22.4('17.Q1) \rightarrow 14.2(Q2)$
- ✓ (전망) 내수 중심의 역내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역외 수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될 전망
  - 테이퍼링에 따른 유로화 강세,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이 역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수출 및 유로환율 >



주 : 전년동월대비, 유로화기준, 자료 : Eurostat

### < 對주요국 수출 >

	증가율		비중	
	'16년	'17년 (1~6월 누계)	'16년	'17년 (1~6월 누계)
전체	0.8	7.8	100.0	100.0
역내	1.4	7.6	45.6	46.1
역외	0.3	8.0	54.4	53.9
미국	$\Delta 1.2$	5.6	7.4	7.3
영국	$\Delta 0.2$	0.5	7.3	6.9
중국	5.9	18.1	3.7	3.9

주 : 전년동기대비, 단위는 %, 자료 : Eurostat

# 1. 세계경제 [유로존] : 투자

## 설비투자 증가와 더불어 건설투자도 완만한 증가세 지속

### ✓ (현황) 설비가동률 개선, 기업이익 증가로 설비투자 증가

- 주택가격 상승으로 건설투자도 증가했으며, 특히 독일은 주거용 건설투자 확대로 건설수주 증가

※ 기업이익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23('16.Q1) → 6.32(Q2) → 2.47(Q3) → 2.44(Q4) → 4.48('17.Q1) → 1.92(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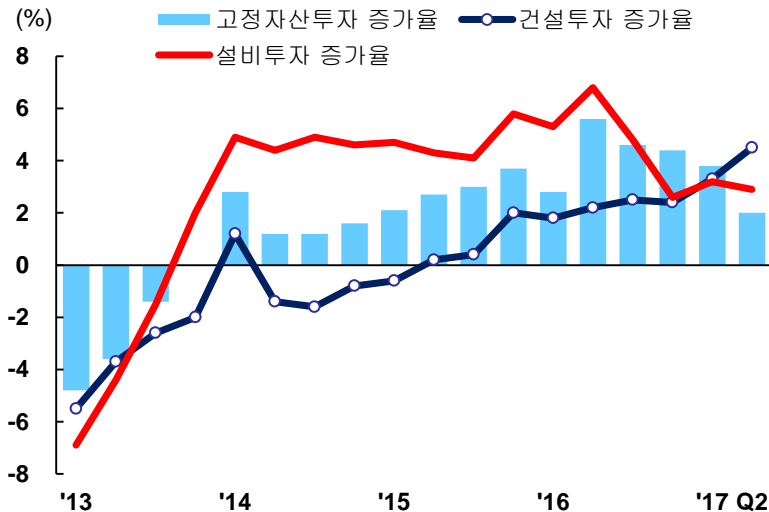
※ 독일 건설수주지수(2010=100) : 140.4('14) → 152.4('15) → 155.6('16) → 205.2('17.상)

### ✓ (전망) 기업이익 증가 지속, 경기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증가세 유지

-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낮은 모기지금리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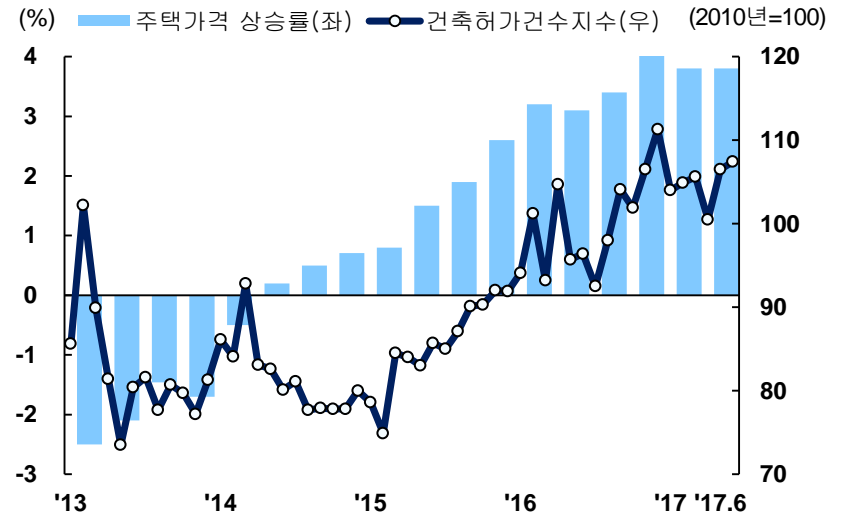
※ 모기지금리(10년 만기 기준, %) : 2.55('15) → 2.38('16.Q1) → 2.32(Q2) → 2.28(Q3) → 2.24(Q4) → 2.25('17.Q1) → 2.21(Q2) → 2.21(Q3)

### < 고정자산투자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 주택가격과 건축허가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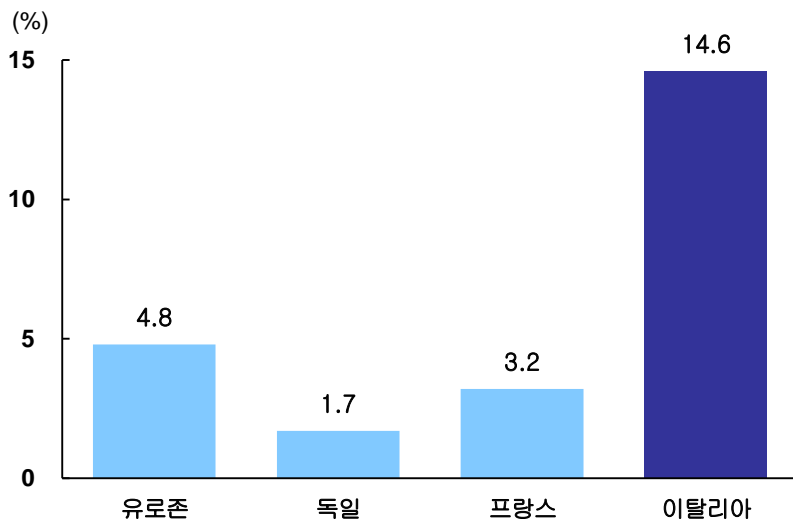
주 : 주택가격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1. 세계경제 [유로존]: 이슈

## ECB의 테이퍼링 본격화가 경기회복세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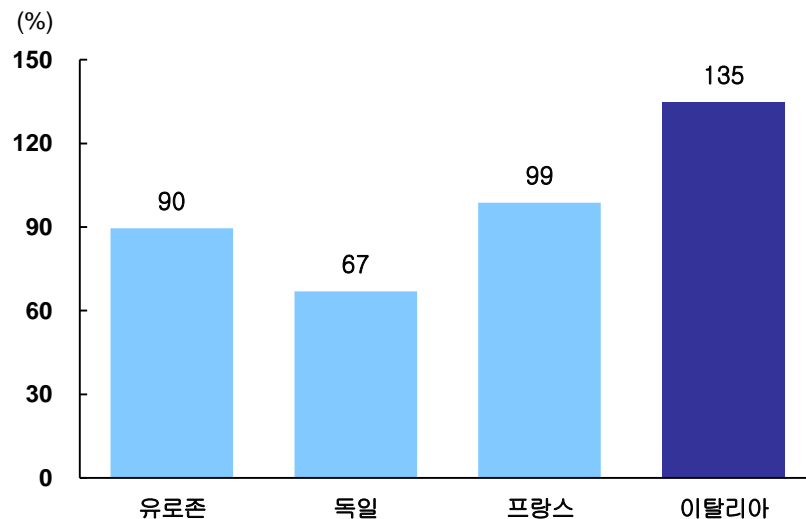
- ✓ '17년 하반기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시행의 필요성 고조
  - 경제회복세로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증가, 일부국(독일, 네덜란드 등) 매입채권 부족 가능성 등에 기인
- ✓ 테이퍼링 시행으로 경기회복세 저하 및 금융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 상존
  - 유로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低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문제발생 가능
  - 테이퍼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이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 및 정부부채 부담 확대우려를 재점화

< 은행권 NPL비율 >



주 : NPL비율은 총대출대비 NPL비중('17.Q1기준), 자료 : ECB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



주 : '17.Q1기준, 자료 : ECB

# 1. 세계경제 [일본]

##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은 유지되겠으나 경기회복세는 다소 둔화될 양상

✓ (현황) 소비가 확대되고 기업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이 경기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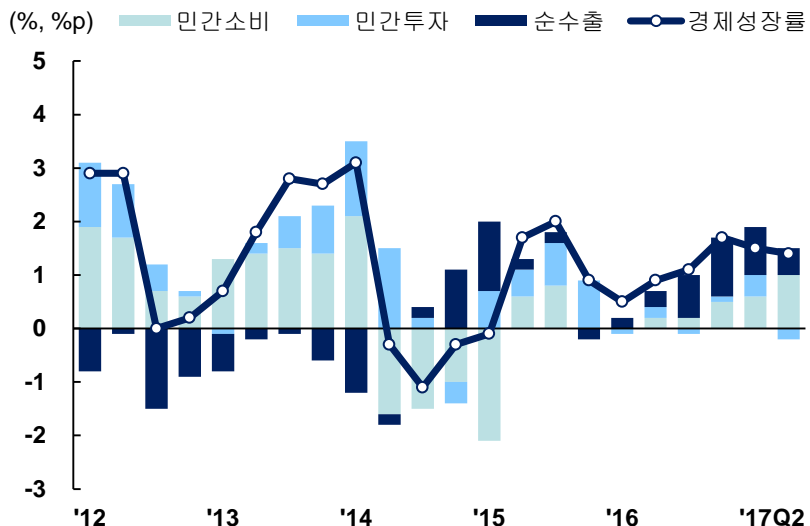
※ '17.Q2 부문별 기여도(%p) : 민간소비 1.0, 민간투자 △0.2, 정부지출 0.2, 순수출 0.5

- 수출 및 투자 등 기업경기 중심의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소비 증가가 가시화

✓ (전망) 소비 등 내수기반의 회복기조는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는 불가피

- 양호한 글로벌 경기흐름 및 내수회복에 따라 기업경기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 한편 보호무역주의 지속, 구인난 심화 등은 성장속도를 늦출 가능성

###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민간투자는 재고투자제외, 자료 : 내각부

### <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전망 시점
IMF	1.5	0.7	'17.10월
OECD	1.6	1.2	'17.9월
World Bank	1.5	1.0	'17.6월
IB평균	1.3	1.0	'17.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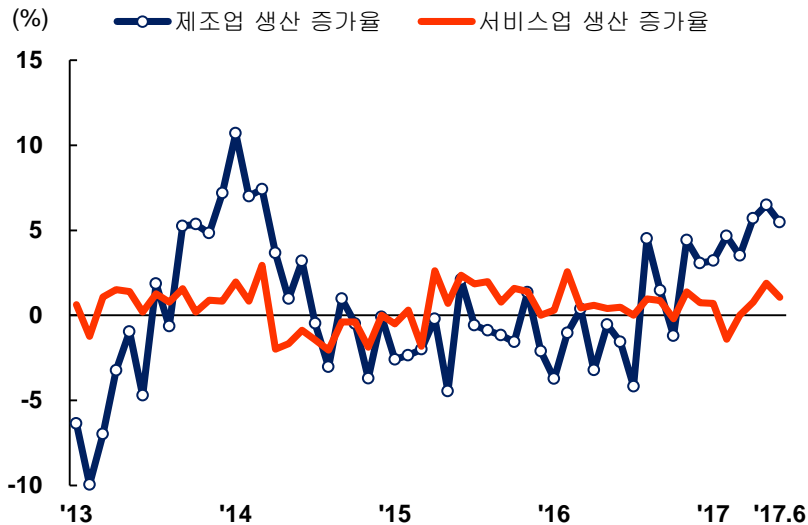
주 : 단위는 %, 자료 : 각 발표기관

# 1. 세계경제 [일본]: 생산

## 수출 및 내수가 다소 둔화되며 생산회복세는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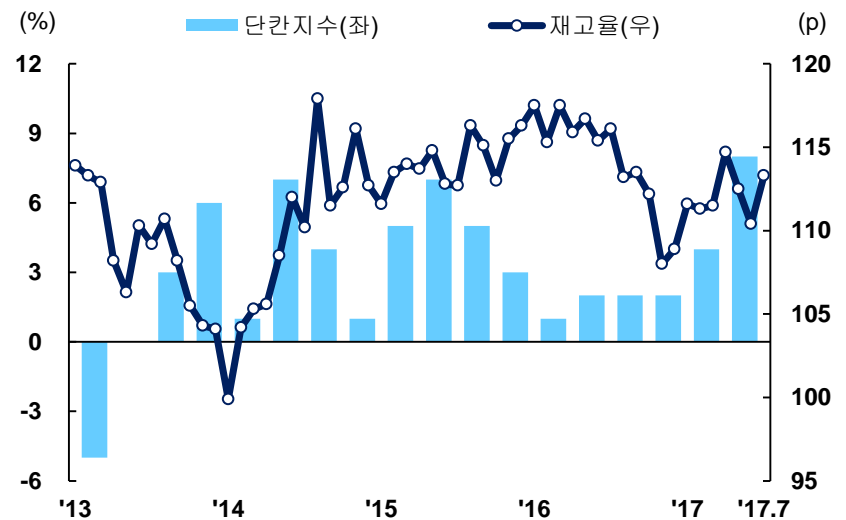
- ✓ **(현황) 양호한 대내외 여건에 따라 제조업 생산 및 출하가 확대**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비스업 대비 기계장비 등 제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
  - 중국·동남아시아 임금상승, 자국내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의 회귀가 가속화된 것도 원인
  - ※ 일본제품 역수입 매출 규모 : '17.Q1 2조6천억엔('15.Q3(최대치) 대비 13% 감소)
- ✓ **(전망)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그 속도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
  - 제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효과 소멸, 소기업들의 구인난 심화 등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산업생산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산업성

< 단칸지수 및 재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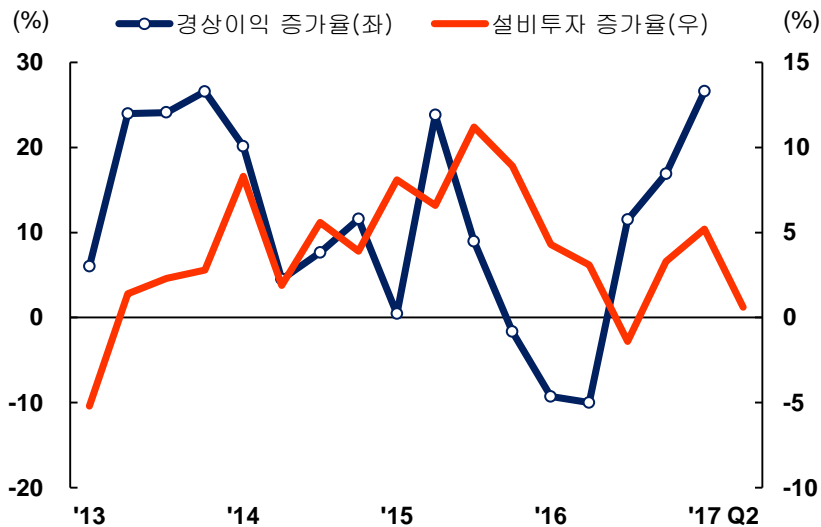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단칸지수는 전체기업 전망치, 재고율=재고/출하  
자료 : 산업성

# 1. 세계경제 [일본] : 투자

## 기업이익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건설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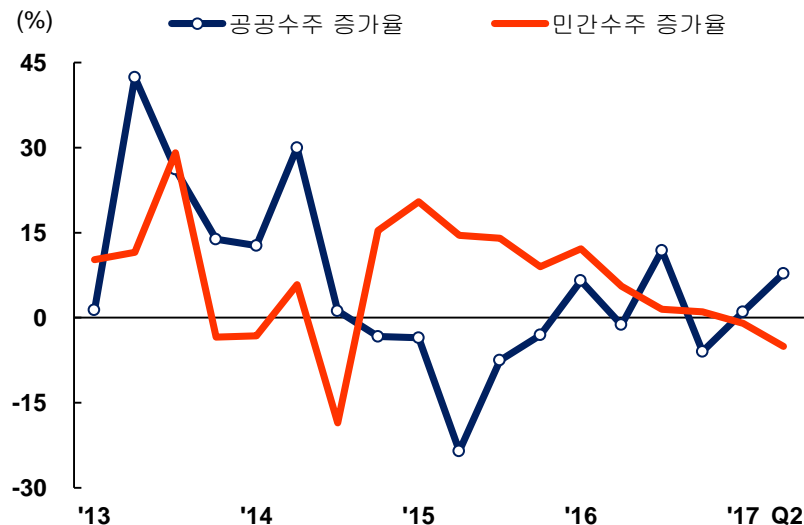
- ✓ (현황) 부진하던 설비투자는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다소 개선
  - 법인세 인하 및 큰 폭의 기업이익 증가, 설비가동률 상승 등 설비투자 유인이 충분
  - 건설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주택착공이 증가 ※ 신설주택착공(평균, 만호) : 90.9('15) → 96.7('16) → 98.8('17.상)
- ✓ (전망) 자동화 등의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역시 회복할 전망
  -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①(민간)부동산 가격 상승 ②(공공)'20년 올림픽 인프라 정비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경상이익과 설비투자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재무성

< 건설수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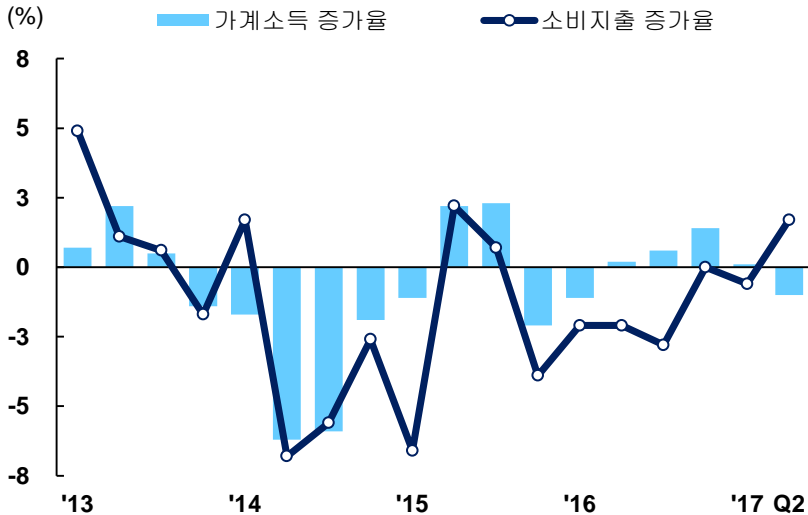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토교통성

# 1. 세계경제 [일본] : 소비

## 소비활성화 정책, 양호한 고용시장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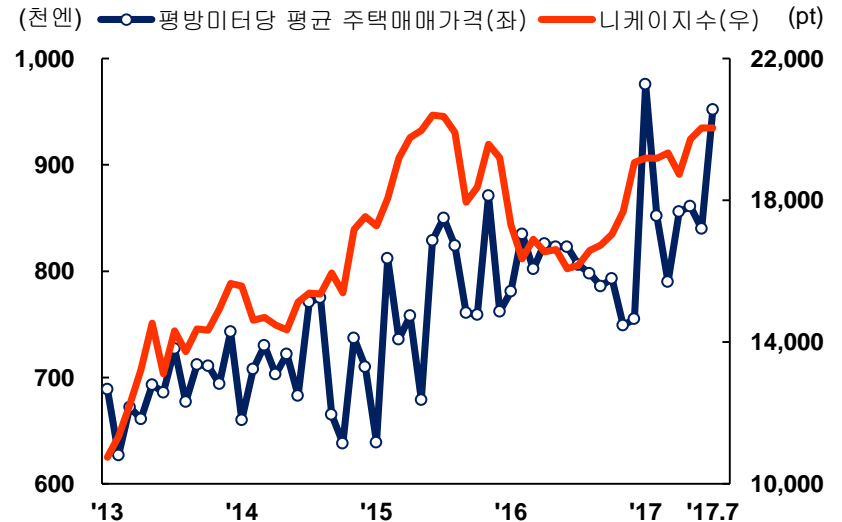
- ✓ (현황) 양호한 고용여건 및 자산효과 등으로 개선되던 소비가 최근 뚜렷한 상승세
  - 낮은 여성실업(7월, 2.5%)과 높은 유효 구인배율(1.52배), 자산증가 등으로 소비가 확대
  -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 1.0('17.1) → 0.2(2) → 2.1(3) → 3.2(4) → 2.1(5) → 2.1(6) → 1.9(7)
- ✓ (전망) 정책효과\* 본격화로 점진적인 소비증가가 기대되나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 임금인상 독려 및 저소득층 지원(인당 월 1.5만엔), 고용보험료 인하(0.6%), 연금납부기간 단축(10년) 등
  - 근무시간 감축,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 개선은 다소 미진
  - 다만, 소비세 인상(8%→10%)의 조기시행시 소비증가를 다소 제한할 가능성

<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



주 : 근로자세대의 실질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 총무성

< 주가 및 부동산 가격 >



자료 : Bloomberg

# 1. 세계경제 [일본]: 수출입

##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제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

### ✓ (현황) 글로벌 교역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증가세 지속

- 내수회복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확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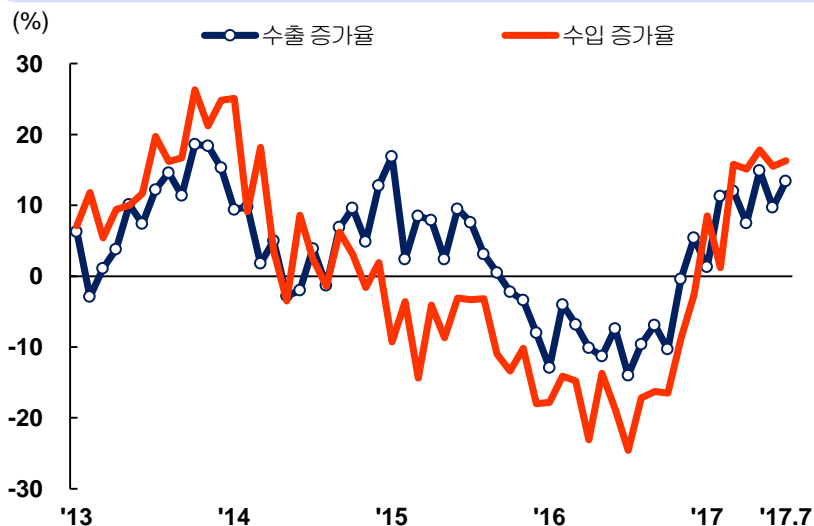
※ 무역수지(10억엔) : △108.7('17.1) → 81.3(2) → 61.5(3) → 48.2(4) → △20.3(5) → 44.0(6) → 41.9(7)

### ✓ (전망) 안정적 환율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소폭 둔화될 전망

\* (환율강세) 점진적 테이퍼링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 (약세) 미국 금리인상,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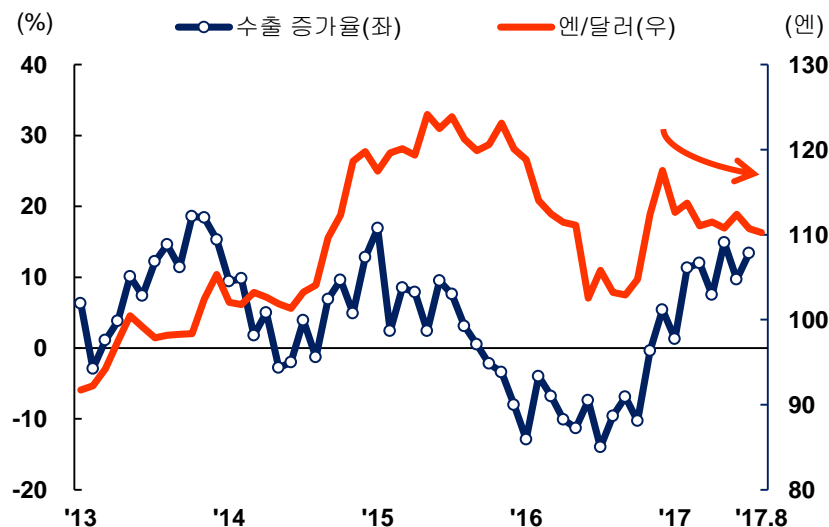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 '17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수준 유지 등 수출여건은 우호적

### < 수출입 >



주 : 전년동월대비, 엔화기준, 자료 : 재무성

### < 수출 및 엔/달러 환율 >



주 : 전년동월대비, 엔화기준, 자료 : 재무성, 한국은행

# 1. 세계경제 [신흥국] : ASEAN5

## 견고한 내수,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 (현황)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증가로 5%대 수준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수출은 원자재 가격상승, 전자부품 수요증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
  - 투자는 대규모 인프라투자, 국가신용도 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입 확대에 증가
- ※ ASEAN5 수출(전년동기대비, %) :  $\Delta 3.9('16.Q1) \rightarrow \Delta 3.6(Q2) \rightarrow 1.0(Q3) \rightarrow 7.2(Q4) \rightarrow 12.5('17.Q1) \rightarrow 13.4(Q2)$
- ✓ (전망) 글로벌 교역증가, 내수활성화 정책 시행 등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정부의 소비 촉진정책 시행으로 투자 및 소비의 지속 확대 전망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은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경제성장률 전망 >

	'16년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인도네시아	5.0	5.2	5.3
말레이시아	4.2	5.4	4.8
필리핀	6.9	6.6	6.7
태국	3.2	3.7	3.5
베트남	6.2	6.3	6.3
ASEAN5	4.9	5.2	5.2

주 : 단위는 %, 자료 : IMF

### < 인프라 프로젝트 및 소비 촉진정책 >

(단위 : 억달러)	내용	규모	시기
인도네시아	'18년 아시안게임 준비	308	'18년
필리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221	'18년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추진	453	'17~'21년
소비 촉진정책			
필리핀	• 소득세율 인하('17년 하반기 법안 통과 예정)		
말레이시아	•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정책 - 월소득 4,000링깃(약 1백만원) 이하 가구 대상 생활보조금 및 연료보조금(가스·교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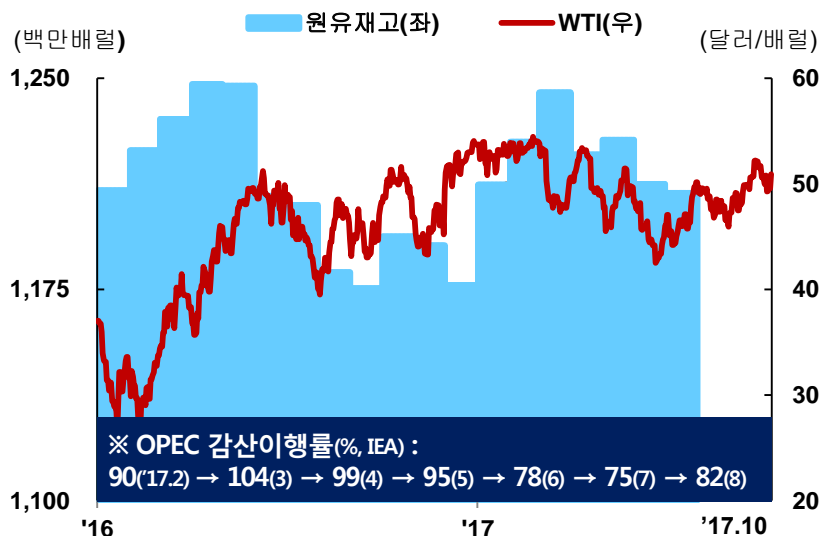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 1. 세계경제 [유가]

## 유가는 상승 및 하락 요인의 혼재로 50달러 초반에서 등락 전망

- ✓ (현황) 유가는 '16년 평균(배럴당 44달러)보다 상승한 배럴당 49달러 수준('17.1~10월 평균)
  - OPEC 감산합의, 글로벌 원유수요 증가세 지속, 달러 약세 등이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미국 및 감산면제국(리비아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감산이행률이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
    - ※ 생산량('16.상 → '17.상, 백만배럴/일) : 글로벌 96.4 → 96.8 OPEC 32.4 → 32.1 미국 8.9 → 9.1, 리비아 0.3 → 0.7
- ✓ (전망) 감산합의의 방향 등 공급측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견고한 수요로 소폭 상승
  - (상승요인) 경기개선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 주요 산유국 지정학리스크, 감산합의 연장 등
  - (하락요인) 미국 원유생산 증가(역대 최대생산 전망, EIA), 감산합의 결렬 및 감산이행률 하락 등

### < 원유재고 및 유가 >



주 : 원유재고는 OECD 상업용기준, 자료 : Bloomberg, IEA

### <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 >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전망 시점
IMF	50.3	50.2	'17.10월
World Bank	53.0	56.0	'17.6월
EIA	48.8	49.6	'17.9월
평균	51.0	51.9	-

주 : IMF 및 WB 전망치는 Brent, WTI, Dubai 유가의 단순평균, 단위는 배럴당 달러, 자료 : 각 발표기관

## 2. 국내경제

## 2. 국내경제

### 내년 국내경제는 성장세는 지속되겠지만 성장률은 둔화

- ✓ (현황) 글로벌 경기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에는 소폭 둔화되나 정부정책 효과가 성장세 보완
  -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 0.5('16.Q1) → 0.9(Q2) → 0.5(Q3) → 0.5(Q4) → 1.1('17.Q1) → 0.6(Q2)
- ✓ (전망)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 유지
  - \* G2 리스크(FTA, 보호무역, 통화정책), 심리 불안(북핵리스크),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경기 침체 등
  - 경제회복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 확충, 경제구조 체질 개선 등 미시정책 뒷받침 필요

#### < 부문별 경제성장률 전망 >

	'16년	'17년			'18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8	2.8	3.0	3.0	2.7	2.8	2.7
민간소비	2.5	2.1	2.5	2.3	2.5	2.6	2.6
설비투자	△2.3	15.9	12.3	14.1	5.4	4.9	5.1
건설투자	10.7	9.4	7.2	8.2	6.1	5.2	5.6
수출	△5.9	15.7	14.5	15.1	5.0	3.1	4.1
수입	△6.9	21.3	13.2	17.1	6.1	3.9	5.0

주 : 수출입은 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단위는 %, 자료 : IBK경제연구소, 한국은행, 관세청

## 2. 국내경제 [소비]

### 소비여건 개선, 가계소득 증대정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 (현황) 일자리 추경, 취업기대 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는 소폭 회복

-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상환 부담, 노후 불안 등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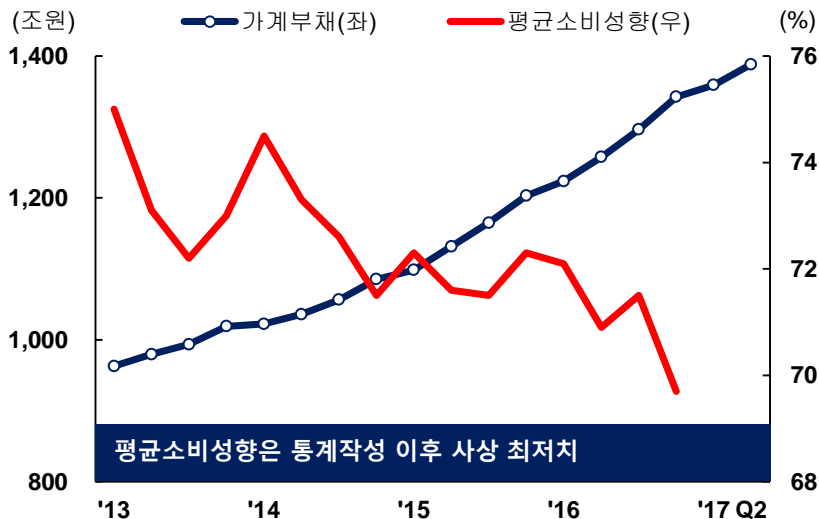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 4.1('15) → 4.3('16) → 4.1('17.1) → 0.5(2) → 1.2(3) → 2.6(4) → 1.4(5) → 1.1(6) → 3.5(7) → 0.8(8)

✓ (전망)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충 등 가계소득 증대정책\*으로 소비는 늘어날 전망

- 저축률 상승, 소득불균형 심화 등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다소 완화 예상

\* (노동)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18.1) / (복지) 기초연금 확대(18.4), 노인일자리 확대, 아동수당 도입(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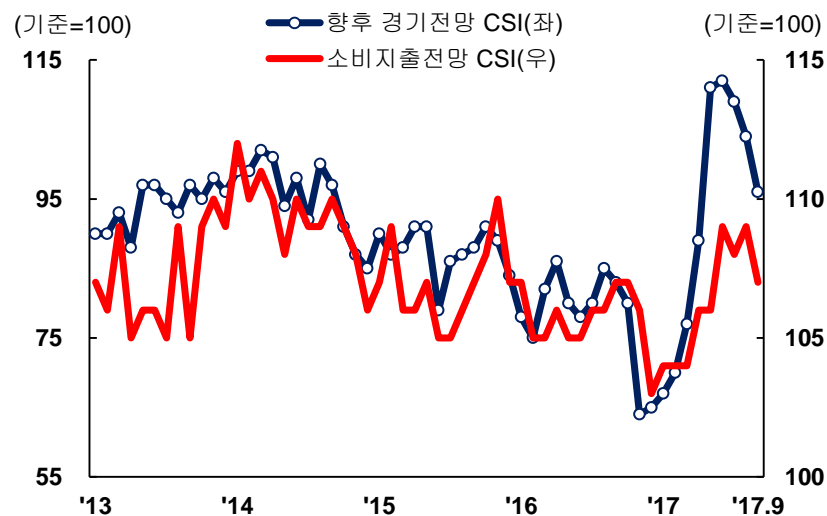
#### < 가계부채 및 평균소비성향 >



주 :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처분가능소득X1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 소비자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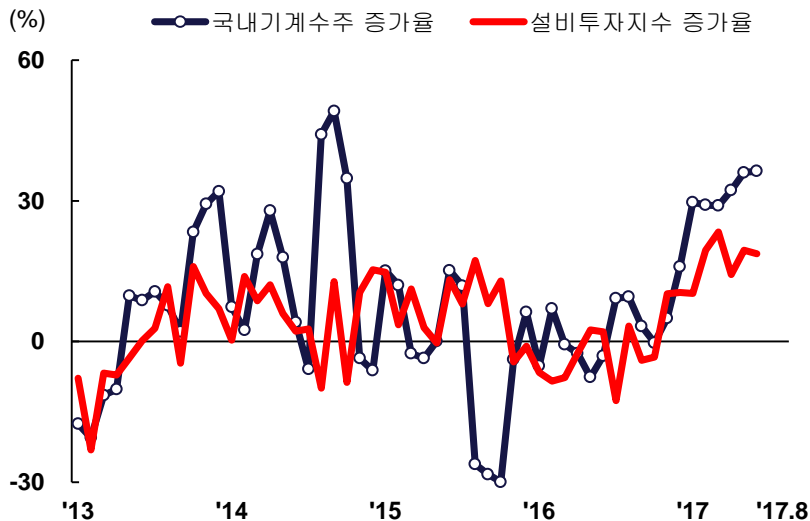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2. 국내경제 [설비투자]

### 일부산업 중심의 투자는 지속되나 전체적으로는 둔화 전망

- ✓ (현황) 반도체 슈퍼사이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큰 폭 증가세 시현
  - 낸드플래시, OLED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등에 힘입어 기계류 투자가 설비투자 회복 견인
  - 다만, 타업종으로 확대되지 않고 소수 대기업(삼성, LG, SK 등)에 이익이 몰리는 쓸림 현상은 심화
- ✓ (전망) IT산업 편중, 대기업제외 영업이익 정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
  - 주요 IT기업은 '18년에도 대규모 투자집행 계획(반도체: 삼성 Q1~2, SK Q1, Q3~4, OLED: 삼성 Q3~4, LG Q1, Q2~3)
  - 석유화학을 제외한 비IT부문은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유지·보수투자 위주의 소극적 투자행태 지속

#### < 국내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 >



주 : 전년동월대비, 선박제외, 불변기준,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 < 상장사 경영실적 >

		전체 (1,904개사)	10대 그룹 (91개사)	10대 그룹外 (1,813개사)
매출액	'16.6월	713.0	353.7	359.3
	'17.6월	764.4	384.9	379.5
	증가율	7.2	8.8	5.6
영업이익	'16.6월	49.3	22.9	26.4
	'17.6월	66.2	39.3	26.9
	증가율	34.1	72.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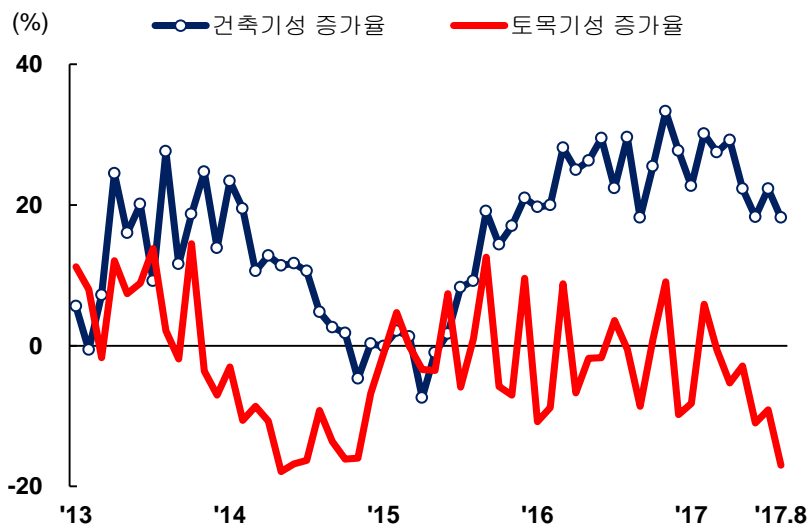
주 :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이며, 단위는 조원, %, 자료 : 한국거래소

## 2. 국내경제 [건설투자]

### 지속적인 SOC투자 축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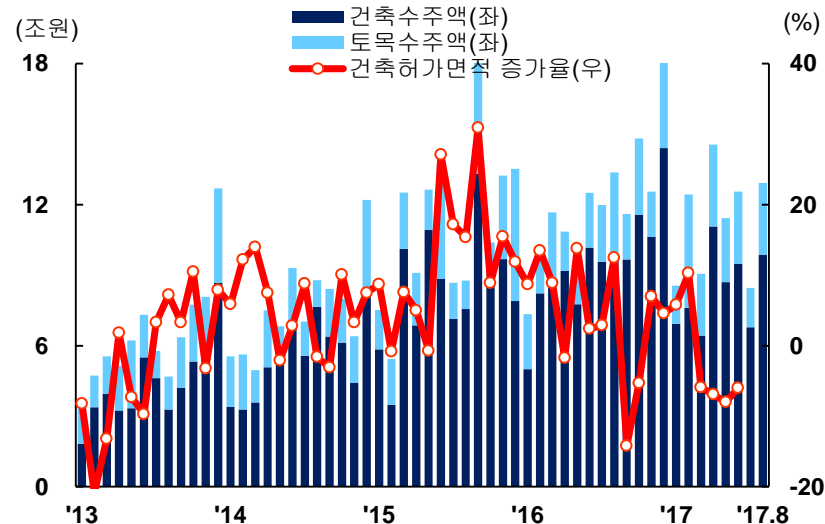
- ✓ **(현황) 기분양된 주거용 건물 위주로 건설투자는 양호한 증가세 지속**
  -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착공면적이 주거용 건물 건설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건축부문 증가세가 지속
    - ※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19.6('13) → 26.4('14) → 26.7('15) → 29.3('16) → 37.9('17<sup>(e)</sup>) → 43.5('18<sup>(e)</sup>)
- ✓ **(전망) 건설관련 선행지표 위축, 금리 인상, 규제 정책 등이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할 전망**
  - 발주 비중이 높은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규모 축소(23.7조원 '16년 → 22.1조원 '17년 → 17.7조원 '18년)로 부진
    - ※ 주택인허가(전년동기대비, %) : 41.7('15.12) → △9.1('16.12) → △16.1('17.1) ⇒ △16.4(3) ⇒ 1.5(5) → △25.4(6) → △18.3(7)
    - ※ 주택착공(전년동기대비, %) : 35.2('15.12) → 2.1('16.12) → △14.4('17.1) ⇒ △31.5(3) ⇒ △34.6(5) → △17.8(6) → △25.4(7)

#### < 건축 및 토목기성 >



주 : 전년동월대비, 불변기준, 자료 : 통계청

#### <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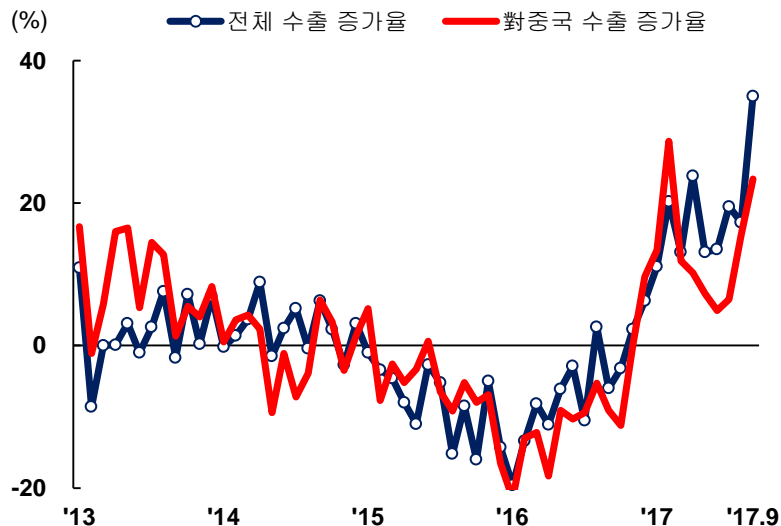
주 : 전년동월대비, 건설수주는 경상기준, 건축허가는 동수기준  
자료 : 통계청

## 2. 국내경제 [수출]

###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

- ✓ **(현황) IT업종 호조, 교역상대국(소비 및 투자 확대 등)의 수입수요 확대로 플러스로 전환**
  - 반도체(물량증가, 단가상승), 석유제품(단가상승), 기계류(신흥국수요 확대) 등이 수출증가세를 주도
  - ※ 글로벌 경기회복,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연간 수출이 10% 내외로 증가하며 교역액은 3년만에 1조달러 회복
- ✓ **(전망) 국제통상마찰, 북핵리스크,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세는 둔화**
  - 미연준 보유자산 축소에 따른 신흥국수요 둔화, 유가 상승폭 둔화 등도 부정적 요인
  -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제품군과 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유화 품목이 주도하는 증가세는 지속

#### < 수출 >



주 : 통관기준, 전년동월대비, 자료 : 관세청

#### < 對주요국 수출 >

	증가율		비중	
	'16년	'17년 (1~9월 누계)	'16년	'17년 (1~9월 누계)
전 체	△5.9	18.5	100.0	100.0
중 국	△9.3	13.3	25.1	23.6
ASEAN	△0.4	30.6	15.0	16.6
미 국	△4.8	5.3	13.4	12.1
E U	△3.1	23.0	9.4	9.7
일 본	△4.8	12.4	4.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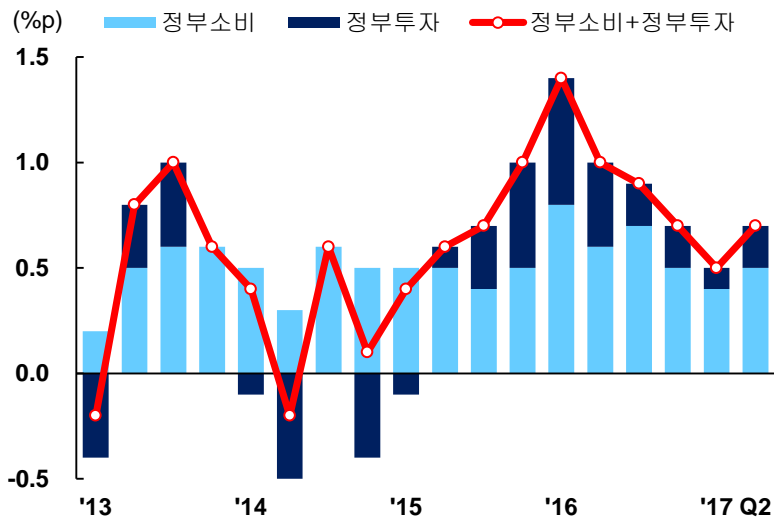
주 : 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단위는 %, 자료 : 관세청

## 2. 국내경제 [정부재정]

###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 (현황) 조기 재정집행(상반기, 59.0%)과 추경편성(11.2조원)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
  - 추경예산 집행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17.7월)
- ✓ (전망) '18년 예산안(7.1%)은 복지·일자리 등 인적 투자가 늘어 내수부양에는 긍정적
  -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 「일자리창출 → 소득기반 강화 → 소비증가 → 내수활성화」의 선순환구조
  - 다만, SOC·산업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되어 경제성장률을 상쇄할 가능성

#### < 정부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 < 정부 예산(안) >

	'17년(A)	'18년(B)	증감 (B-A)	증가율 (%)
전 체	400.5	429.0	28.4	7.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6.7	12.9
교육	57.4	64.1	6.7	11.7
문화·체육·관광	6.9	6.3	△0.6	△8.2
환경	6.9	6.8	△0.1	△2.0
R&D	19.5	19.6	0.1	0.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0.1	△0.7
SOC	22.1	17.7	△4.4	△20.0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2	0.1
기타	126.3	136.4	10.1	26.3

주 : 본예산기준, 기타는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행정 등, 단위는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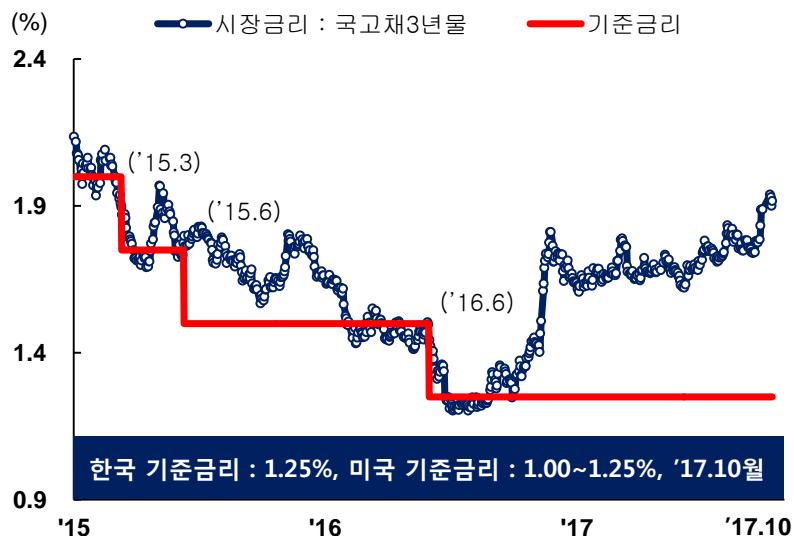
# 3. 금융시장

# 3. 금융시장 [금리]

## 딜레마에 빠진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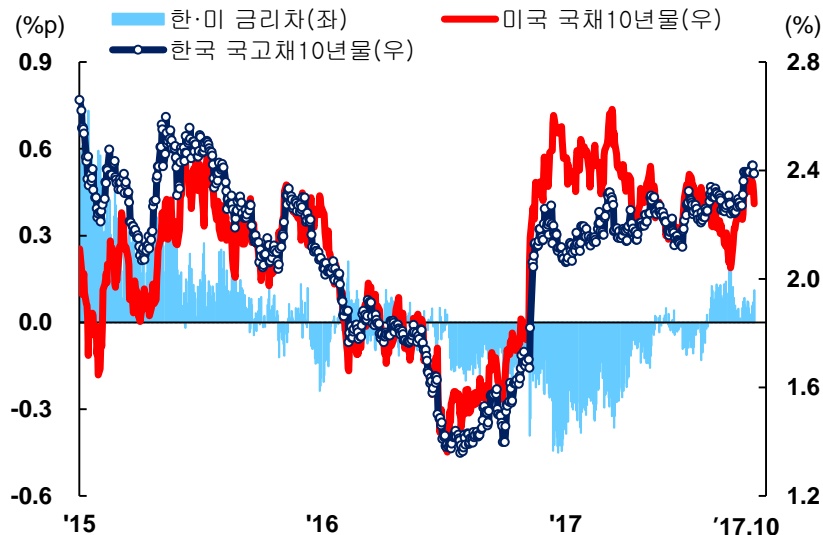
- ✓ (현황) 기준금리는 가계부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경기회복세 위축 우려 등으로 현수준 유지
  - '17.7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회복 지속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
- ✓ (전망) 시장에서는 '18년 상반기중 1회 인상을 예상하나 실제 금리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
  -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가계부채 경착륙, 소비개선 미약, 건설경기 침체, 수출둔화 등 경기회복세 위축 우려 등에 기인
  - 시장금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금리 동조화 현상 강화 등으로 상승압력 지속

### <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



자료 : 한국은행

### < 금리스프레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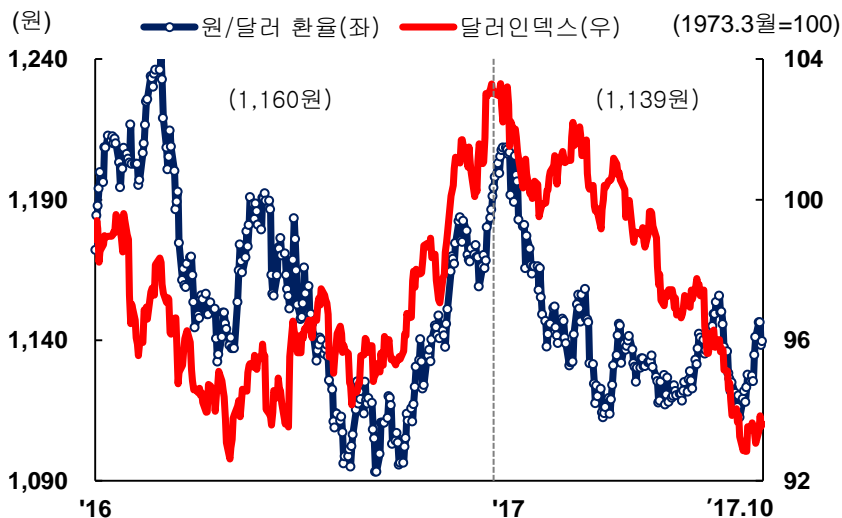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3. 금융시장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부각되어 변동성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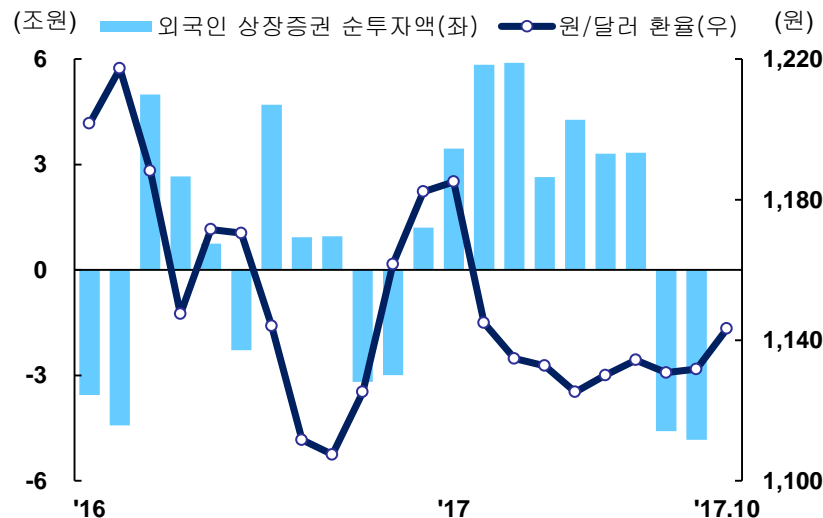
- ✓ (현황) 국내 경기회복세, 외화자금 유입증가('17.9월 누계, 19.3조원),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추세
  -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자산축소 개시, 차익실현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 등으로 제한적(※'17.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39원으로 '16년 1,160원보다 낮은 수준)
- ✓ (전망) 원/달러 환율은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예상
  - 북핵리스크, 미·중 통상마찰 등이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진다면 원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



주 : ( )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 '17년은 1~10월 평균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 외국인 국내 상장증권 순투자액 및 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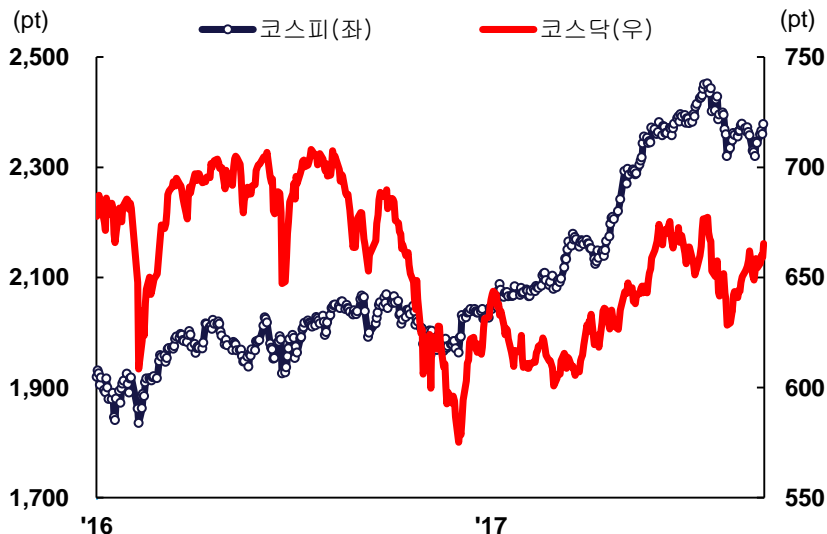
주 : 상장증권은 상장채권+상장주식, 환율은 월평균 환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3. 금융시장 [주가]

## KOSPI는 대형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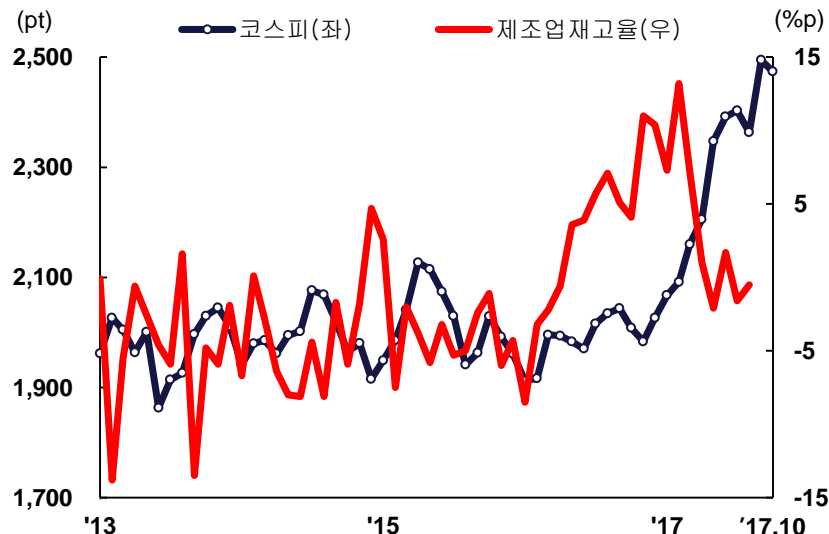
- ✓ (현황) KOSPI는 기업실적 호조, 풍부한 자금 유동성 등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17.10월 2,484pt)
  -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17년)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Korea Discount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배당확대의결권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요구하는 제도
- ✓ (전망) '18년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IT업종이 KOSPI를 주도, 종목별·산업별 격차확대 예상
  - 대기업중심의 기업이익 증가, 배당성향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상승기조를 이어가겠지만
  - 원화강세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실적 약화, 북핵리스크에 따른 외국자금 차익실현 등은 우려요인

< 코스피와 코스닥 >



자료 : 한국거래소

< 코스피와 제조업 재고율\* >



\* 기업이이익의 선행지표  
 자료 : 한국거래소, 통계청

## II.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경기
2. 중소기업 금융
3. 중소기업 정책

# 1. 중소기업 경기

# 1. 중소기업 경기 [생산]

## 중소기업 생산은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증가세 정체

### ✓ (현황) 내수 및 수출 회복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 및 출하 증가

-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화학·전자부품 관련 업종 호황이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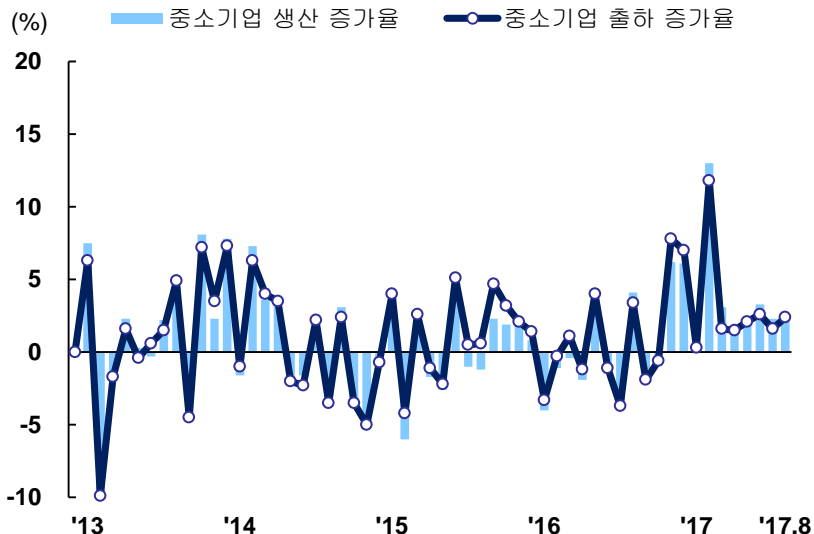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 94.8('17.Q1) → 106.8('17.Q2) → 109.6('17.Q3)

※ 업종별 생산SBHI('16.Q2→'17.Q2, p) : 증가(화학 6.2, 전자부품 2.6 등), 감소(1차 금속 △3.1, 의복 △6.5 등)

### ✓ (전망) 소비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 부진, 대외 리스크로 생산증가 제한

-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가계 소득 증대 정책 추진으로 소비여력 개선
- 다만, 자동차 부진,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한·미FTA 이슈 등 부정적 무역변수 상존

#### < 중소기업 생산 및 출하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 <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판매실적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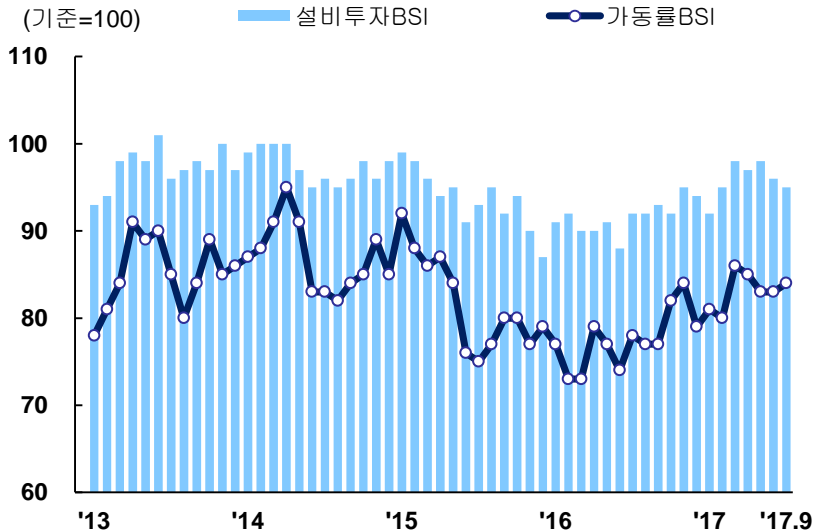
주 : BSI는 '악화<100<개선', 자료 : 한국은행

# 1. 중소기업 경기 [설비투자]

## 투자유인 부족과 국내 경기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는 진퇴양난(進退兩難)

- ✓ (현황) 생산증가에 따라 가동률은 소폭 증가했으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정체
  - 대기업 및 일부 업종(IT 및 석유화학)에 편중된 경기호황이 전체 중소기업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
- ✓ (전망) 대기업 설비투자 공제 축소, 미래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으로 설비투자 정체 지속
  - 대·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18년 예정)는 협력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가능성
    - ※ 대·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 예정(대 3 → 1%, 중견 5 → 3%)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미흡, 기존 사업 성장 정체 등으로 신규 투자 기회가 부족한 상황 지속

### <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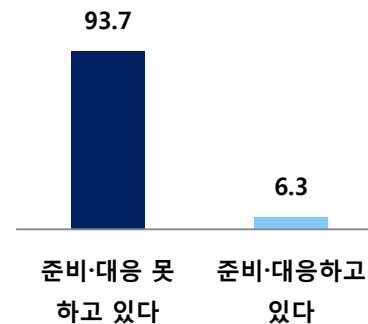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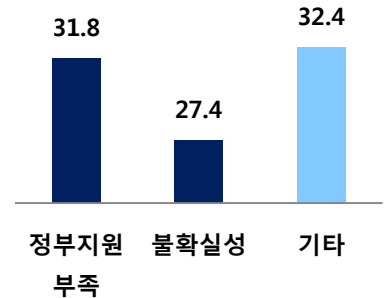
###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

####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도(%)

정부지원, 기술/트렌드 불확실성 등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미흡  
→ 미래성장동력 확보 미흡, 신규 투자 기회 부진 지속



####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진 원인(%)



주 : 불확실성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  
자료 :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 1. 중소기업 경기 [자금사정]

## 외부자금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채산성 부진으로 자금사정 개선은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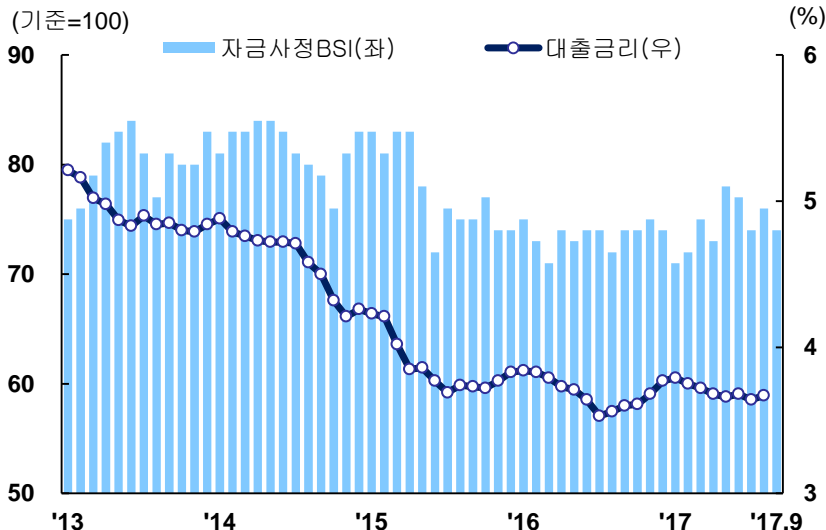
✓ (현황)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채산성 정체로 자금사정은 여전히 미흡

※ 중소기업 채산성 BSI(기준=100) : 83('12) → 84('13) → 83('14) → 82('15) → 80('16) → 80('17.1~9월)

✓ (전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약한 수익성 등으로 자금사정 개선은 지지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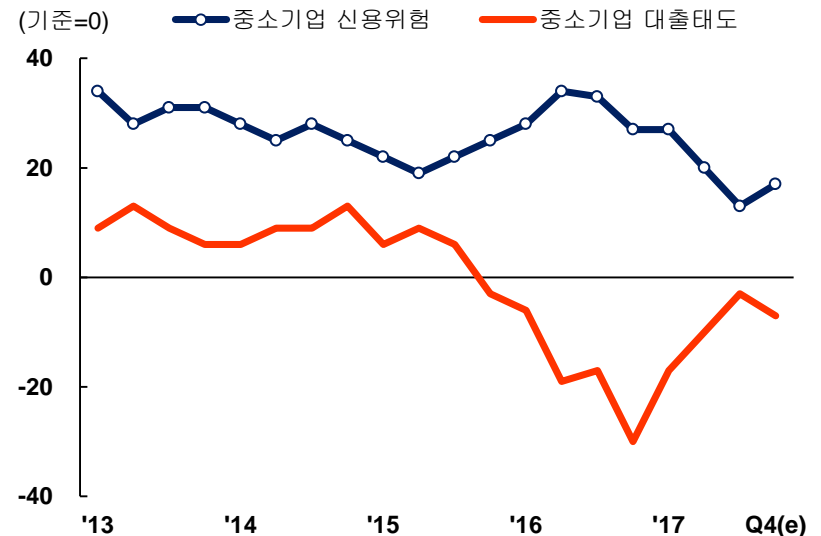
- 가계대출 억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은행 간 경쟁확대로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집중 - 특히, 영세·창업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 상승시 상환리스크 우려
- 영세업체 간 경쟁 심화는 채산성 부진으로 이어져 자금조달 여건 악화

### < 중소기업 자금사정BSI 및 대출금리 >



주 :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기준, 자료 : 한국은행

### < 중소기업 신용위험 및 대출태도 >



주 : 대출태도는 '강화<0<완화', 자료 : 한국은행

# 1. 중소기업 경기 [소상공인]

##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환경으로 인해 소상공인경기 소폭 회복

### ✓ (현황) 소상공인 간의 경쟁 심화로 경기개선 미흡

-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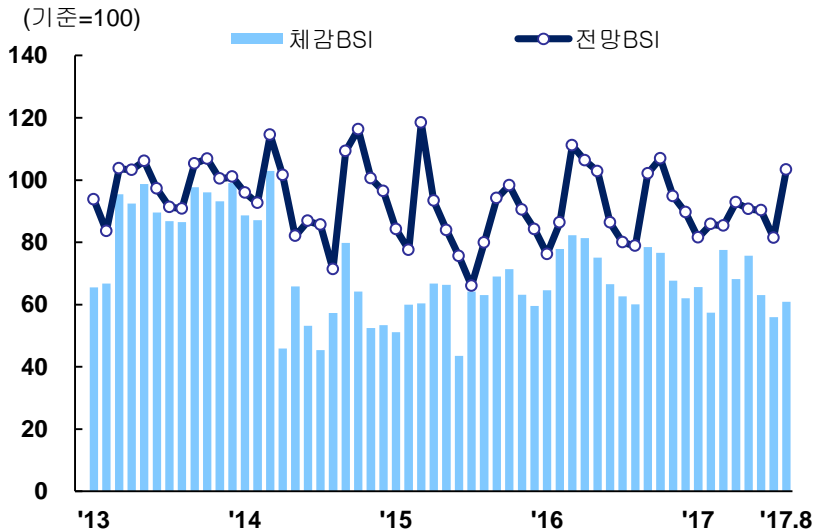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만명) : 537('16.Q1) → 561(Q2) → 568(Q3) → 563(Q4) → 554('17.Q1) → 567(Q2)

※ 소상공인 체감경기BSI(기준=100) : 89.0('13) → 66.3('14) → 61.5('15) → 71.3('16) → 60.9('17.8)

### ✓ (전망)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 및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경기는 소폭 개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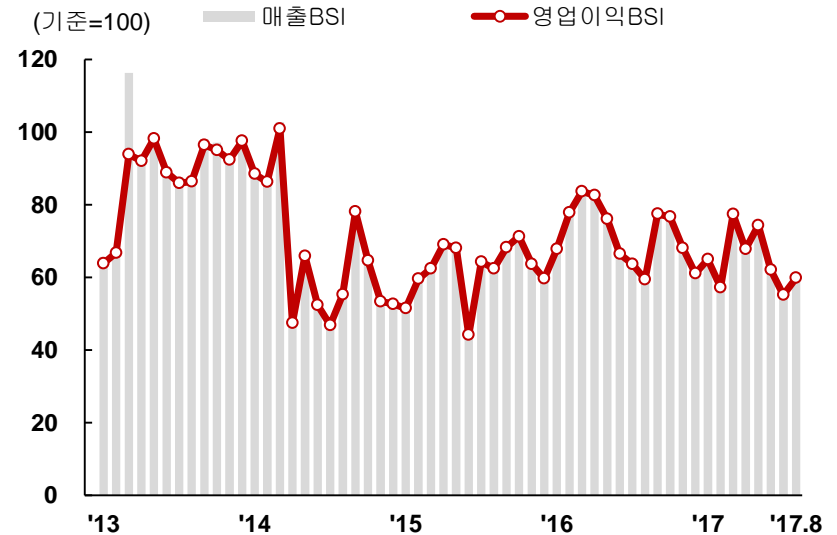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소득 증대 정책에 따른 소비증가 등 우호적 요인 증가
-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 보조금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

#### < 소상공인 체감 및 전망BSI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상공인 매출 및 영업이익BSI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 중소기업 경기 [이슈] :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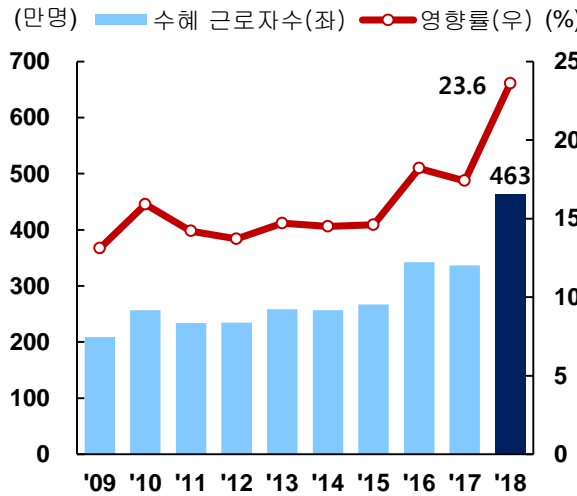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 **(현황)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추진** 中
  - 정책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18~20) 연평균 15.7% 인상이 필요한 상황
    - ※ 최저임금(원) : 5,580(15) → 6,030(16) → 6,470(17) → 7,530(18), '18년 인상률은 16.4%로 3개년(15~17) 평균 인상률 7.5%를 8.9%p 초과
- ✓ **(영향) 최저임금 상승은 내수경기 진작 등 긍정적 영향과 기업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상존**
  - '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463만명(영향률 23.6%)에게 영향을 주면서 인건비 부담 가중
  - 인건비 부담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며 소규모 영세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부담

###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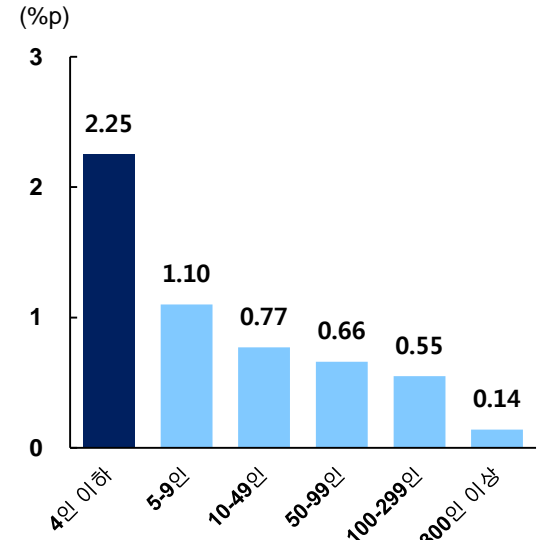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2017.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증가</li> <li>• 영세업체, 음식숙박업에 큰 부담</li> <li>•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li> </ul>
국회입법조사처 (2017.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서로 상쇄시키는 경향</li> <li>•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필요</li> </ul>
한국경제연구원 (201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비용 부담 가중</li> </ul>
더미래연구소 (201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인상은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영향</li> </ul>

### < 최저임금 인상 영향 >



주 :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 근로자수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 규모별 인건비 추가 부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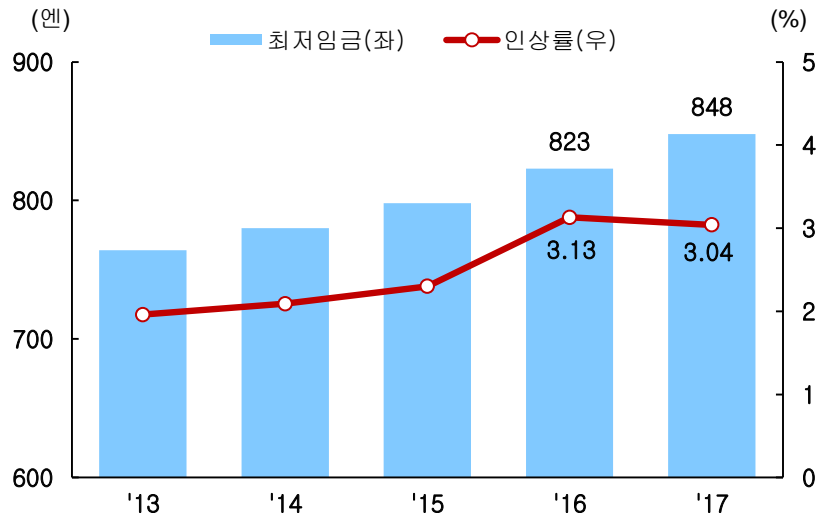
주 : '18년 최저임금 인상을 15%기준 산정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7.7월)

# 1. 중소기업 경기 [참고] : 일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응

## 일본은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 (현황) 아베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23년까지 최저임금(전국평균) 1천엔 추진 中
    - '17년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16년에 이어 3% 인상된 848엔으로 결정
    - 정책 목표인 전국평균 최저임금 1천엔 달성을 위해 향후 6년간 매년 3% 인상 추진 계획
  - ✓ (대책) 지역·산업별 경제력 격차를 반영한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상충격 완화
    - 중소기업 밀집 공업지역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업경쟁력 유지 노력
- ※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엔) : 도쿄도(958), 야마구치현(777), 오이타현(737), 구마모토현(737)

### < 일본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 >



주 : 최저임금 매년 10월 개정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 일본 공업지대별 최저임금 현황 >

공업지역	주요업종	도·부·현별 최저임금(엔)
게이한공업지역	제철, 반도체, 조선, 화학	도쿄도(958) 가나가와현(956) 사이타마현(871) 지바현(868)
한신공업지역	제철, 반도체, 섬유, 조선, 화학	오사카부(909) 효고현(844)
기타큐슈공업지역	반도체, 제철, 자동차	후쿠오카현(798) 야마구치현(777) 오이타현(737)
야쓰시로공업지역	제지	구마모토현(737)

주: 박스 안은 중소기업 밀집 공업지역, '17.10월부터 적용기준  
 자료: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신케이신문 등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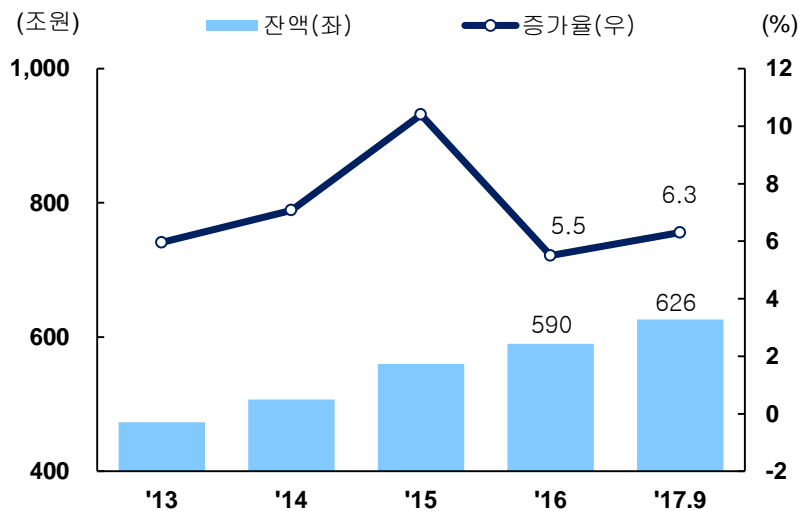
## 2. 중소기업 금융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현황] : 총괄

2017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순증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35조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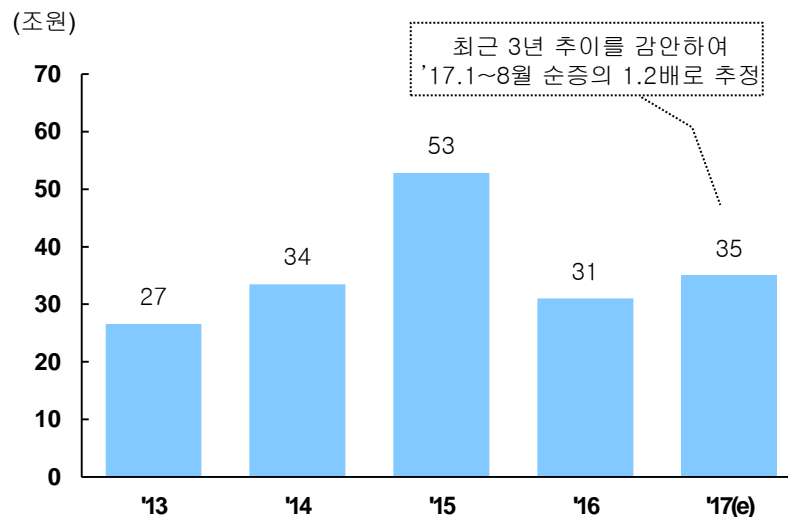
- ✓ '17.9월말 현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말대비 35.3조원 증가한 626조원
  - '17.1~9월 동안 대출순증은 전년동기(29.0조원)대비 21.7% 증가
- ✓ 최근 3년간 추이를 감안하면 '17년 대출순증은 35조원 예상
  - 연간 순증은 1~8월 순증의 1.2배 수준
  - ※ '17.9월말이 공휴일인 점(결제성대출 상환 익월 이연)을 감안하여 8월까지 대출순증(29.4조원)으로 추정
  - ※ 新정부 출범(5月) 및 추경 집행(11조원)의 상방 특이요인이 있어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 중소기업 대출잔액 >



주 : 원화대출금 연말기준, 전년말대비, 자료 : 한국은행

### < 중소기업 대출순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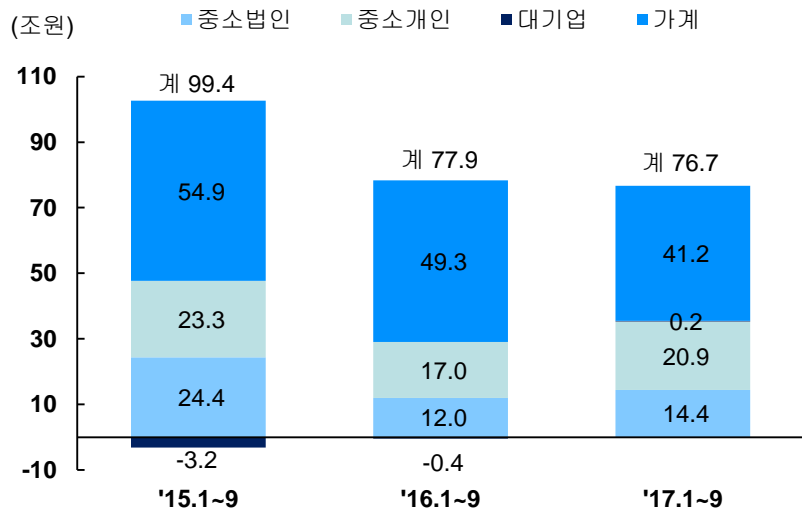
주 : 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IBK경제연구소, 한국은행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현황] : 금융기관

### 규제 및 경기영향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영업 강화 추세 속 비은행권까지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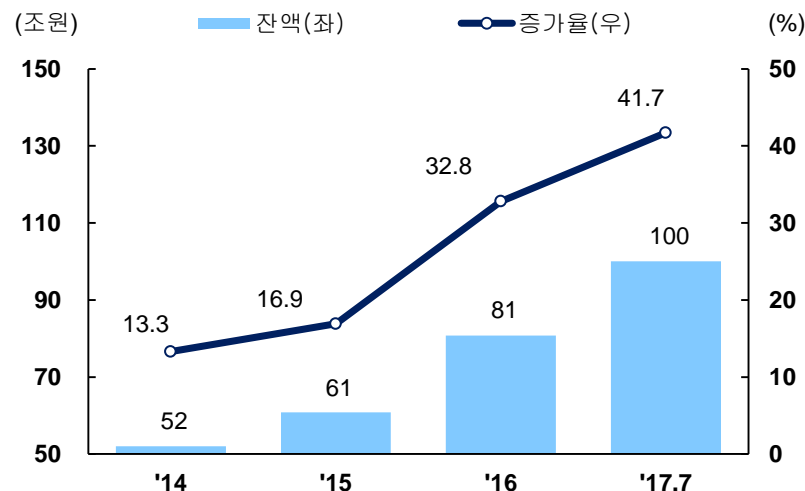
- ✓ (은행)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기업의 성격이 혼재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 '17.1~9월 동안 중소기업대출순증은 20.9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순증의 59.2% 점유
    - ※ 연도별 중소기업대출순증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1~9월, %) : 48.9('15) → 58.6('16) → 59.2('17)
  -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가속화로 중소기업대출증가에는 보수적
    - ※ '17.상 기업활력법을 통한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등 사업재편 기업수는 25개로 '16.하(15개)대비 확대
- ✓ (비은행) '17.7월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권 중소기업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41.7% 증가

< 차주별 은행대출순증 >



주 : 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비은행권 중소기업대출잔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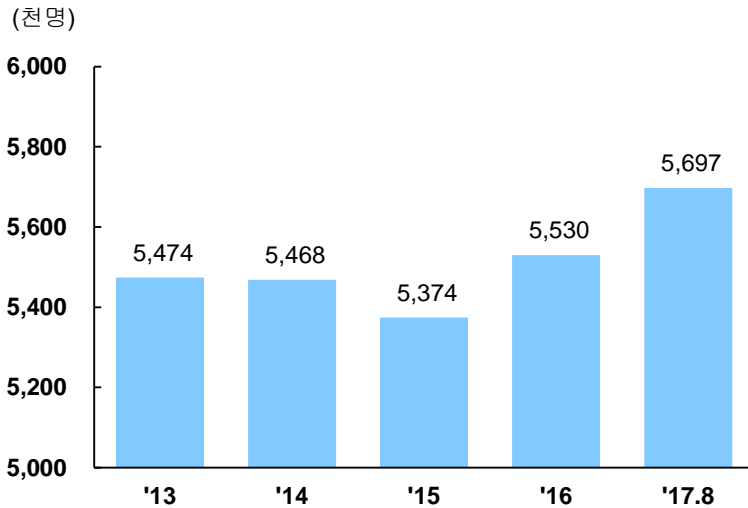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현황] : 기업

### 창업확대는 대출수요를 촉진하나, 산업별 구조조정 문제는 대출상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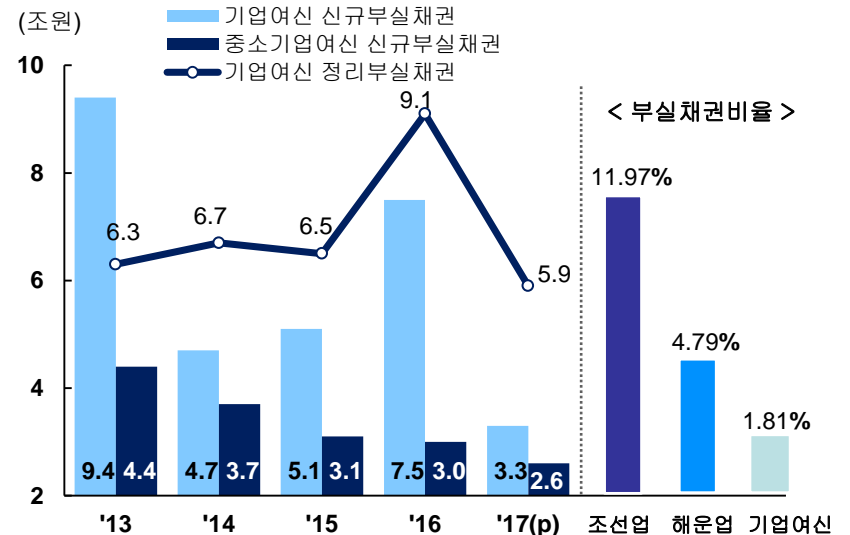
- ✓ 양적으로는 신설 자영업자 및 법인수가 확대되고 있어 대출수요 증가압력으로 작용
  - 감소하던 자영업자수가 '16년들어 반등하였고, 신설법인수도 '17년 상반기 49,424개로 역대 최대치
  - ※ 신설법인수('17.상, 개) : 37,913('13) → 41,485('14) → 46,418('15) → 48,263('16) → 49,424('17)
- ✓ 다만, 신설법인이 영세 자영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중후장대형 업종의 부실도 여전히 심각
  -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 비중은 81.3%('14년기준)
  - 타산업 파급효과가 큰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11.97%, 4.79%로 매우 높은 수준

#### < 자영업자수 >



주 :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근로자수  
자료 : 통계청

#### < 기업여신 부실채권 >



주 : 각 연도별 Q2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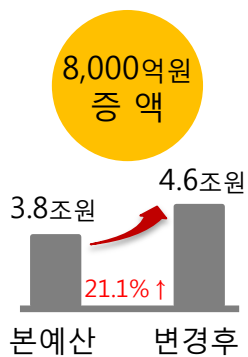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현황] : 정부

### 중소기업 정책의 지원방향이 영세·창업기업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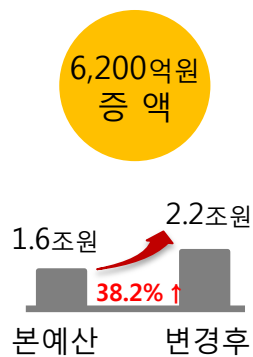
- ✓ (영세·창업)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관련 정책자금을 증액하고 보증지원 확대
  - (융자) 창업기업(0.4조원), 시설투자기업(0.2조원), 자금애로기업(0.2조원), 소상공인(0.62조원) 각각 증액
  - (보증) 신·기보 출연금을 증액(2,049억원)하여 보증공급을 1.5조원 늘리고 연대보증면제 확대에 활용
- ✓ (성숙) 성숙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는 민간자금 수요를 확대
  - 향후 가업상속지원제도의 공제요건이 강화되고, 성숙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축소될 전망

#### < 中企 정책자금(융자·보증) 예산규모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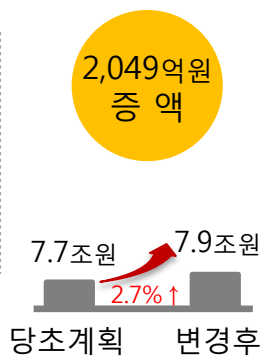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신·기보 기금운용



자료 :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 < 가업상속지원제도 공제요건 강화 >

##### 제도개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

##### 개정내용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일부 늘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영위기간 요건강화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200억원	10년 이상
300억원	15년 → 20년 이상
500억원	20년 → 30년 이상

##### 중견기업에 대한 요건강화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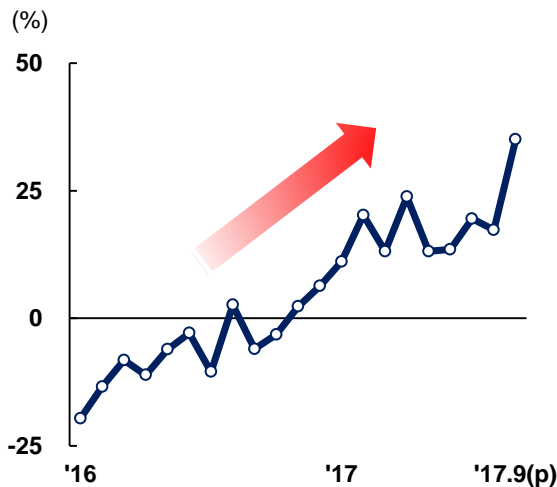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17년 세법개정안)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전망]: 환경

###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중기대출 공급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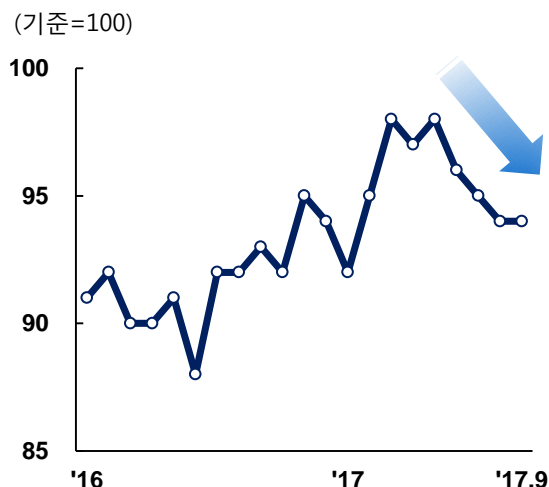
- ✓ 수출은 지속 개선 중이나, 중소기업경기 개선 미흡 등 다소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전망
  - 美 정책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中企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
  - ※ 설비투자는 비가역적이므로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포기하거나 연기(Stockhammer, 2010)
- ✓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 수요가 억제되며 중기대출 풍선효과 예상
  -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가 본격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
  - 은행비은행권 모두 중소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 대출도 다소 증가할 가능성

#### < 전체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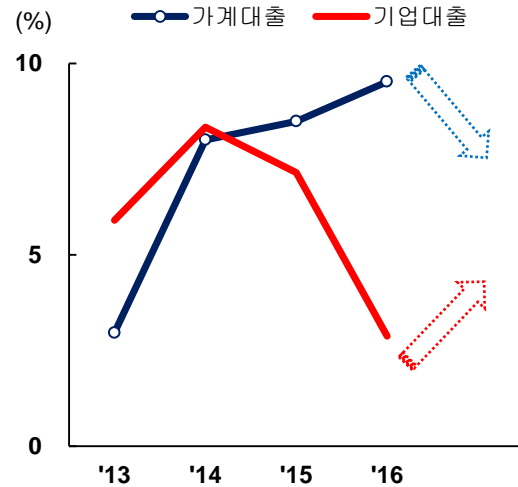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관세청

#### < 중소기업 설비투자 >



주 : 중소기업 설비투자BSI, 자료 : 한국은행

#### < 예금은행 고객별 대출증가율 >



주 : 원화대출금기준, 자료 : 한국은행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전망] : 총괄

### 중소개인기업과 기술형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 부동산 규제 강화로 기업대출에 풍선효과가 예상되나 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계감은 상존
    - 조선업 등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며 최근 대기업 부실 경험으로 거액 기업여신 확대는 부담
  - ✓ 담보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기술형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확대 기대
    - 불확실한 사업성 기반의 중소기업대출보다는 담보 기반의 중소기업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 정부는 '19년까지 기술금융 100조원 공급을 목표로 기술형 기업 자금지원을 지속 강화할 예정
- ※ 기술금융 대출실적('16년) : 누계 공급 58.4조원, 연중 공급 25.8조원(목표 20.0조원)

#### < 고객별 대출관련 주요 정보 >

구분	담보비중	연체율	대출금리
대기업	28.8	0.51	3.4
중소법인	60.2	1.05	4.3
중소개인	77.9	0.43	4.5

주 : '16.Q3 국내은행 기준(다만, 대출금리는 '16.Q2 5개 은행 기준(IBK, 신한, KB, KEB하나, Woori)),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 기술금융 평가기준 개선 및 평가 일원화 >

	현행	개선
평가기준 개선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기술금융 지원 실적(누적)</li> <li>• 우수 기술기업 평가</li> <li>* 기술등급 T4 이상 기업 지원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반기 실적 평가</li> <li>•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 세분화 및 평가 확대</li> <li>* ①저신용 기술기업 ②고성장 기업 ③미래신성장 업종</li> </ul>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주요 내용	(현행) 기술평가등급과 신용등급 이원화 → (개선) 통합된 "기술신용등급" 산출
	추진 일정	'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 시범 운영하고 '20년부터 본격 실시

자료 : 금융위원회

## 2. 중소기업 금융 - 투자 [현황] : 총괄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실적이 쏠 채널에서 확대

-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의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낮지만 가파른 속도로 증가
  - '17년 상반기 중소기업은 주요 직접금융 채널을 통해 2.1조원\* 조달(전년동기대비 1,765억원(9.1%) 증가)
  -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토지매입후 임대주택리츠 임대운영)의 회사채 발행 3,200억원은 거액 특이건으로 제외
- ✓ 기존에 비중이 낮았던 채널들에서도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
  - 창업초기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엔젤투자과 크라우드펀딩이 전년동기대비 57.0%, 65.2% 증가('17.상)
  - 중소기업 전용 상장시장인 코넥스를 통한 자금 조달도 전년동기대비 58.8% 증가('17.상)

#### < 직접금융의 주요 채널별 중소기업 자금 조달 현황 ('16년 상반기 vs '17년 상반기) >

구 분	성장 단계	'16.상	'17.상	증가액	증가율
코스피·코스닥 공모	성숙 ↑↓ 창업	7,991	8,709	718	9.0
회사채		900	1,300	400	44.4
코넥스 공모 및 사모		651	1,034	383	58.8
VC 투자		9,750	9,926	176	1.8
엔젤(개인투자조합)		79	124	45	57.0
크라우드펀딩		66	109	43	65.2
계	-	19,437	21,202	1,76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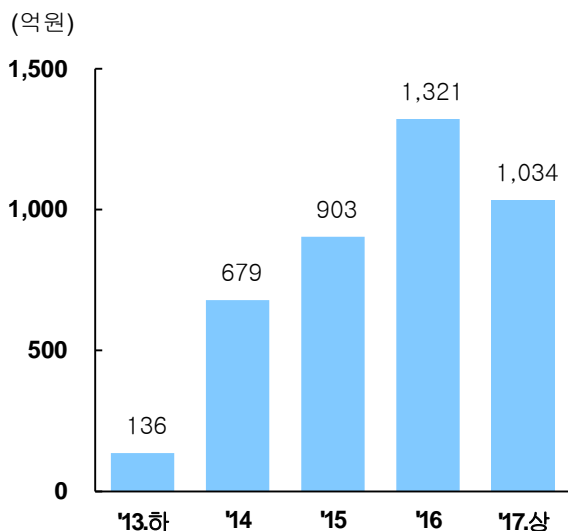
주 : 회사채는 공모 발행액('17.상 실적은 거액 특이사항 3,200억원제외), VC는 신규투자액 기준, 다만 VC 투자와 주식·회사채 간 일부 중복 가능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거래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예탁결제원

## 2. 중소기업 금융 - 투자 [현황]: 주식

###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개선이 지속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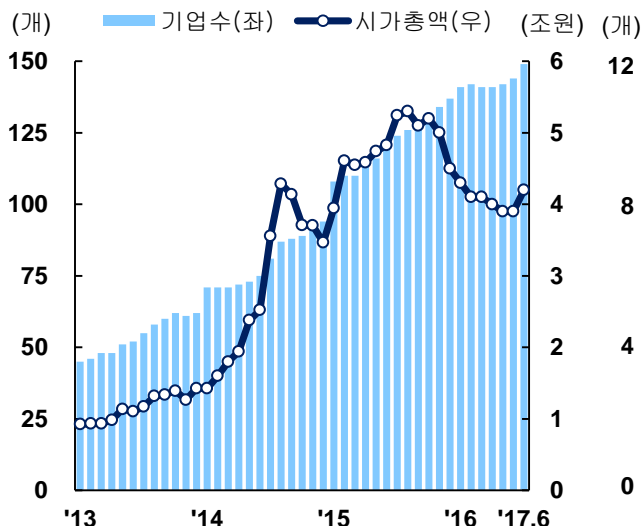
- ✓ 중소기업 전용 상장시장인 코넥스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크게 확대
  - (코넥스) '17년 상반기 1,034억원의 자금을 조달, 전년동기(651억원)대비 58.8% 증가(383억원)
  - (코스피·코스닥) 동기간 8,709억원의 자금을 조달, 전년동기(7,991억원)대비 9.0% 증가(718억원)
- ✓ 다만,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은 여전히 미흡하며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등도 크게 둔화
  - 코넥스를 통한 자금 조달 실적 중 공모를 통한 금액은 39억원(1건)으로, 3.8%에 불과
  - '17.1~8월 동안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기업은 2개로, 전년동기(5개)대비 감소

#### < 코넥스를 통한 자금조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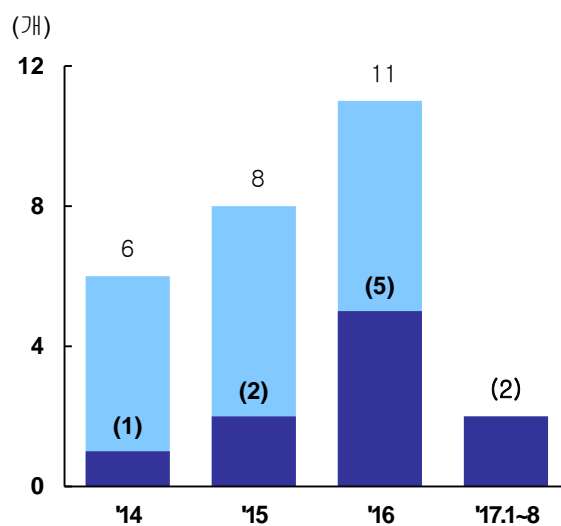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 < 코넥스 시장 규모 >



자료 : 한국거래소

####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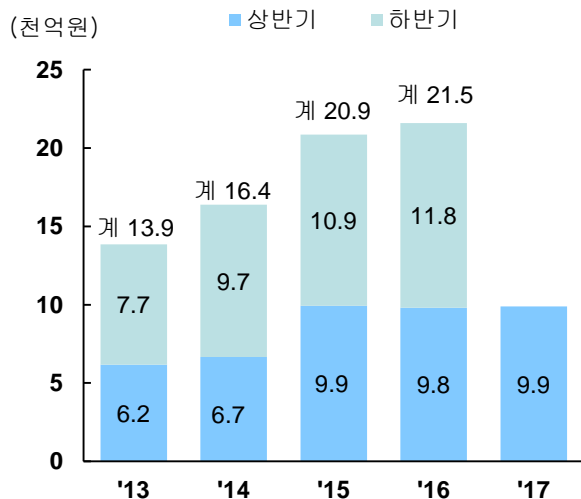
주 : 괄호의 숫자는 각 연도별 1~8월 실적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 2. 중소기업 금융 - 투자 [현황] : VC

### 창업초기기업을 중심으로 VC 신규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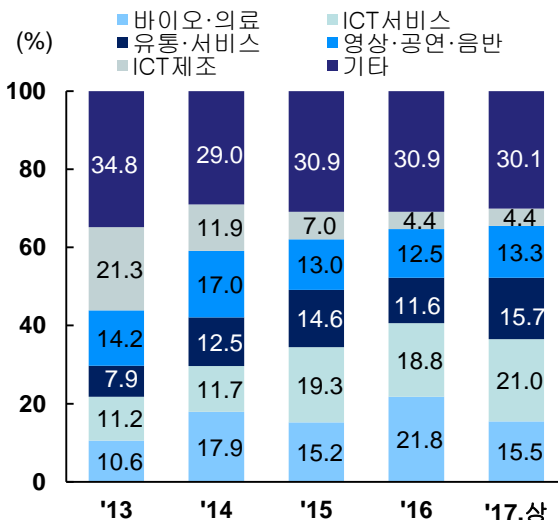
- ✓ VC 신규투자 기업수는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은 증가하여 기업당 투자규모 확대
  - '17년 상반기 VC 신규투자 기업수는 576개사로, 전년동기(599개사)대비 3.8% 감소
  - '17년 상반기 VC 신규투자 금액은 9,926억원으로, 전년동기(9,750억원)대비 1.8% 증가
- ✓ 업종별로는 ICT서비스업 영위기업, 업력별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ICT서비스 투자비중이 전년대비 확대(18.8→21.0%)되며, 바이오·의료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년대비 확대(36.8→37.3%)된 반면, 7년 초과 기업은 축소

< 연도별 VC 신규투자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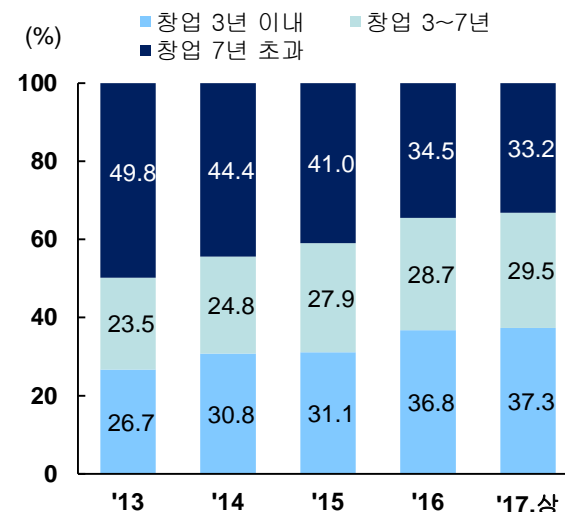
주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VC의 투자실적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업종별 VC 신규투자비중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업력별 VC 신규투자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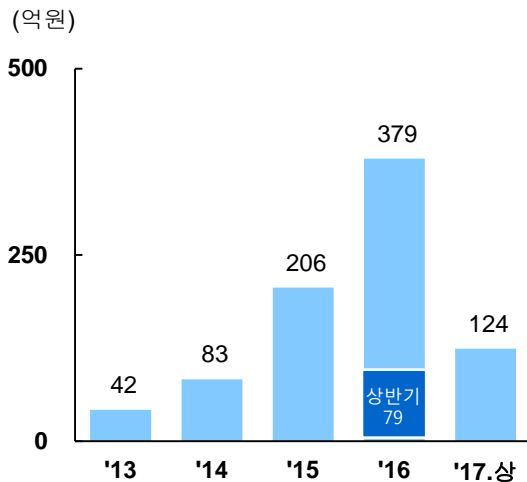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2. 중소기업 금융 - 투자 [현황] : 엔젤투자 및 크라우드펀딩

### 절대적인 자금 조달 규모는 미미하나, 성장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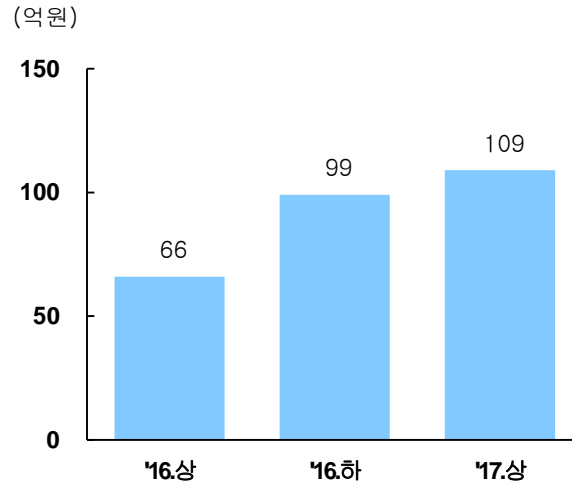
- ✓ (엔젤투자)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엔젤시장이 급격히 성장
  - '17년 상반기 엔젤(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은 124억원으로, 전년동기(79억원)대비 57.0% 증가
  - ※ 엔젤투자자(명) : 1,129('14)→2,498('15)→3,984('16), 전문엔젤투자자(명) : 11('14)→25('15)→57('16)→93('17.상)
- ✓ (크라우드펀딩) 창업 3년 미만 기업 중심으로 시장 확대
  - '17년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조달액은 109억원으로, 전년동기(66억원)대비 65.2% 성장
  -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조달액이 65억원으로 59.0% 점유
  - ※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中(현재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주소 소개 및 링크 제공만 가능)

#### < 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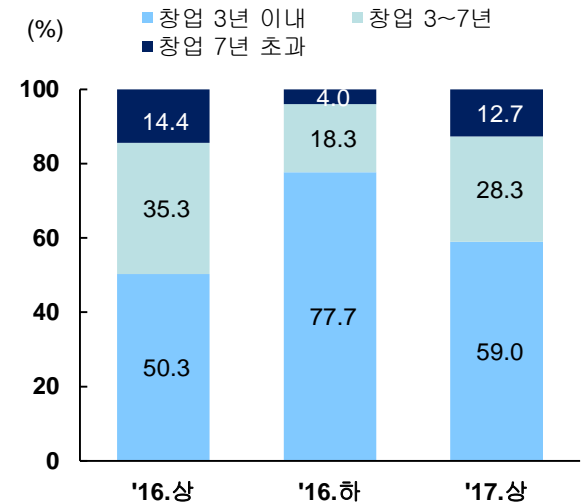
주 : 개인투자조합 실적에 한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 업력별 크라우드펀딩 비중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2. 중소기업 금융 - 투자 [전망]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조가 보다 강화되면서 中企 직접금융 시장도 확대

- ✓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모태펀드 추경 예산 8,000억원 편성
  - '17년 하반기 모태펀드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
- ✓ 벤처투자 관련 법안 효율화 및 펀드 확대 정책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
  - 벤처투자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활성화하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18년 목표)
  - \* 現 벤처투자 관련 법안인 벤처기업 특별법(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기부)을 통합
  - '22년까지 벤처펀드 신규 결성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16년 3조 1,998억원)

#### < '17년 하반기 모태펀드 출자사업 분야별 개요 >

펀드구분	모태 출자액	조성 기대액	최대 출자율
청년창업	3,300	5,500	60
재기지원	2,500	3,125	80
4차 산업혁명	2,500	3,572	70
지 방	200	334	60
지식재산권	200	334	60
<b>계</b>	<b>8,700</b>	<b>12,865</b>	<b>-</b>

단위 : 억원,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향후 신설·확대되는 주요 벤처지원 사업 및 펀드 >

<b>청 창 업</b>	(유형 및 규모) 모태펀드 출자 / 3,300억원('17.하~) (대상) 대표자 만 39세 이하 혹은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창업지원대상 창업자
<b>재 기 지 원</b>	(유형 및 규모) 모태펀드 출자 / 2,500억원('17.하~) (대상) 폐업 사업주의 재창업, 정부의 재창업 지원 제도에 참여 하여 수혜받은 이력이 있는 中企 등
<b>기 술 사 업 화</b>	<b>Creative Lab</b> (유형 및 규모) 창업 지원 / 349억원('18 신설) (주요 내용) 일반인들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공간 제공, 인력 양성 등
	<b>TIPS</b> (유형 및 규모) 기술형 창업 지원 / 1,079억원('18, 계속) (주요 내용)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으로 정부 R&D자금(최대 5억원) 및 민간투자금 매칭 지원
	<b>4차 산업혁명</b> (유형 및 규모) 모태펀드 출자 / 2,500억원('17.하~) (대상) 투자금 50% 이상을 동 분야 R&D 등에 사용 하거나 매출 50%가 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中企

자료 : 한국벤처투자, 정부 보도자료

## 2. 중소기업 금융 [이슈] : 新정부 생산·포용적 금융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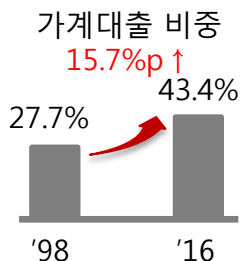
### 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축을 위해 생산·포용적 금융 추진

- ✓ (생산적 금융)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모험적인 자금중개 역할을 강조
  - 정부는 은행이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자본규제 개편을 검토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형 창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강화를 유도
- ✓ (포용적 금융) 영세서민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17.8),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17.8), 최고금리 24% 인하('18.1) 등 추진
  - 기업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금융기관 역할 확대를 요구

#### < 생산적 금융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금융산업 >

#### < 포용적 금융 관련 주요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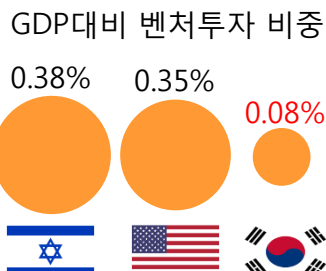
▷ 가계대출 안주 ▷ 담보·보증 위주 중기대출 ▷ 미흡한 벤처투자



주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주 : '17.4월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주 : '15년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  
(영세, 0.8%) : 매출액 2→3억원 이하  
(중소, 1.3%) : 매출액 3→5억원 이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17.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5.6조원, 금융공공기관 16.1조원

최고금리 24%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7.9→24%로 인하  
66→49→44→39→34.9→27.9→24%  
(02) (07) (10) (11) (14) (16) (1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3. 중소기업 정책

# 3. 중소기업 정책 :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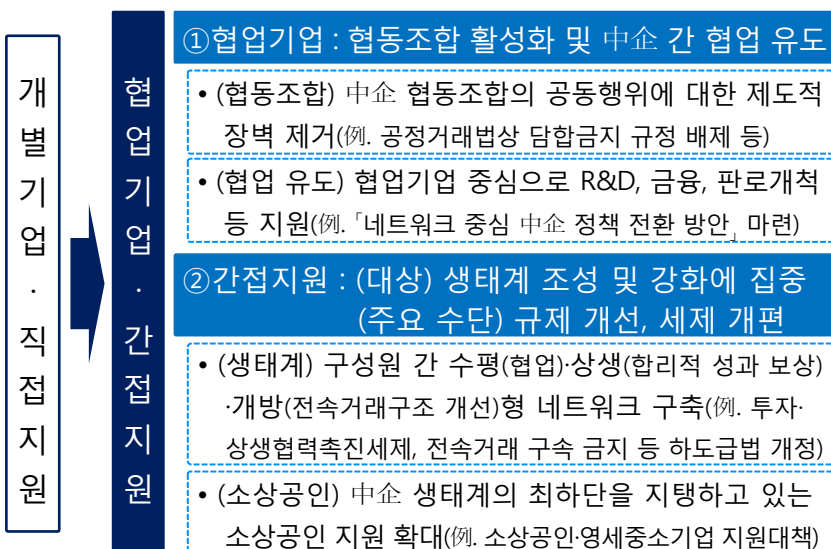
## 정부 정책지원의 목표가 일자리에 방점을 찍으며, 지원 방식도 전환 추진

- ✓ (기본 방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및 안전망 구축
  - (창업)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 도모
  - (동반성장) 중소기업 생태계내 공정시장 질서 확립으로 성장기반 강화
  - (안전망) 경쟁심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 ✓ (지원 방식) 개별·직접지원보다는 협업·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R&D 등도 컨소시엄이나 공급체인내 中企 간 자발적 연합 등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강화

### < '18년 중소기업 주요 정책 >

	방향	주요 정책
창업	① 접근성 제고	Creative Lab 설치, 연대보증 폐지 등
	② 벤처 생태계 활성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동반성장	① 공정경쟁	(大-中企)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가맹·유통)
	② 성과공유	(中企-中企) 협업전문회사 제도 등
안전망	① 경영비용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②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 '18년 중소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 >



# 3. 중소기업 정책 : 창업

## 창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벤처 생태계 강화를 통해 혁신창업 유도

- ✓ **창업 및 재도전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제2의 창업붐 조성**
  - 참여·융합형 창업공간 Creative Lab 75개소 설치 및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추진
  - 연대보증 전면 폐지, 재기지원펀드 운용 등 재기희망 기업인의 재도전 인프라 강화
- ✓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을 통해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률내에 서로 상이한 벤처투자 관련 제도들을 통합·정비
  - 투자조합 형태 단순화, 모태펀드 미출자 투자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 < '18년 창업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

종류	주요 내용
Creative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기업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구현·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간 (일반랩 "상상구현터" 70개소 + 전문랩 "창업연결터" 5개소)</li> </ul>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8.2일 일몰 예정이었던 제조업 영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22년까지 연장</li> <li>• 부담금 면제 업종(제조업 → IT 등 서비스업) 및 종류 (12종 → 전체) 확대 추진</li> </ul>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 연대보증 폐지 ※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17.8월부터 폐지</li> <li>• 시중은행 신용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확산 추진</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 < 기업투자촉진법(가칭)과 現 벤처투자 제도 >

	여신전문 금융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투자 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 의무	없음	등록 후 3년 이내 자본금의 40% 이상 투자 이행	없음
특이 사항	-	-	결성시 모태펀드의 출자 필수

기업 투자 촉진법 통합

자료 : 각 법령, 한국벤처투자주

### 3. 중소기업 정책 : 동반성장

#### 중소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경쟁력 확보 지원

- ✓ (大-中企)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 노력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 가맹·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 (中企-中企) 중견-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에도 동반성장과 협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여 중견(1차)-중소기업(2, 3차) 간 상생 확산
-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이 대기업은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
-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로 중소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 (‘17.12.31일 일몰 예정)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없음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0.5
배당	0.5
상생협력출연금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18.1.1일~‘20.12.31일)	
항목	가중치
투자(토지제외)	1
임금증가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	추가 1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방식 : ① 또는 ② 中 선택

① [(당기소득 X 기준율 a%)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X 20%]

② [(당기소득 X 기준율 b%) - (임금증가 + 상생) X 20%]

주 : 과세방식에서 기준율 a, b는  $60 \leq a \leq 80$ ,  $10 \leq b \leq 20$

자료 : 기획재정부(‘17년 세법개정안)

#### < 동반성장 관련 주요 정책 >

	정책	세부 내용
大   中企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비대칭 해소) 가맹본부의 필수물품과 리베이트 관련 정보 공개 강화</li> <li>• (가맹점주 권익보호)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li> </ul>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 강화)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과징금 인상</li> <li>• (납품업체 권익보호)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 업체 보호대상 포함,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li> </ul>
中企   中企	상생결제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7.12.31일→‘20.12.31일까지 3년 연장</li> <li>• (대상)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 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li> </ul>
	협업전문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들이 R&amp;D, 공동구매,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공동출자로 설립한 회사</li> <li>•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창업수준으로 정부정책 우대</li> </ul>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 3. 중소기업 정책 : 안전망

## 내수부진 및 각종 이슈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 ✓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보장**
  -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 연장(예. 3→5년) 등 기존 中企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지정 업종의 협업화·조직화 지원
-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경영부담 완화**
  -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적용 확대 및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 등

#### < 중소기업 적합업종 vs 생계형 적합업종 >

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주체	동반성장위원회 (중기단체 신청→동반위 권고)	정부 (동반위 추천→중기부 지정)
시행	'11년, 민간자율합의 ('17년 현재 74개 업종)	'17.12월 특별법 제정(예정)
보호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5년 주기 해제 심의
지정효과	대기업 등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 권고	대기업 등의 진입·확장 원칙 금지

자료 :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대책 >

지원 분야	주요 내용																		
<b>임금 직접 보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li> </ul>																		
<b>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45.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매출액</th> <th colspan="2">적용 수수료율</th> <th rowspan="2">가맹점수(추정)</th> </tr> <tr> <th>현행</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0.8%</td> <td>0.8%</td> <td>180.5만개</td> </tr> <tr> <td>2~3억원</td> <td>1.3%</td> <td>0.8%</td> <td>18.8만개</td> </tr> <tr> <td>3~5억원</td> <td>2.0% 내외</td> <td>1.3%</td> <td>26.7만개</td> </tr> </tbody> </table>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가맹점수(추정)	현행	개선	2억원 이하	0.8%	0.8%	180.5만개	2~3억원	1.3%	0.8%	18.8만개	3~5억원	2.0% 내외	1.3%	26.7만개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가맹점수(추정)																
	현행	개선																	
2억원 이하	0.8%	0.8%	180.5만개																
2~3억원	1.3%	0.8%	18.8만개																
3~5억원	2.0% 내외	1.3%	26.7만개																
<b>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영세 자영업자(월소득 154만원 이하)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30% 지원</li> <li>• 총 1만명(기존 가입자 4천명+신규 가입자 6천명) 지원</li> </ul>																		

자료 :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3. 중소기업 정책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 2018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9.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 ✓ **일자리 창출 능력이 좋은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대거 편성**
  -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에만 2.97조원(일자리 관련 예산의 15.5%)이 투입
-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및 일자리 중심 세제 개편**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
  - 2017년 세법개정안도 ①일자리 창출 ②일자리 질 제고 ③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18년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안) >

구분	'18(억원)	증가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5,329	61.3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中企 지원)	4,276	798.3
사회보험료 지원	7,021	35.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29,708	순증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포함)	4,415	68.5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61,572	15.4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자료 :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자료

#### <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세제 >

구분	주요 내용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2년간 세액공제</li> <l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 확대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2년으로 확대</li> </ul>
일자리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li> <li>• 정규직 전환 중企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企의 세액공제액을 700→1,000만원으로 확대</li> </ul>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기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Ⅲ. 주요산업

- |          |         |
|----------|---------|
| 1. 반도체   | 6. 건설   |
| 2. 석유화학  | 7. 도·소매 |
| 3. 디스플레이 | 8. 자동차  |
| 4. 철강    | 9. 조선   |
| 5. 스마트폰  | 10. 해운  |

# 2018 국내 주요산업 전망 [요약]

산업	2017년	2018년	2018년 전망 내용
반도체			수요증가로 반도체 경기호황 지속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증가로 국내 생산 및 수익성이 다소 둔화
디스플레이			OLED 중심의 생산확대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나 경쟁은 심화
철강			중국의 철강 구조조정 영향으로 국내 철강 수출생산 증가세 지속
스마트폰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의 판매증가 예상
건설			공급과잉 우려,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둔화
도·소매			온라인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
자동차			완성차의 내수·수출은 정체, 해외 현지 생산·판매는 부진 지속
조선			탱커와 컨테이너선 수주증가에도 생산은 여전히 부진
해운			해운 물동량은 증가하나, 국내 해운사 수익 개선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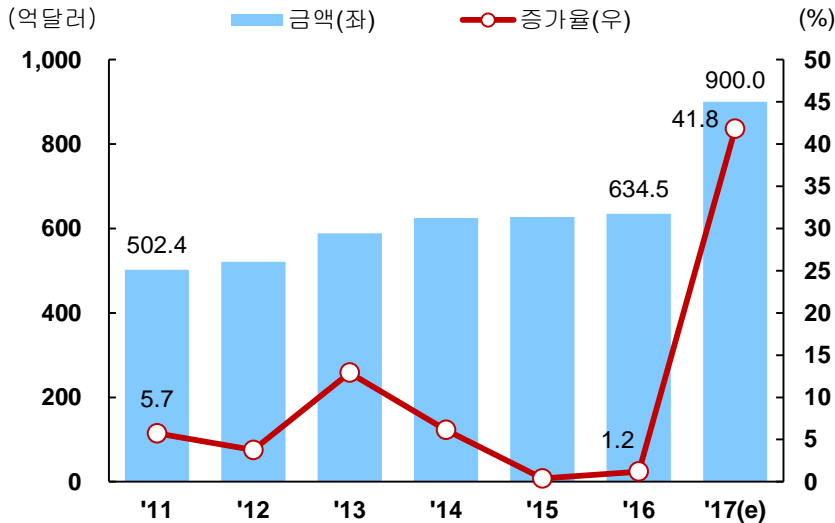
주 :  맑음(Excellent),  구름 조금(Good),  흐림(Bad),  비(Worst)

# 1. 반도체 [현황]

## 글로벌 수요급증으로 수출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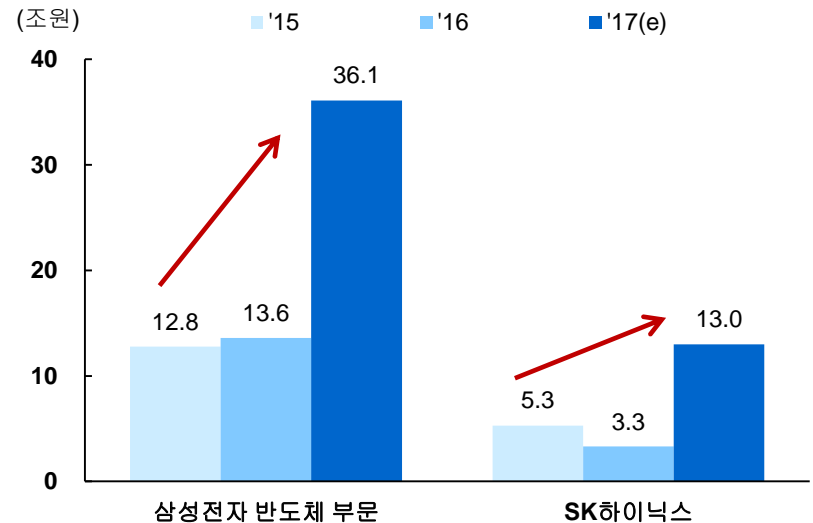
- ✓ ICT 기기 활용도 증가가 D램 및 낸드플래시 수요를 견인하며 사상 최대의 수출 기록
  -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SSD용 수요확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반도체 수요급증 영향
- ✓ 단가 상승 및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주력업체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
  - ※ 단가('16.8 → '17.8, 달러) : D램(DDR4 4Gb) 1.9 → 3.6, 낸드플래시(64Gb) 2.93 → 4.35
  - '16년 다소 둔화된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반등
    - ※ 영업이익률(%) : 삼성전자 14.1('15) → 13.7('16) → 22.8('17.상), SK하이닉스 28.4('15) → 19.1('16) → 42.5('17.상)

< 반도체 수출 >



주 :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인쇄회로, 기억장치 부문 수출금액  
합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부문 국내 주력업체 영업이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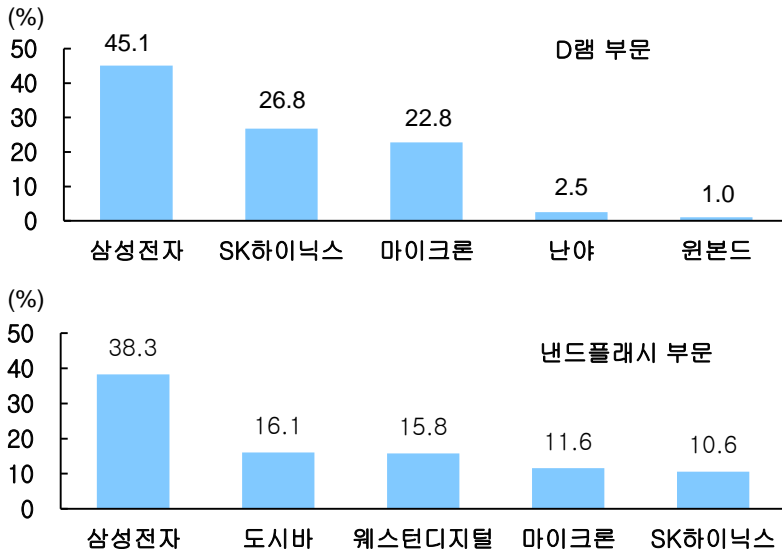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FnGuide

# 1. 반도체 [전망]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수요증가로 반도체 경기호황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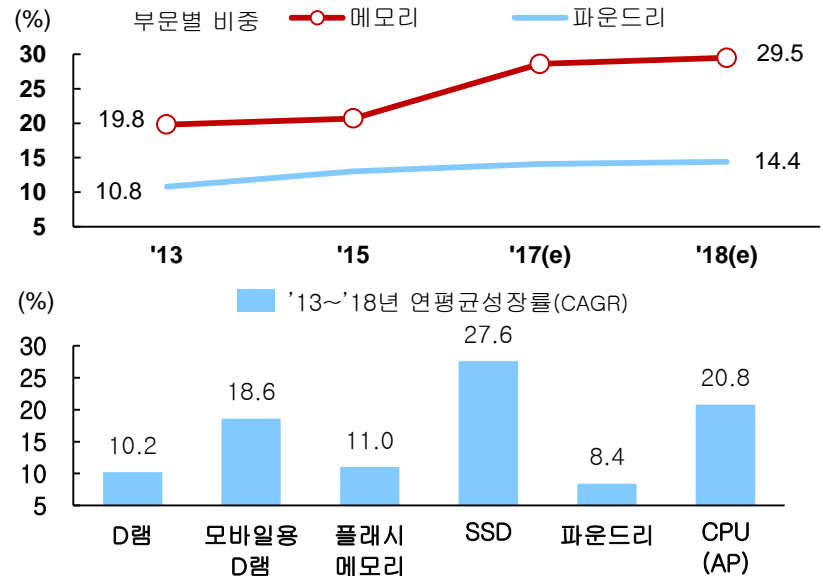
- ✓ 4차 산업혁명 관련 메모리 수요와 고사양화 요구에 따라 반도체 생산 확대 지속 예상
  - 글로벌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수 한정으로 공급부족 현상 지속
  - 단, '18.하부터 중국내 반도체 생산이 개시되는 경우 가격상승 둔화 가능성
  - \* 중국 기업 생산가동 계획(Gartner) : Fujan Jinhua D램('18.9월), XMC 3D 낸드플래시('18.12월)
- ✓ 메모리 반도체 비중 증가로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유지는 지속될 전망
  - 비메모리 분야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강화도 긍정적으로 작용

< 메모리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 >



주 : '17.Q2기준, 자료 : IHS

< 글로벌 부문별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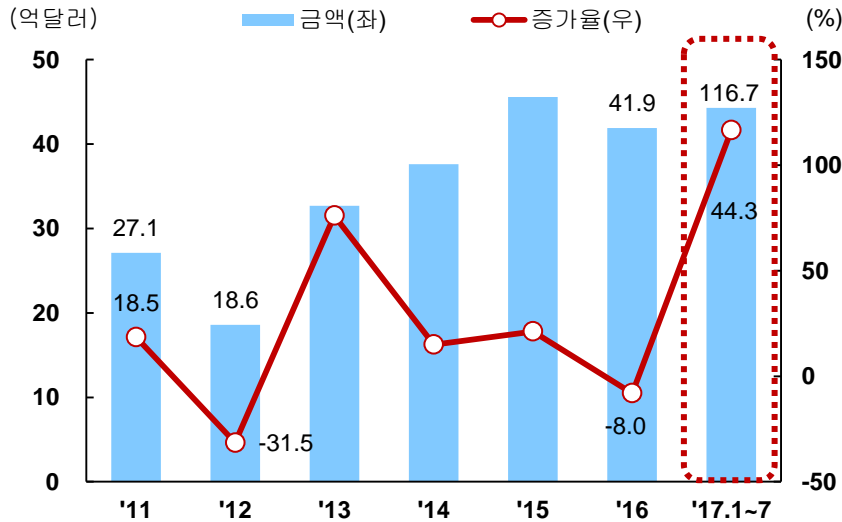
자료 : IHS, NH투자증권

# 1. 반도체 [전망]

##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수출 및 수익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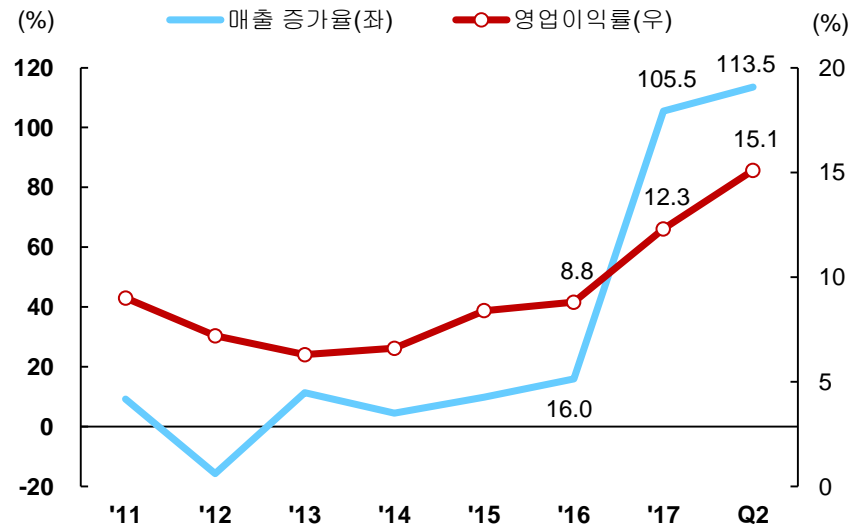
- ✓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로 국내 반도체 장비 판매·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
  -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6.7% 증가('17.1~7월 누계기준)
- ✓ 반도체 장비 제조사가 R&D 및 설비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경쟁력도 다소 높아질 전망
  - \* R&D투자(주성엔지니어링 300~400억원, 유진테크 매출액의 15%), 설비투자(AP시스템 322억원) 등
  - 다만, 반도체 과잉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시 장비 제조 기업의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우려

< 국내 반도체 장비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 매출 및 수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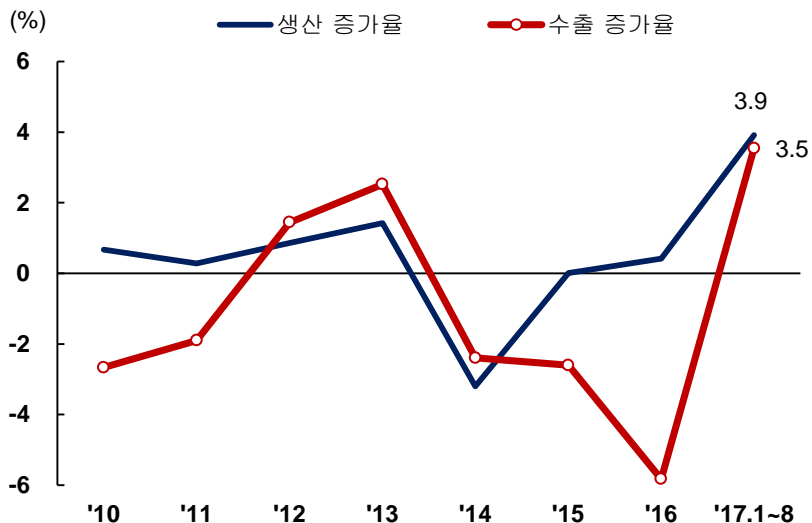
주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 제조 부문 외감  
이상 348개 기업 대상, 전년동기대비, 자료 : DataGuide, IBK경제연구소

## 2. 석유화학 [현황]

### 수출증가 및 원가하락에 따른 수익성 호전 등으로 호황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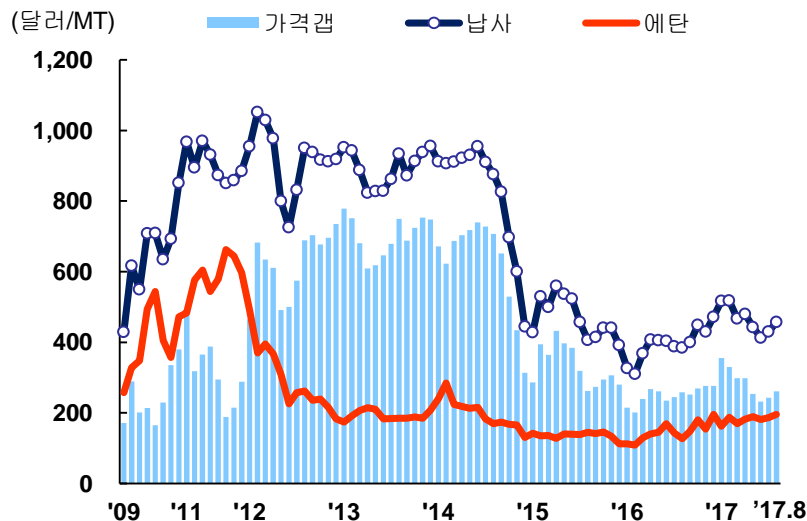
- ✓ 저유가에 따른 북미·중동 설비 증설 지연으로 글로벌 공급량이 감소되어 수출증가
  -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수출증가로 생산이 전년대비 3.9% 증가
    - ※ 유형별 생산증가율(전년대비, '17.1~8월, %) : 3대 유도품 3.9, 에틸렌 0.1, 프로필렌 6.9, 벤젠 6.5
- ✓ 납사의 가격경쟁력 유지로 제품 마진이 상승하여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
  - ※ 국내 5대 기업(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영업이익률(%) : 9.3('15) → 13.7('16) → 12.6('17.상)

#### < 3대 유도품 생산 및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 < 납사 vs 에탄 가격갭 >



주 : '11.Q2까지 분기별, 7월부터 월별 가격,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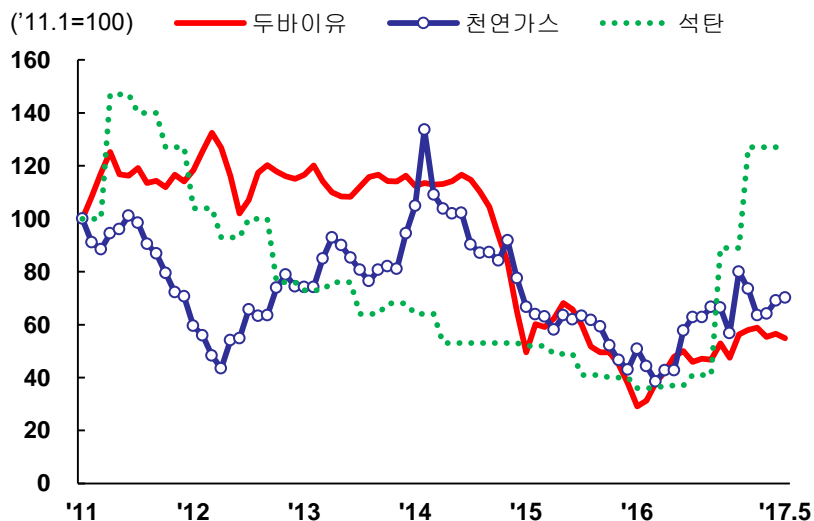
## 2. 석유화학 [전망]

### 글로벌 공급증가로 국내 생산 및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전망

- ✓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내 석유화학은 완만한 다운사이클 진입 가능성
  - 글로벌 공급증가는 아시아지역에도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제품 마진 하락
  - 다만, 중국은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 증설 지연으로 공급량 둔화 예상
- ✓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수요둔화로 對중국 수출량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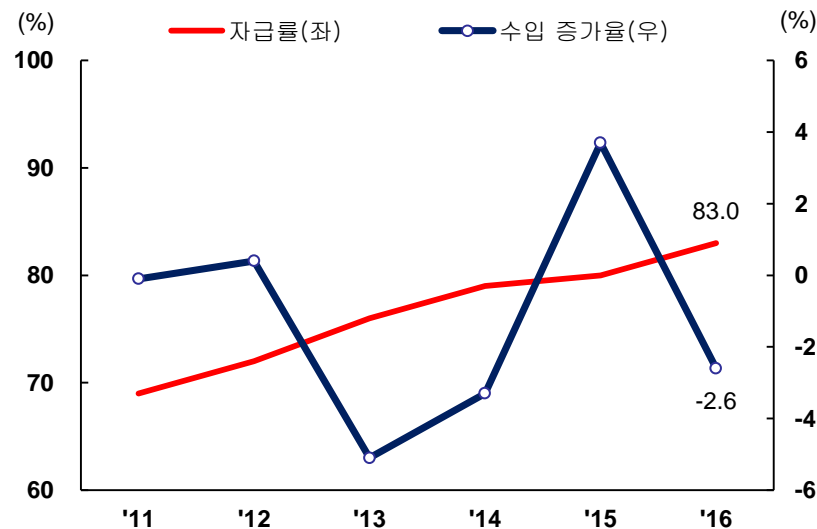
※ 주요 제품별 對중국 수출 비중('06→'16, %): 기초유분 11.2 → 20.7, 중간원료 19.7 → 42.2, 합섬원료 32.7 → 4.4

#### < 원재료 가격 변화 >



주: 월별 가격, 자료: EIA, 통계청

#### <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및 수입 >



주: 3대 유도품기준,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 2. 석유화학 [전망]

### 북미 천연가스설비 신규 가동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 ✓ '19년까지 미국 등 에탄크래커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규모(850만톤) 공급물량 증가
  - 셰일가스 개발 및 수송 인프라 관련 투자확대로 에탄가격의 안정 및 공급량 지속 예상
  - 저유가로 에탄크래커의 압도적 원가우위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납사 대비 우위 유지
    - ※ 북미ECC와의 에틸렌 생산원가 차이(달러/톤) : 800('11년, 110달러/배럴) → 230('16년, 50달러/배럴)
- ✓ 북미의 설비증설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 운송료 등 고려시 아시아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으나 역내수급 및 수익성 하락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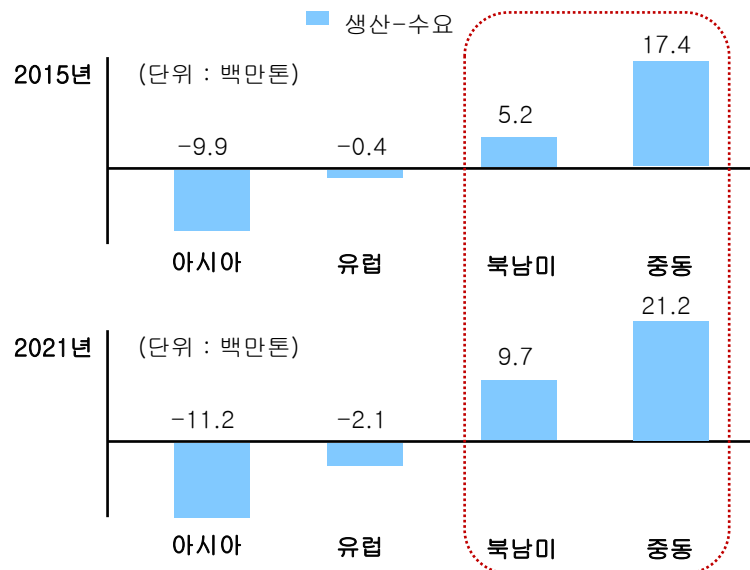
#### < 북미 에탄크래커 신규 증설 계획 >

※ '17~'20년까지 약 1,100만톤 증설 예정

회사	증설량	유도품	가동시기
Chevron Phillips	150	PE 100	2017
Dow Chemical	150	PE 75, 엘라스토머 50	2017
ExxonMobil	150	PE 130	2017
Oxy/Mexichem	55	PVC	2017
Formosa Plastics	159	LDPE, VCM, EG	2018
Sasol	150	EO, PE, 올레핀, 고무	2019

주 : 만톤, 자료 : S&P Global Platts

#### < 세계 에틸렌 유도품 수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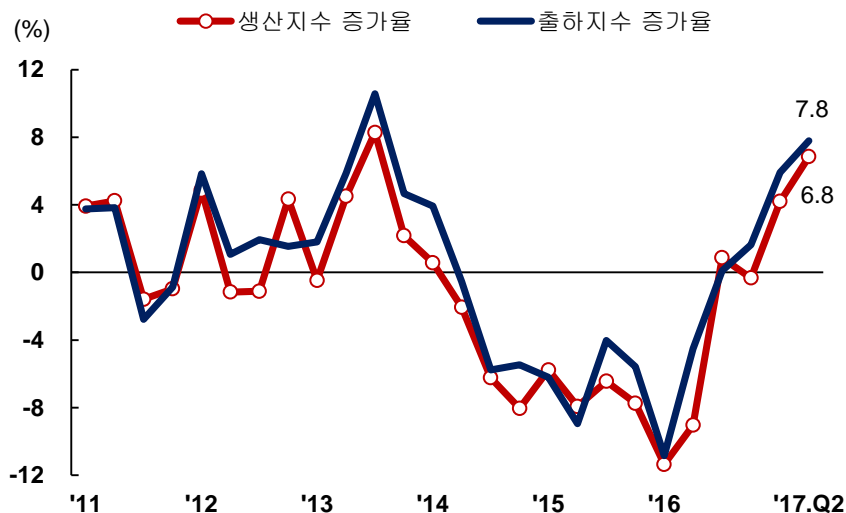
주 : 에틸렌 유도품 수급은 생산에서 수요를 뺀 양으로, 플러스는 초과공급을 의미,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3. 디스플레이 [현황]

## 국내외 패널 수요증가로 생산 및 출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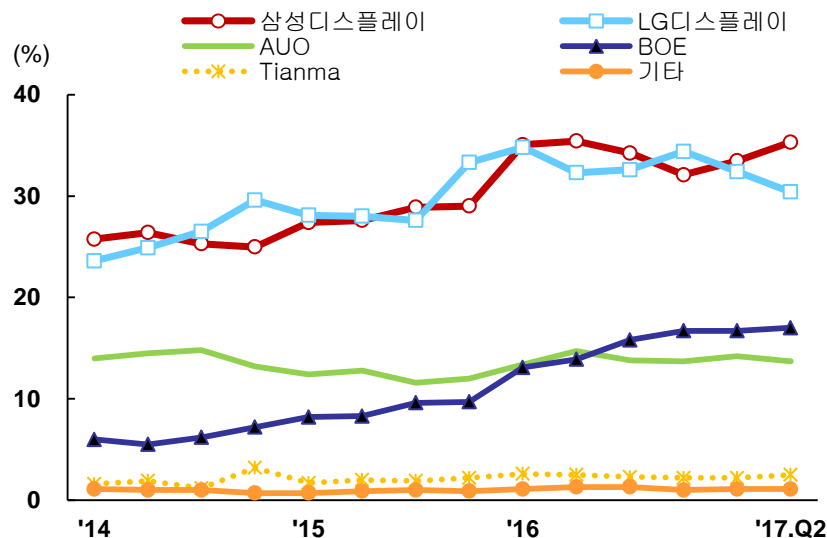
- ✓ 스마트폰용 패널수요가 증가하며 생산은 6.8%, 출하는 7.8% 증가(전년동기대비, '17.Q2)
  -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스마트폰용 패널 비중도 급증
    - ※ 비중(16상 → '17상, %): 스마트폰 67.2 → 71.4, TV 12.6 → 12.3, 모니터 7.2 → 7.2, 노트북 7.1 → 4.6, 테블릿 6.0 → 4.4
- ✓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증가세
  -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OLED 부문에서의 높은 M/S 확보 영향
    - ※ OLED 글로벌 M/S('17.Q1, %, IHS): 중소형 SSD 98.8, 대형 LGD 76.0, SSD 22.0

### <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 및 출하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 주요 제조사 글로벌 시장점유율 >



주: 매출액기준, 자료: WitsView, Bloomberg

# 3. 디스플레이 [전망]

## OLED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될 전망

✓ 중 소형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OLED사용 증가\* 영향

\* LCD에 비해 ①얇고 ②가볍고 ③응답속도가 빠른 OLED의 장점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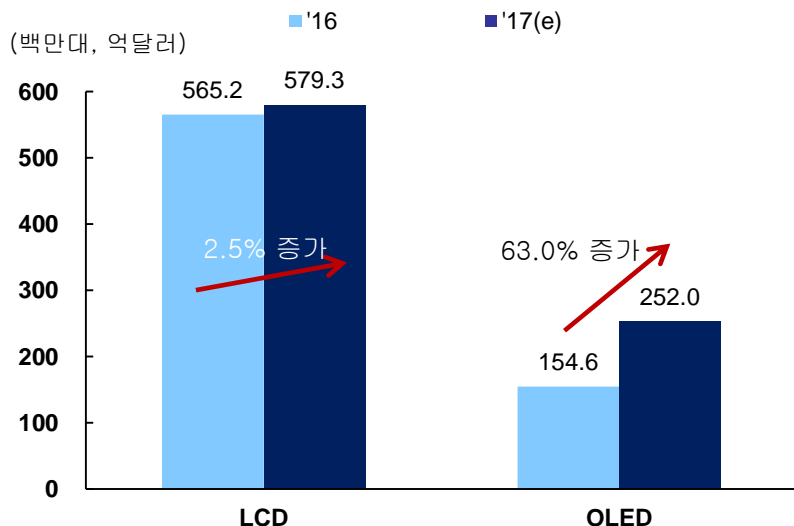
▪ 스마트폰용 글로벌 패널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제조사 비중도 지속 증가할 전망

✓ TV에서도 OLED 사용\* 증가로 OLED 부문의 지속 성장 예상

\* TV부문 OLED 사용 현황 : LG전자(13), 스카이워스, 콩카, 청홍(14), 파나소닉(15), 필립스, 그룬딕 등(16), 도시바, 소니(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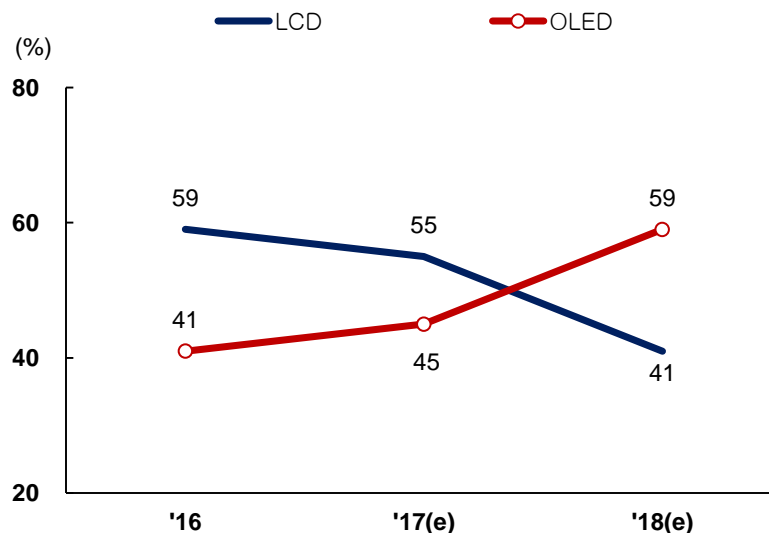
▪ VR, AR기기 활용도 증가도 OLED 수요확대의 원인

<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및 시장 규모 >



주 : LCD는 TV, 모니터, 노트북용 패널 수요 단순합계기준  
자료 : IHS, 유안타증권

<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M/S >



자료 : IHS

### 3. 디스플레이 [전망]

#### 설비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익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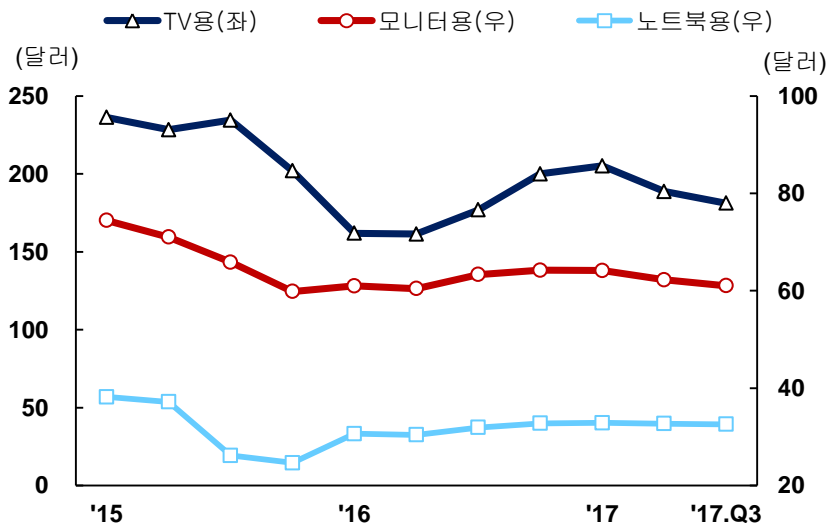
- ✓ LCD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기업들의 OLED 설비증설로 생산능력이 확대
  -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3 라인의 일부가동으로 OLED 생산용량이 10.7% 증가
  -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설비 증설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의 매출확대 예상
- ✓ 중국의 LCD 생산능력 향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인하 등 치킨게임 발생 가능성
  - 특히, TV용 LCD 패널 가격은 이미 '17년 1/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 국내 주력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따른 장기 투자전략 미흡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OLED 부문 설비투자 현황 >

기업	규모	양산 예정 시기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1조원 포함 약 16조원 규모	'17년부터 일부 가동
LG디스플레이	경북 구미 1.5조원	'17년
	경기 파주 11.99조원	'18년
BOE(중국)	청두 약 15.6조원	'19년 예정
트룰리(중국)	쓰촨성 약 6.8조원	'18년 예정
CSOT(중국)	우한 약 6조원	'19년 예정
비전옥스(중국)	구안 약 5.1조원	'18년 예정
에버디스플레이 (중국)	상해 약 4.6조원	'19년 예정
폭스콘(대만 샤프)	약 1.5조원	'18년 예정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언론보도 종합

#### < 글로벌 LCD 패널 가격 >



주 : LCD 유형별 글로벌 평균, 자료 : WitsView, Bloomberg

# 4. 철강 [현황]

## 건설용 철강의 국내 수요와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생산이 확대

✓ (생산) 건설부문 호조에 힘입어 중후판, 형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생산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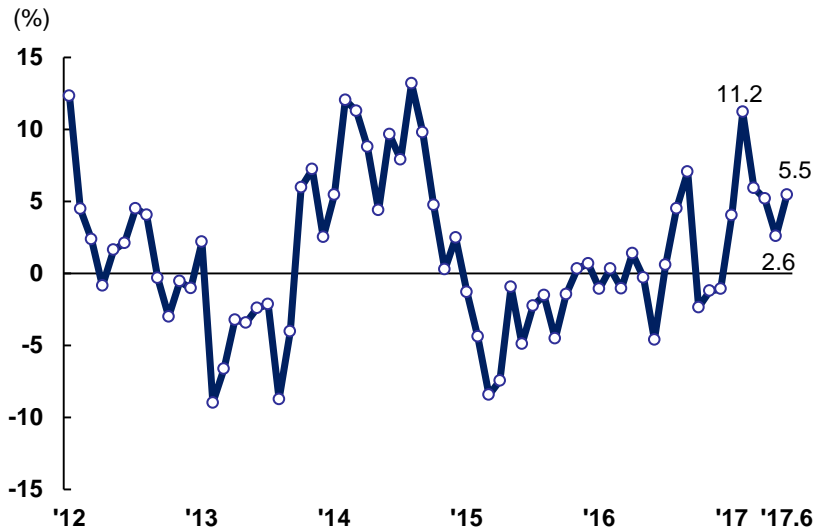
- '17.1~6월 국내 주요 철강재 누적 생산은 5.6% 증가

※ 주요 철강재 생산 증가율('16상 → '17상, %): 열연강판(△31 → 72), 냉연강판(△25 → 90), 중후판(△31 → △89), 형강(△11 → △27)

✓ (수출) 미국 셰일가스 생산확대로 유정용강관이 전년대비 229.1%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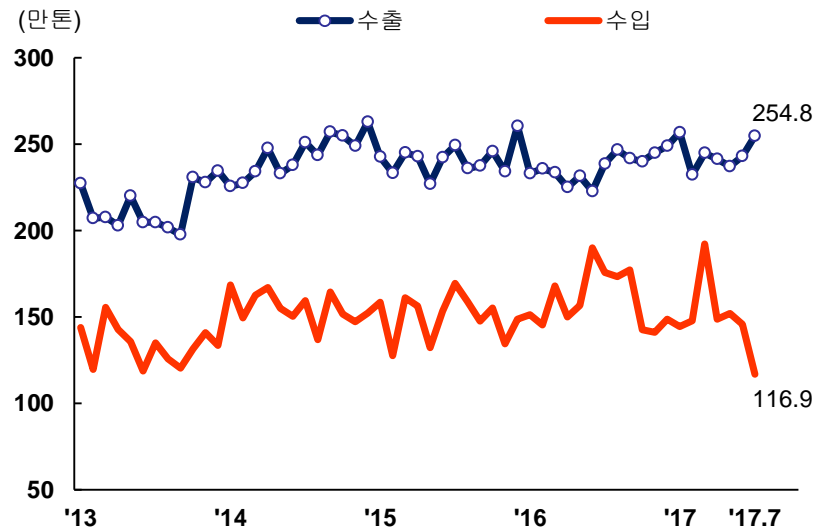
- '17.1~7월 국내 주요 철강재 누적 수출 증가율은 5.5% 기록
- 수입은 중국산 제품이 줄어들며 전년대비 20.0% 감소

< 국내 철강재 생산 >



주 : 전년대비, 주요 11개 품목 합계, 자료 : 한국철강협회

< 국내 철강재 수출입 >



주 : 물량기준, 주요 11개 품목 합계, 자료 : 한국철강협회

# 4. 철강 [전망]

## 중국 구조조정의 반사효과로 국내 철강 수출 및 생산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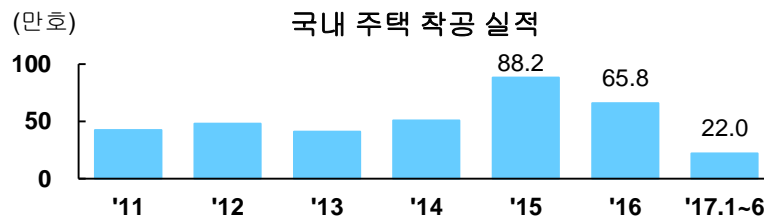
- ✓ 중국 철강 수출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예상
  - 중국 정부의 불량 철강재 퇴출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규제 강화 지속
  - ※ 중국 철강 수출량(만톤) : 4,888('11) → 5,573('12) → 6,234('13) → 9,378('14) → 11,239('15) → 10,843('16) → 8,500('17<sup>(e)</sup>)
  - ※ 중국 열연강판 수출가격(달러/MT, 상하이) : 265('15.12) → 340('16.6) → 510('16.12) → 470('17.6) → 600('17.9) → 653('17.12<sup>(e)</sup>)
- ✓ 다만, 자동차 생산 부진, 건설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국내 철강수요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

### < 중국 구조조정 및 환경규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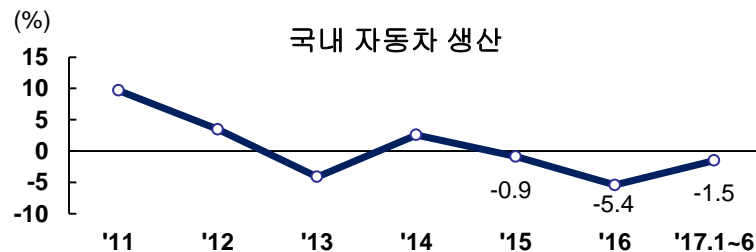
종류	내 용
구조 조정	2020년까지 1억5,000만톤 감산 계획 - '07~'15년 연평균 폐쇄량 17.7만톤 - '16년 6,500만톤 설비 폐쇄 - '17년 목표 5,000만톤 중 4,239만톤 폐쇄 완료
환경 규제	허베이철강과 서우강강철,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이 추진 중으로 완료시 생산량기준 세계 1, 3위를 차지할 전망
환경 규제	올 겨울 철강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지침 발표(허베이성)

자료 : 언론 취합

### < 전방산업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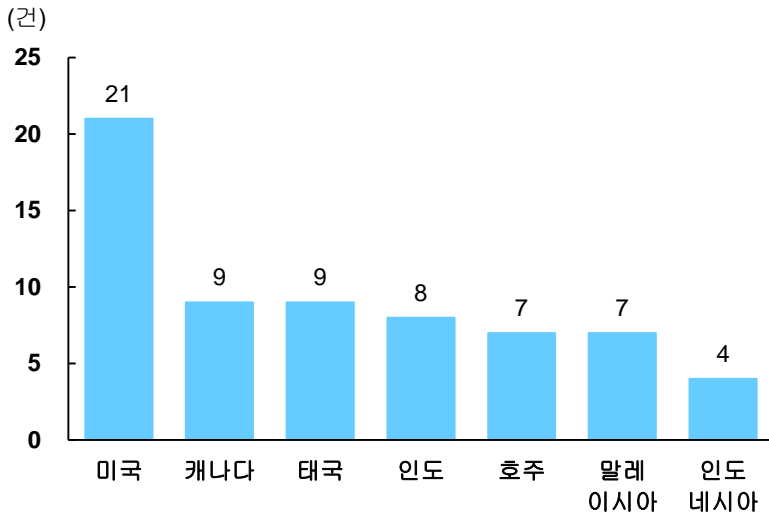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4. 철강 [전망]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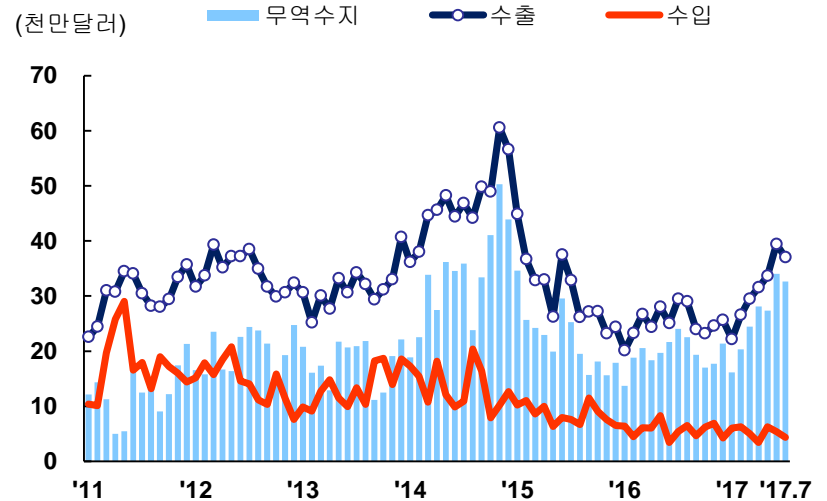
- ✓ 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90건의 對한국 수입규제 중 철강금속이 89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
    - 이 중 미국은 철강금속에 대한 최다 규제국으로 21건의 규제를 부과
  - ✓ 미국의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발동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에 대한 파급효과 조사 명령('17.4.20)
- ※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

###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



주 : '17.상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對미국 철강 무역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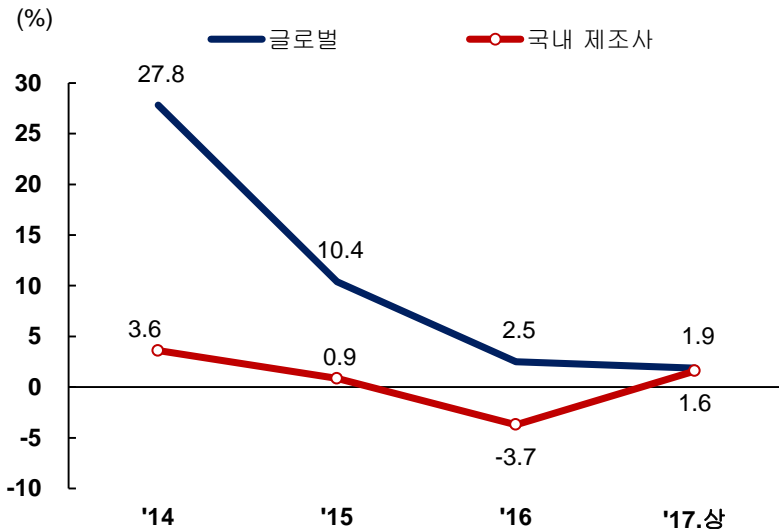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철강협회

# 5. 스마트폰 [현황]

##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국내 기업의 출하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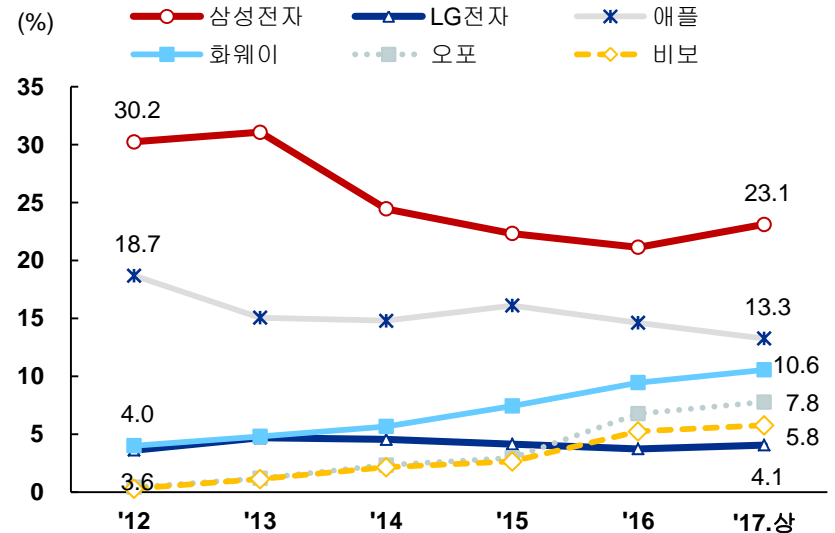
- ✓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중남미 등 신흥국과 북미·일본에서의 수요증가 영향**
  - 대용량, 듀얼 카메라 탑재 등 高사양화로 스마트폰 평균단가(ASP)도 다소 상승
    - ※ 삼성전자 ASP(달러, IDC) : 378.4('13) → 367.2('14) → 343.7('15) → 318.6('16) → 339.9('17.Q2)
    - ※ 국내 제조사 지역별 출하('16상→'17상,%p) : 중남미 5.0, 북미 2.6, 일본 0.9, 유럽 △0.1, 아시아 △0.3, 중동+아프리카 △2.7
- ✓ **단,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던 시장을 중국 브랜드(화웨이, 오포, 비보)가 빠른 속도로 추격**
  - 중국 3사의 M/S 합계(24.1%)는 이미 삼성의 M/S(23.1%)를 추월

< 스마트폰 출하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IDC, Bloomberg

< 주요 제조사 글로벌 시장점유율 >



주 : 출하량기준, 자료 : IDC, Bloomberg

# 5. 스마트폰 [전망]

##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의 판매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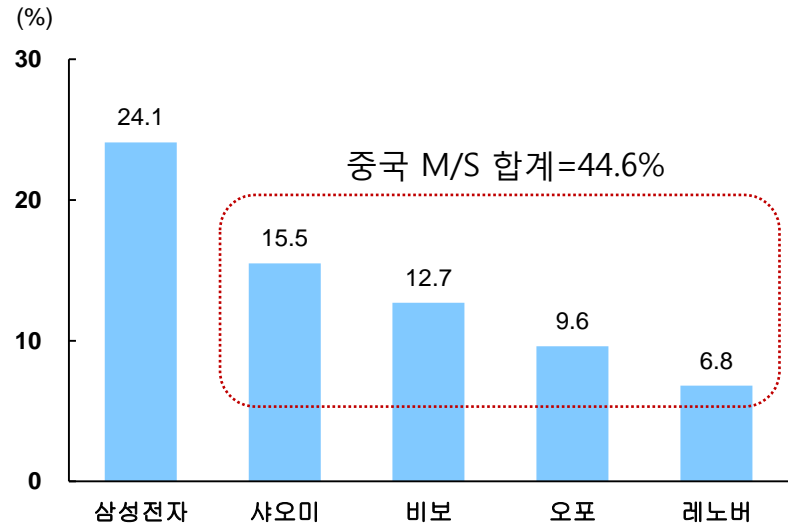
- ✓ **국내 기업이 주도한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충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증가 예상**
  - 삼성전자의 인도 전국망 구축, 중남미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대 등 이용 환경 개선
    - ※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만대, SA) : 1억1,300('16) → 1억3,000('17<sup>(e)</sup>) → 1억7,010('18<sup>(e)</sup>)
- ✓ **중국-인도간 무역분쟁으로 국내 제조사의 인도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전망**
  - 국경분쟁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어 중국 브랜드의 입지축소가 불가피(관세 부담, 브랜드 가치 하락 등)
    -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 브랜드 시장점유율 : 44.6%('17.Q2기준)

### < 신흥시장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 >

지역	현황	시기
인도	삼성전자, 전국망(LTE) 구축 완료	'16.2월
	삼성전자, 5G 네트워크 협력 발표	'17.2월
중남미	삼성전자,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 아메리카모빌과 협력관계 협약 · 4.5G 상용화로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대	'17.7월
	KT,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통신 및 ICT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17.7월

자료 : Bloomberg, 언론보도 취합

###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주요 제조사 M/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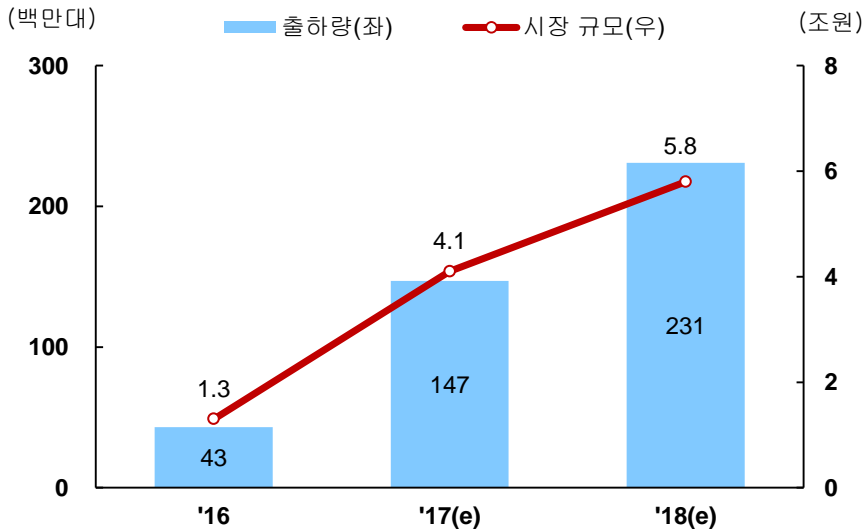
주 : '17.Q2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5. 스마트폰 [전망]

##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및 매출 확대로 국내 부품제조기업의 판매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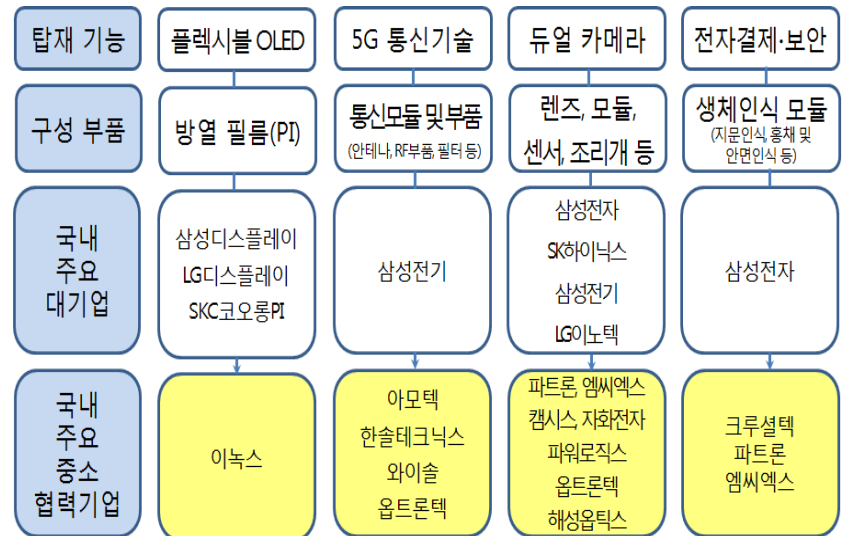
- ✓ 애플 아이폰8까지 국내 스마트폰용 OLED와 듀얼 카메라를 사용
  -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사도 국내 생산 OLED 사용을 결정함에 따라 수요를 견인
  - 카메라 렌즈, 모듈 부품(무선충전용, 지문인식용 등), 메탈 케이스, 인쇄회로기판 등도 매출확대 기대
- ✓ 5G 통신기술의 확산으로 통신모듈 관련 중소 부품제조기업의 성장도 커질 전망
  - 전자결제 및 보안시스템 탑재 확산으로 생체인식모듈에 대한 수요도 확대 예상

< 듀얼 카메라 시장 규모 >



자료 : IDC,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 프리미엄 스마트폰 국내 주요 부품 공급망 >



주 : 언론보도 등 관련업계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 6. 건설 [현황]

##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호황국면 지속

✓ (건설수주/기성)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0.4%, 건설기성은 21.0% 증가('17.상)

- 민간주택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 저유가 지속으로 중동 등의 해외 건설수주는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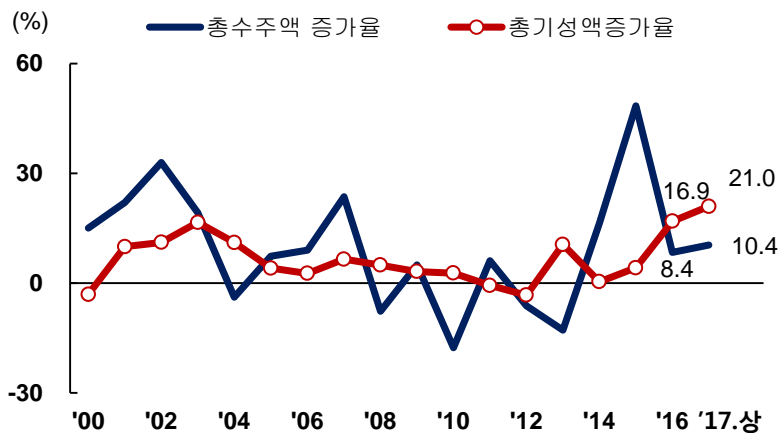
※ 민간주택수주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68.1('15) → 8.2('16) → 3.4('17.1~4월)

※ 해외 건설수주(10억달러) : 46.1('15) → 28.2('16) → 18.0('17.1~8월)

✓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및 거래량 모두 6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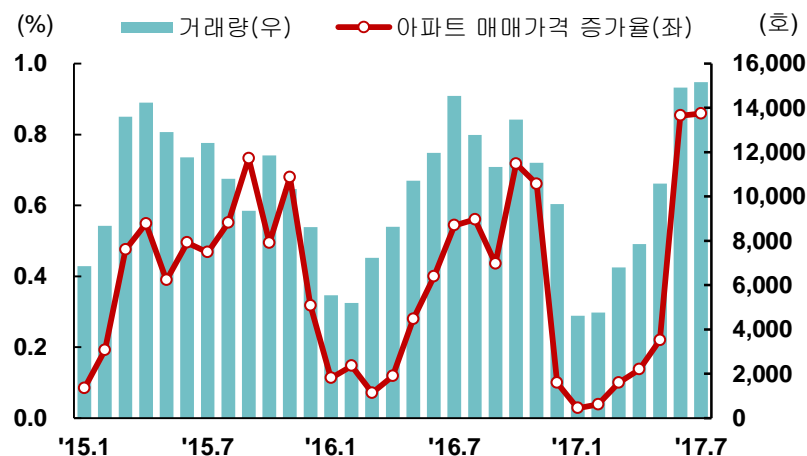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재건축 가격이 주택매매 가격 상승을 주도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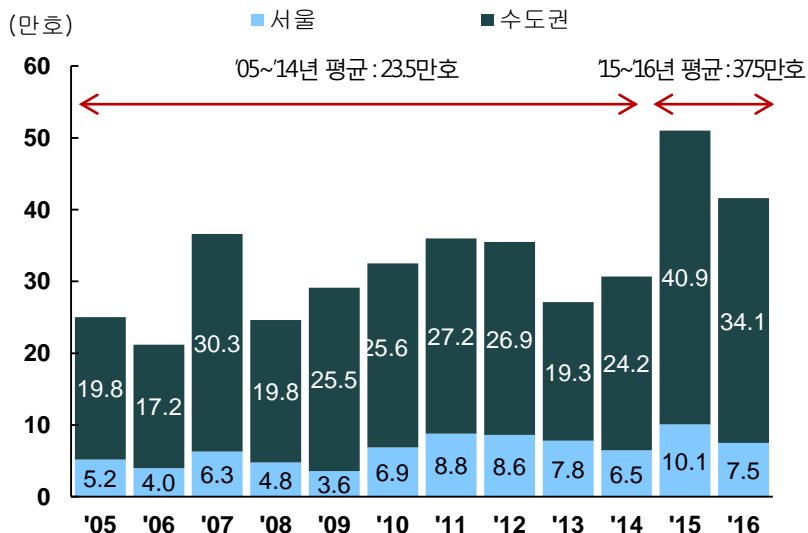
주 : 전월대비, 자료 : 한국감정원

# 6. 건설 [전망]

## 주택 공급과잉에 따라 부동산·건설 경기가 다소 둔화될 전망

- ✓ (인허가) '15~'16년 수도권 인허가는 예년 평균치를 크게 상회
  -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최근 '15~'16년 평균(37.5만호)이 과거 10년 평균(23.5만호)을 상회
- ✓ (입주물량) '17~'18년 입주물량도 최근 5년 및 10년 평균을 상회할 전망
  - 강남4구 및 경기내 서울 인접지역 등에서의 입주예정 물량도 높은 수준
  - ※ '18년 이후는 입주예정 물량이 과거 평균보다 약 10만호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

< 연도별 서울·수도권 인허가 >



자료 : 국토부

<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

	10년 평균	5년 평균	'17년 <sup>(e)</sup>	'18년 <sup>(e)</sup>
수도권	19.5	20.5	28.6	31.6
서울	6.2	7.2	7.5	7.4
강남4구	-	1.7	1.9	2.4
경기	11.1	11.5	18.7	21.5

주 : 만호, 자료 : 부동산114 재정리

## 6. 건설 [전망]

###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시행은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

- ✓ **향후 추가 대책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진정될 가능성**
  - 거래규제, 대출규제, 세금규제 등 3중 규제로 투기심리 억제와 추가 조치 예상
  - 투기지역선정 확대,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조치 가능
- ✓ **참여정부와 유사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이할 전망**
  - 과거 참여정부 때는 투기억제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억제에 실패
  - 현재의 국내 경제여건(GDP, 가계소득, 부채 등)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

#### < 참여정부 vs 신정부 부동산정책 비교 >

	구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공통점	부동산 정책	지속적인 투기 억제 정책 남발	투기 억제 정책	
	주택공급	주택공급 축소('02년 주택보급률 100%)	전체 주택공급 확대(서울 공급 미비)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주택가격 하락/미분양 일부 해소	주택가격 둔화
		전세가격	전세 및 월세 지속적 상승	관망
	현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상 최대 폭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 등장	
	부동산 및 금융정책	주택거래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투기지역 지정제도	주택거래 신고제, 대출규제, 투기과열/투기지역 지정	
	세제강화/혜택	재건축개발 환수금	재건축환수제 부활	
차이점	LTV·DII 규제적용 시점	단계적	일괄적	
	증부세	종합부동산세 도입('03.10)	강화 검토	
	보유세	보유세 및 취·등록세 강화 (공시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증부세 부과)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재정리

# 7. 도·소매 [현황]

## 도·소매업 생산이 둔화된 가운데 소매 업체별 성장 차이는 뚜렷

### ✓ 내수경기가 다소 부진하여 도·소매업 생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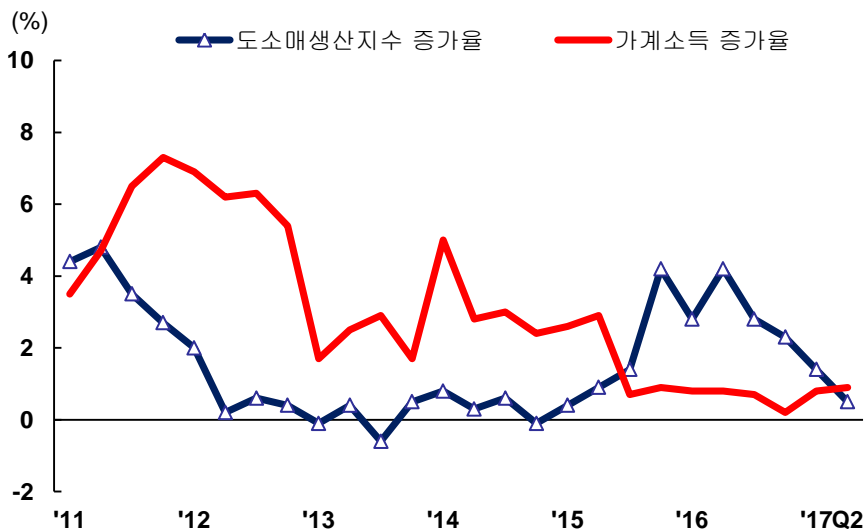
- 가계소득 정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영향

### ✓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변화로 소매 업체별 성장 격차 확대

-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소비 활성화로 편의점, 무점포소매 등의 성장세가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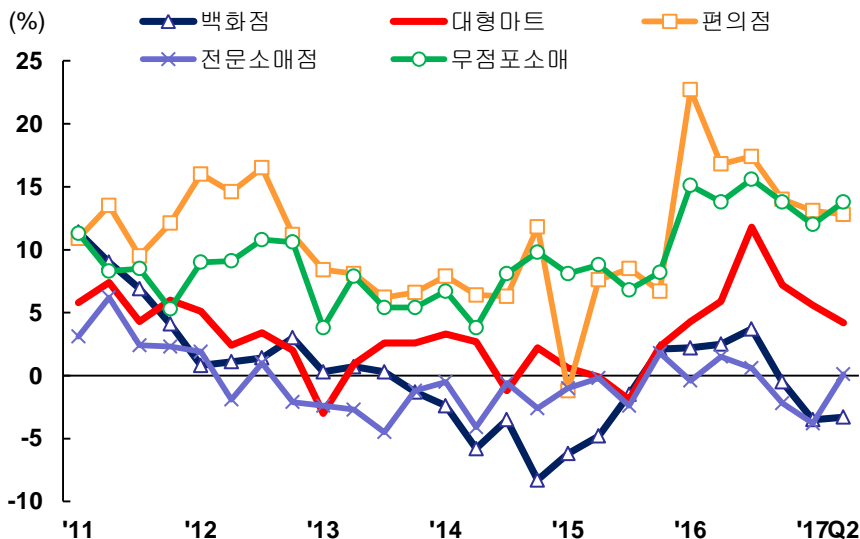
※ 업체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7.Q2, %) : 편의점 12.8, 무점포소매 13.8, 대형마트 4.2, 백화점 △3.3

### < 도·소매업 생산 및 가계소득 >



주 : 도·소매생산은 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임대료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 업체별 소매판매액지수 >



주 : 무점포소매는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판매를 의미,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7. 도·소매 [전망]

##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경기회복 기대감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이 도·소매 판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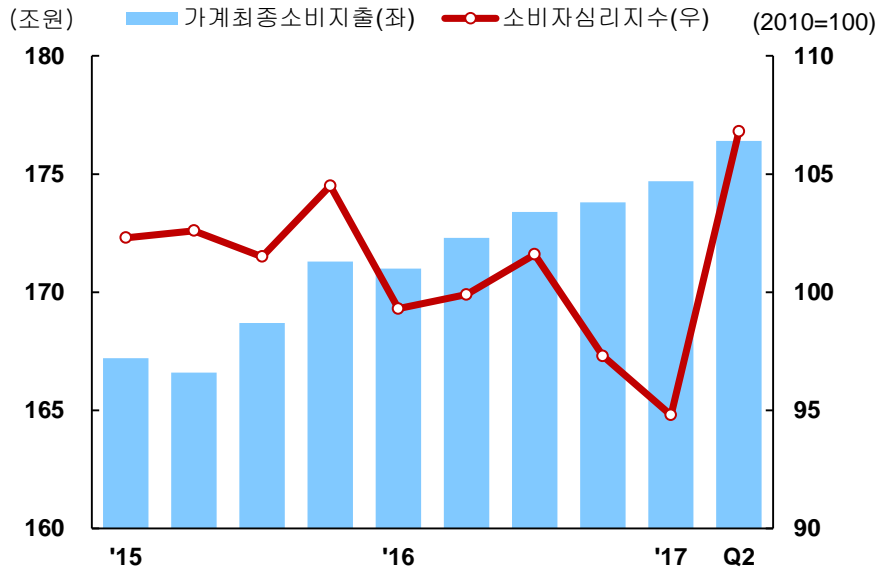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2010=100) : 102.0('16.Q3) → 97.3('16.Q4) → 94.7('17.Q1) → 107.0('17.Q2)

✓ 구매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소매업 위주의 성장 예상

- 무점포소매점(인터넷·모바일쇼핑, 홈쇼핑 등) 성장이 지속, 특히 모바일 소비가 성장을 주도
- 다만, 북핵 리스크로 인한 외국인 소비감소, 규제강화에 따른 제약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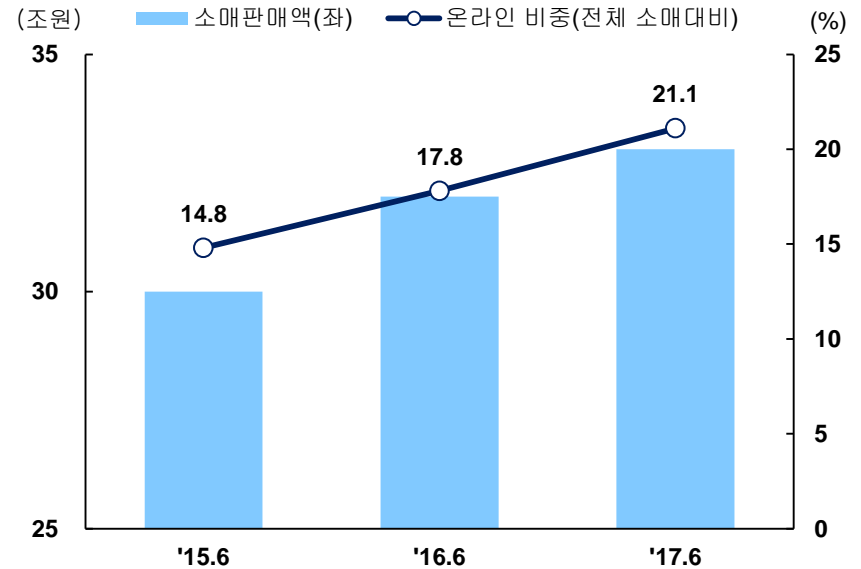
※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 금액 비중(% , 통계청) : 44.5('15.Q2) → 52.3('16.Q2) → 60.8('17.Q2)

### < 소비자 동향 및 소비 >



자료 : 통계청

### < 온라인 소매판매액 >



자료 : 통계청

# 7. 도·소매 [전망]

## 유통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에 부담으로 작용

- ✓ 대규모 유통업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 사업체 규모가 작고,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커질 전망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중소 납품업체 부담 경감 등 유통업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도·소매 유통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과 각종 규제 영향의 차이가 있을 전망

###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 주요 내용 >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7.12)</li> <li>✓ 정액과징금 상한액 인상(5 → 10억원)('18)</li> </ul>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쇼핑몰, 아울렛 규제 대상에 포함('17.2)</li> <li>✓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18)</li> <li>✓ 구두발주·부당반품에 따른 피해예방('17.12)</li> </ul>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18)</li> <li>✓ 유통 업체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상사)</li> </ul>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최저임금제 인상 관련 설문조사 >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된다고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전환	근로감독관 확대 시행
78.1%	9.6%	8.7%	3.5%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기업인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임금부담으로 고용 위축	인건비 증가로 경영애로	여력 없음	없음
32.1%	36.4%	27.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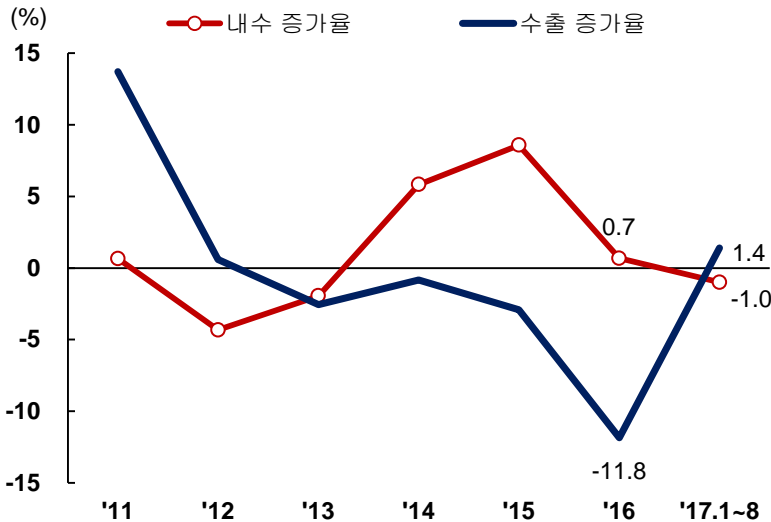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17.7), 응답인원=517

# 8. 자동차 [현황]

## 국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국시장에서 판매 부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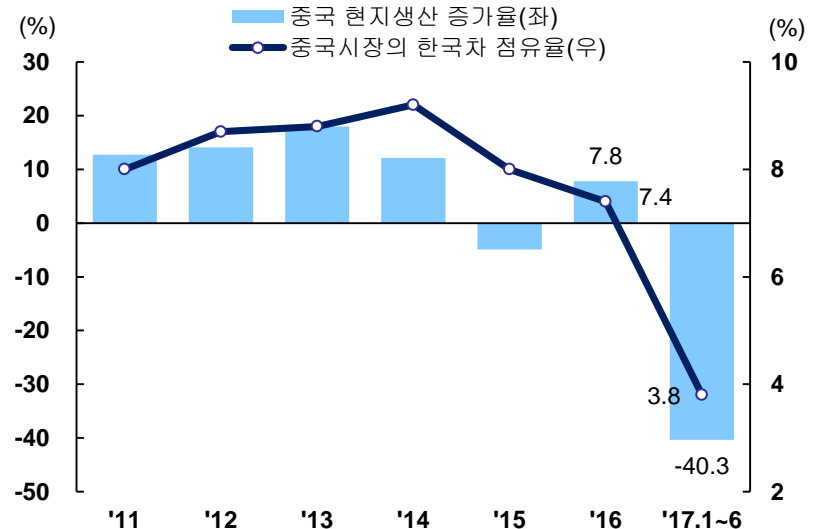
- ✓ (국내생산) 친환경차 수출 호조 및 '16년 파업 기저효과로 생산량 소폭(1.3%) 증가
  - (내수)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차 및 소형차 주력모델 노후화로 판매 부진
  - (수출)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호조로 수출량(1.4%↑), 및 수출액(6.3%↑) 증가
    - ※ 국내 생산량 증가율(%) : △2.0('12) → △0.9('13) → 0.1('14) → 0.7('15) → △7.2('16) → 1.3('17.1~8월)
- ✓ (해외) 국산차의 경쟁력 저하, 로컬 브랜드의 부상 등으로 현지생산 급감(40.3%↓)
  - ※ 중국 자동차 시장내 M/S('16.1~6월 → '17.1~6월, %) : 한국 7.3 → 3.8, 중국 43.8 → 45.6, 일본 15.9 → 18.0

< 자동차 내수 및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대수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중국 현지생산 및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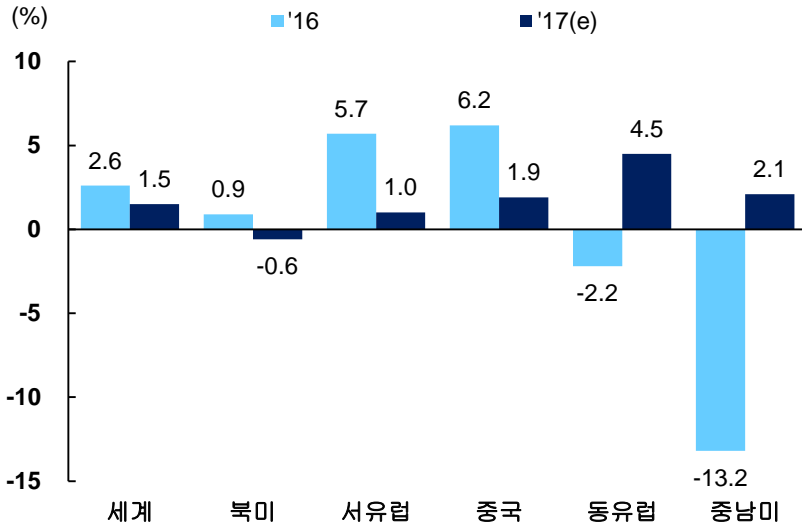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대수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자동차 [전망]

## 국내 완성차의 내수·수출은 정체, 해외 현지생산은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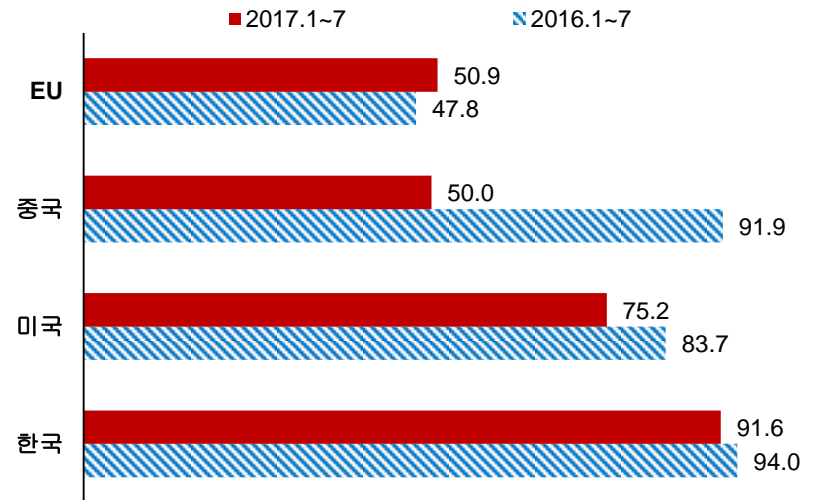
- ✓ (국내) 미약한 내수 회복, 해외 현지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은 정체
- ✓ (해외) 세계 자동차시장 성장 정체, 중국내 판매 부진 지속으로 고전 예상
  - 중동·중남미 등에서의 판매 부진 지속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 ※ 미국 요구사항 : 자동차 관세(2.5%) 부활, 공장이전 및 투자확대,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 중국 로컬 브랜드의 품질과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잠식
- ✓ 한국 완성차의 저가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부품기업에도 부정적 영향

< 세계 자동차 판매 >



주 : 중대형 상용차제외,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HIS, LMC Automotiv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현대·기아자동차 국가별 판매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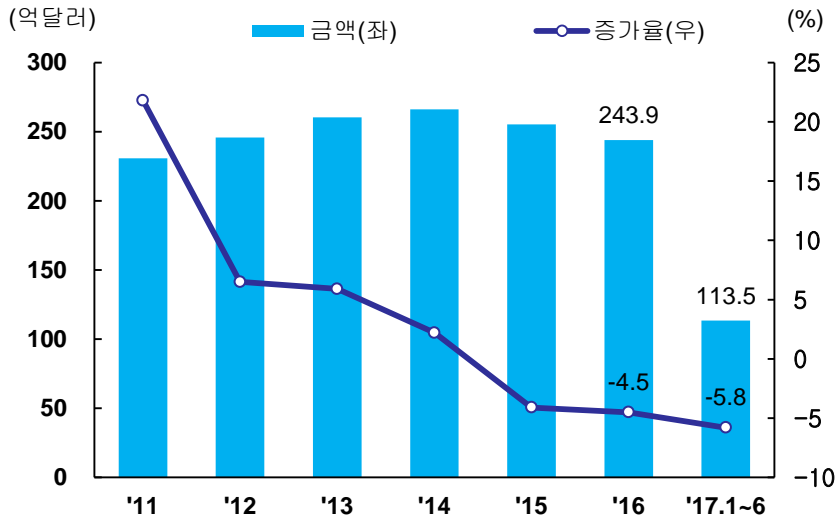
주 : 만대, EU는 1~6월까지 판매량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자동차 [전망]

## 완성차의 생산·판매 부진으로 중소 자동차부품사의 경영난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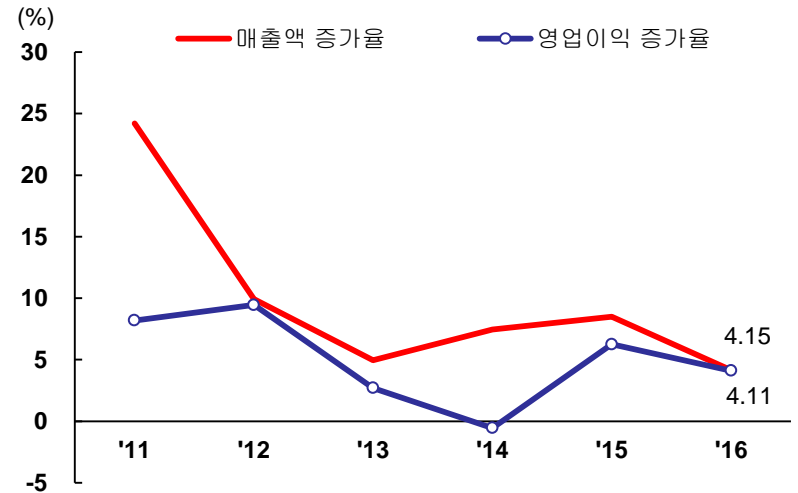
- ✓ 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 현지부품 조달증가 등으로 부품 수출액 감소세
  - '17년 상반기 부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113.5억달러 기록
  - ※ 자동차부품 수출액 증가율(%) : 6.5('12) → 5.9('13) → 2.2('14) → △4.1('15) → △4.5('16) → △5.8('17.1~6월)
- ✓ 국내 자동차부품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 지속
  - 완성차 기업의 실적 부진, 기아차 통상임금소송, GM철수설 등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

<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 >



주 : 품목 MT1742,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내 자동차부품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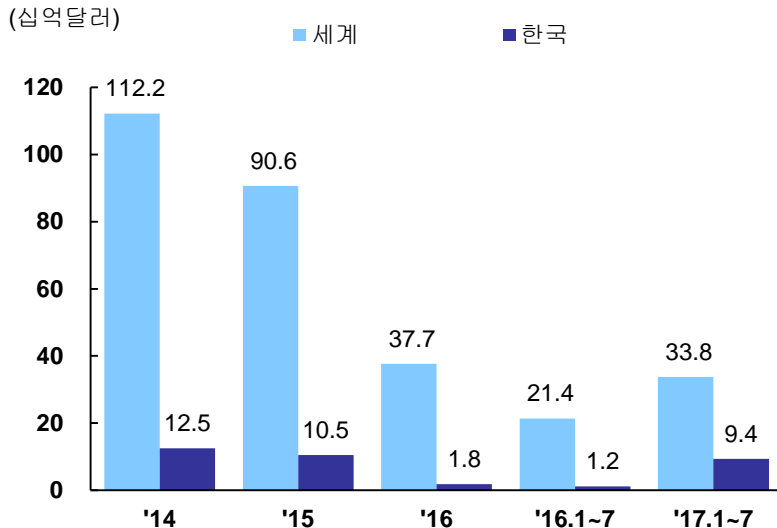
주 : 외감 대상 기업 1,467개 합산, 자료 : DataGuide

# 9. 조선 [현황]

## 국내 조선 수주는 증가하였으나 생산은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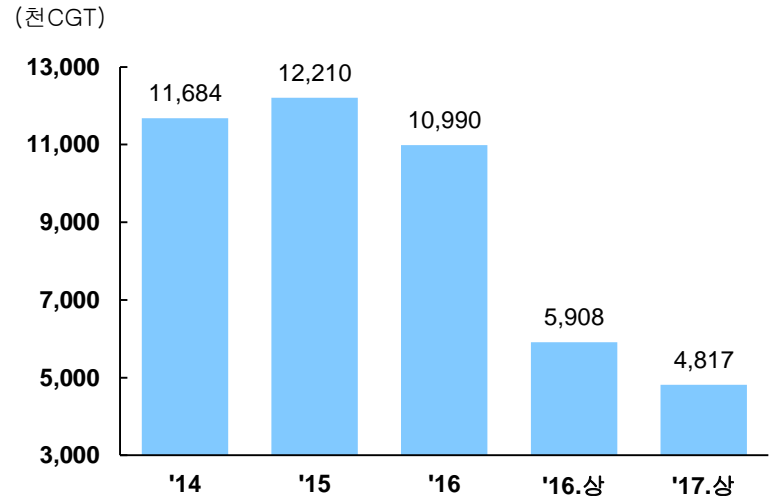
- ✓ (국내 수주) 탱커와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증가, 벌커와 컨테이너는 전무
  - '17.1~7월 국내 조선수주는 96척 340CGT, 금액 94억달러로 소폭 증가
  - 세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 세계 조선 수주액('17.1~7월) : 338억달러(전년동기대비 58.0% 증가)
- ✓ (국내 생산) '17.상 국내 조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8.5% 감소한 482만CGT로 부진

< 세계 및 국내 조선 수주액 >



자료 : Clarkson

< 국내 조선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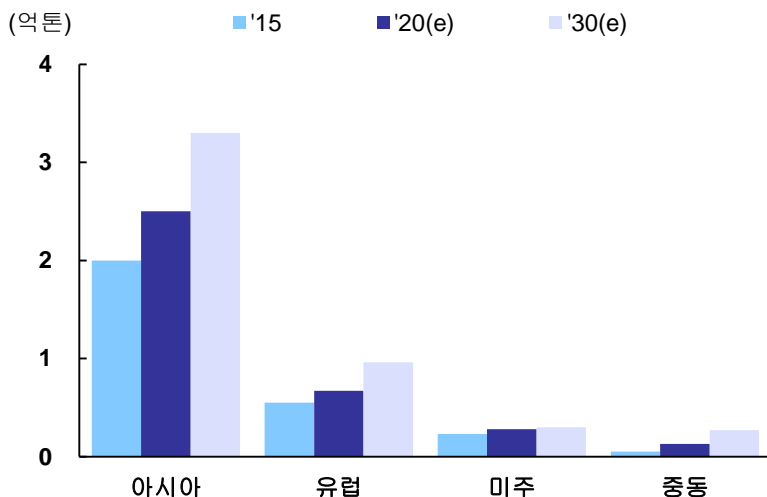
주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자료 : 통계청

# 9. 조선 [전망]

## 탱커와 컨테이너선 중심의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여전히 부진

- ✓ (탱커) 환경문제로 석탄, 석유 대신 가스 대체로 LNG 수요증가 및 미국 셰일가스 수출확대
  - 유조선은 초과공급으로 부진하나 파나마운하 개통('16.6)과 한·중·일 LNG선의 수요확대
  - ※ 아시아 지역 LNG 수입전망(억톤) : 2.0('15) → 2.5('20<sup>e</sup>) → 3.3('30<sup>e</sup>)
- ✓ (컨테이너선) 세계 교역증가에 따른 물동량 확대 및 선대 대형화를 위한 발주증가
  - ※ 1만TEU 이상 초대형선 발주 비중이 82.6% 차지
- ✓ (생산)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까지 이어지는 시차(1~3년)로 부진 지속 예상

### < 지역별 연간 LNG 수입 전망 >



자료 : 팩츠글로벌에너지(FGE), 중앙일보('17.7.12)

### <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 >

TEU 사이즈	발주		
	척수 (척)	용량 (만TEU)	비중 (%)
1만 이상	152	2,316	82.6
5,000~1만	7	46	1.6
3,000~5,000	31	289	10.3
1,000~3,000	161	325	11.6
1,000 미만	11	5	0.2
합 계	362	2,804	100

주 : '17.8월기준, 자료 : Alphaliner

# 9. 조선 [전망]

## 구조조정 지속으로 중소조선사는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

- ✓ (수주확대) 규제에 의한 선박 교체 수요증가 가능성으로 선박주 기대
    - '20년부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의무화, '24년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규약
  - ✓ (구조조정) 대형사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중소조선사는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 지속
    -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춘 소수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집중
    - 국내 중소조선사는 생산량 감소로 매출 및 영업이익도 큰 폭 감소
- ※ 국내 중소조선사 생산량(톤) : 50,516('15) → 34,010('16)

### <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시장 규모 >

	세계	국내
대상 선박(척)	50,000	600
시장 규모(조원)	40~50	20~30
수주액(억원)	35,521	17,307
수주량(척)	6,607	3,066

자료 : 해양수산부, “선박평수관리 협약...”, '16.11

### < 국내 조선사 매출 및 영업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6.1~6	23.6조원	1,425억원	△3천억원	38억원
'17.1~6	17.3조원	902억원	1.1조원	△27억원
증가율 (%)	△26.6	△36.8	455.2	△172.6

주 : 상장사 13개 기업 대상(대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 중견기업 3개사)  
 자료 : KED, IBK경제연구소

# 10. 해운 [현황]

## 세계 교역량 확대에도 국내 해운 물동량은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하락

✓ (세계)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며 전세계 해운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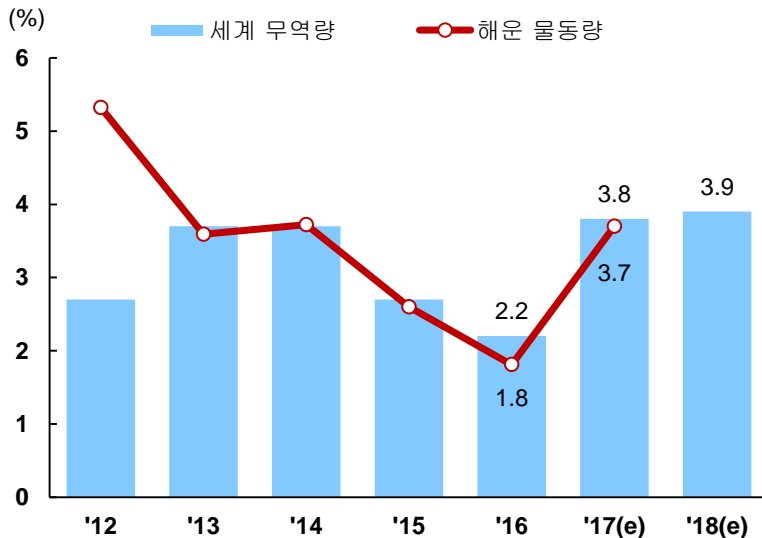
※ 전세계 해운 물동량(% , Clarkson) : 2.6('15) → 1.8('16) → 3.7('17<sup>(e)</sup>)

✓ (국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국내 선복량 하락, 물동량도 동반 하락

▪ 국내 컨테이너 선복량은 전년동기대비 62.9% 감소(105만TEU('16.8) → 39만TEU('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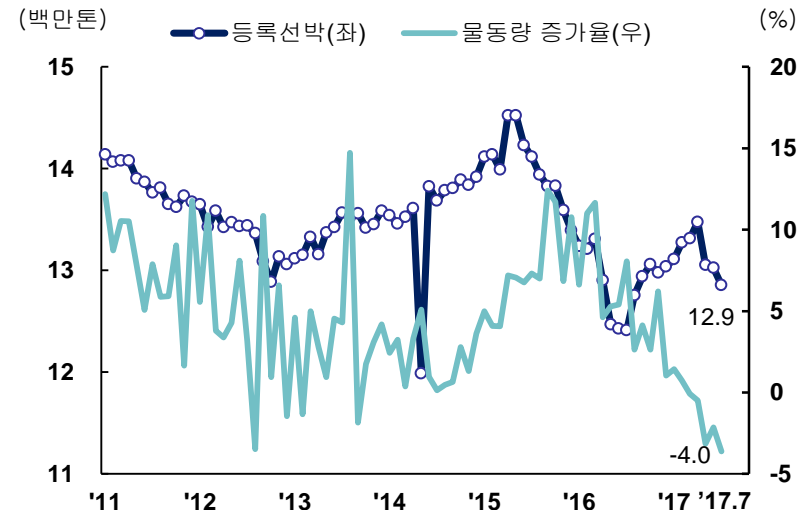
※ 북미 노선 점유율은 10.9%('16.6) → 5.8%('17.6) 하락, 해상운송수지는 사상 처음 적자(4,450만달러, '17.2월) 기록

### < 세계 무역량 및 해운 물동량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 WEF, '17.4, Clarkson

### < 국내 선복량 및 물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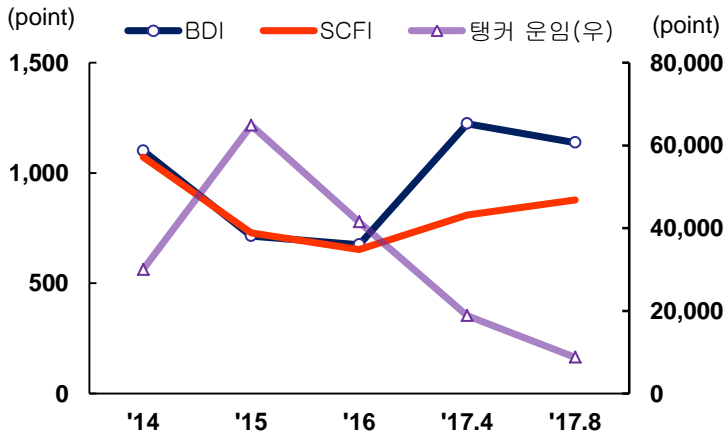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10. 해운 [전망]

## 해운 물동량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국내 해운사 수익 개선은 제한적

- ✓ '18년 전세계 교역 증가율은 3~4%대 성장이 예상돼 해운 물동량과 운임 상승 기대
    - 건화물(BDI)과 컨테이너화물(SCFI) 등은 초과공급 해소와 물동량 확대로 가격 상승 가능성
    - 반면, 초과공급 상태인 유조선 등의 탱커가격은 하락세 지속
  - ✓ 국내 상선 선복량 한계로 국내선사 비중은 줄어든 반면, 해외 선사 비중은 확대 예상
    - 한진해운 파산 이후 일부 노선은 국내 선사가 인수했으나 주요 항로 대부분은 해외 선사가 인수
- ※ 부산항 국내 선사 비중(%) : 38.5('16.6월) → 34.0('17.6월), △4.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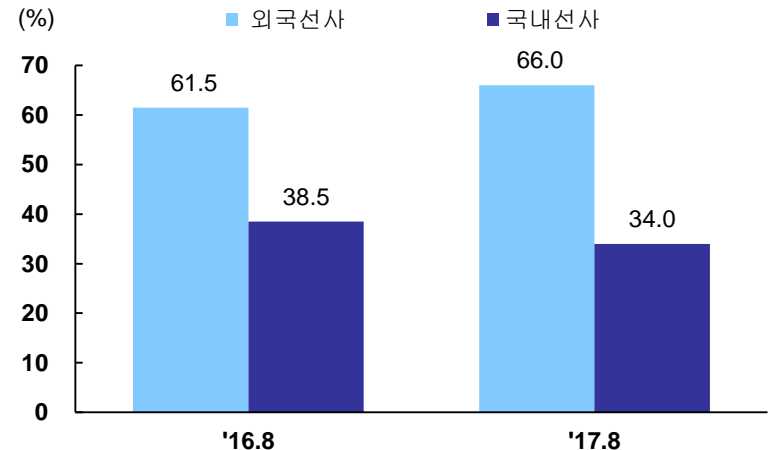
< 해운 운임지수 >



주 : 탱커 운임은 VLCC(Very Large Crude-Oil Carrier), SCFI(Shanghai Containerized Index), BDI(Baltic Dry Index)

자료 : Clarkson

< 부산항 국내 선사 vs 외국 선사 >



자료 : 부산항만공사

# 10. 해운 [전망]

## 새로운 해운 얼라이언스 참여 불발로 국내 선사들의 점유율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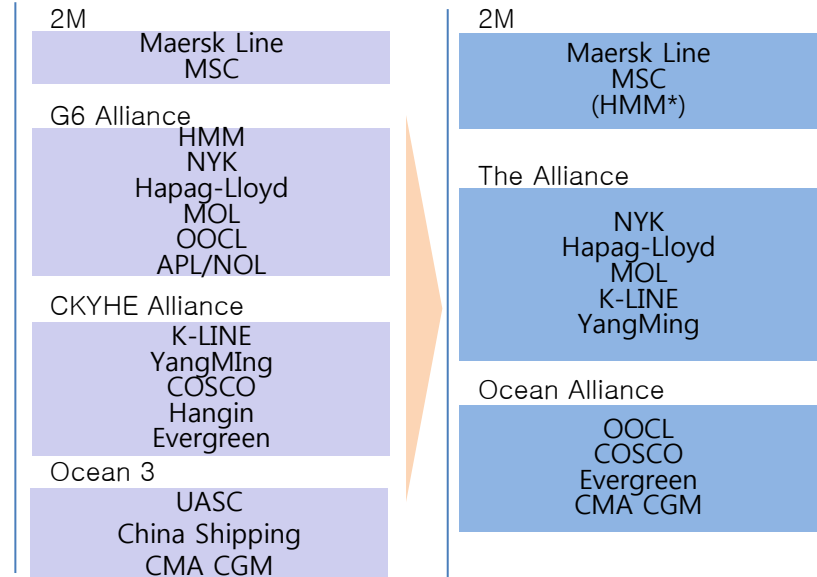
- ✓ (얼라이언스 재편)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선대 대형화
  - 소수의 선복량 상위 선사들이 중소 선사들을 흡수하며 선대를 확장
    - ※ 머스크, MSC, CMA 등의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국내 선사 점유율은 5.1%(16.8) → 1.9%(17.8)로 하락
- ✓ (얼라이언스 참여) '17.4월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때 국내 선사는 참여 불발
  - 기존 4개 → 3개 체재(2M, 오션, 디얼라이언스)로 재편
    - ※ 현대상선은 2M과 3년간 전략적 제휴, SM상선은 논의 조차 안됨

### < 글로벌 상위 3사와 국내 선사 비교 >

	'16.8월		'17.8월	
	선복량 (만TEU)	M/S (%)	선복량 (만TEU)	M/S (%)
머스크	320	15.4	345	16.7
MSC	280	13.4	309	14.5
CMA CGM	230	11.1	246	11.7
한진해운	62	3.0	파산	
현대상선	44	2.1	38	1.7
SM 상선	신설		5	0.2

자료 : Alphaliner

### <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



'12년

주 : HMM은 현대상선,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년

※ 본 책자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IBK경제연구소의 각 담당자에게로 연락바랍니다.

**경제**  
이상연 팀장  
(☎02-729-6899)

세계경제 총괄,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유가  
국내경제, 금융시장

: 송주경 대리(☎02-729-7385)  
: 장우애 과장(☎02-729-6811)  
: 이선호 과장(☎02-729-6024)  
: 이민재 과장(☎02-729-6694)  
: 김범준 대리(☎02-729-7609)  
: 곽동철 차장(☎02-729-6859)

**중소기업**  
서경란 팀장  
(☎02-729-6821)

중소기업 경기  
중소기업 금융  
중소기업 정책

: 김용덕 과장(☎02-729-6039)  
: 문태성 차장(☎02-729-6875), 이지현 계장(☎02-729-6623)  
: 김진우 대리(☎02-729-7374)

**주요산업**  
황수영 팀장  
(☎02-729-6898)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건설, 조선, 해운  
도·소매

: 김지연 차장(☎02-729-6891)  
: 박선후 과장(☎02-729-6522)  
: 황준성 계장(☎02-729-6258)  
: 전준모 차장(☎02-729-6458)  
: 송재국 과장(☎02-729-6414)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